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인의 일생





2007 제주인속문화의 해

제주인의 일생

현승환

Jeju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민속박물관

발 간 사

2007년 "제주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제주 민속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제주의 민속문화』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민속의 섬이라고 부를 만큼 풍부한 민속 문화자원들이 도민들의 생활 깊숙이 형성되어 연면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사회민속과 생업, 의·식·주와 민간신앙, 세시 풍속과 구비 전승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민속들이 도민생활의 반려로 남아 있어서 제주 섬 전체가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 민속의 보물창고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제주민속의 학술적 가치가 드높고 문화자원으로서의 특성이 가장 제주적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러한 제주 민속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창조적인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07년을 "제주 민속문화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 민속문화 조사사업도 이러한 여러 사업 가운데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조사 보고서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펴낸 『제주의 민속문화』에는 제주의 곶과 무덤, 제주어와 옹기, 상·제례, 음식 등 6개 분야로 주제를 삼아, 심도 있는 현장조사 결과를 집대성함으로써 생생한 기록문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왔을까? 하는 물음표의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의 민속문화』가 제주민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기본서로 널리 활용되어 제주 민속연구를 심화시키고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흡족하지 못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제주민속을 기록문화로 남겨야 되겠다는 열정 하나로 민속 현장을 누비고 무형의 자원을 유형문화 시켜주신 조사 집필 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각별한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발 간 사

높이 솟은 한라산과 푸른 바다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지만 정작 이 곳에서 살아왔던 제주민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 땅은 육지와는 달리 물이 쉽게 빠져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친 땅이며 평생 물허벅을 지고 나르며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고통을 안고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수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거친 땅에서 제주민들은 척박한 땅과 거친 비바람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주민의 삶은 노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야 일을 하지 않는 곳이 없다지만 제주처럼 삶이 고된 곳도 드물 것입니다.

제주 속담에 "논밧 검질 ᄒᆞ를 메민 밧 검질 사을 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에서 김을 하루 매면 밭에선 사흘을 매야한다"는 뜻으로 제주도의 밭농사가 논농사 보다 세 곱절의 힘이 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허벅을 지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물을 길러 다녔으니 그 고됨이야 말로 표현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제주민의 삶이 요즘 들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란 변화의 바람이 근래에 불어왔지만 그 속도는 아주 빠른 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주의 문화를 조명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민속문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주의 민속문화』 6권은 제주민들이 험한 제주의 자연과 맞닥뜨리면서 살아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아직은 그 모습이 남아있지만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중 제주어·무덤·곶자왈·옹기·음식·제주인의 일생에 대해 기록하여 보았습니다. 이 여섯 주제가 제주 민속문화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제주의 민속문화가 전승 보존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7년 7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신광섭

차례

Ⅰ. 머리말 11

Ⅱ. 출생의례 17

1. 기자의례 17
2. 출산 전·후 20
3. 주술과 속신 24

Ⅲ. 혼례 35

1. 막편지 39
2. 이바지 41
3. 가문잔치 42
4. 예장과 혼례 행렬 44
5. 신부댁 잔치 54
6. 신랑댁 잔치 57
7. 사돈잔치 59
8. 혼례의식의 변화 62

Ⅳ. 상례 69

1. 초종 69
2. 수시(收屍) 70
3. 고복(皐復) 70

4. 부고(訃告) 71
5. 염습(殮襲)과 입관(入官) 73
6. 성복과 일포제 79
7. 토신제 84
8. 발인·성분 86
9. 우제(虞祭) 97
10. 상식(上食) 98
11. 삭망제 98
12. 졸곡 99
13. 대·소상 100
14. 담제 102
15. 가장(假葬) 104
16. 개장(改葬) 106
17. 치산 111
18. 부조와 문상 118
19. 장례에 따른 금기 121
20. 사또놀이 124
21. 상례의 변천 129

Ⅴ. 제례 133
1. 기제(忌祭) 133
2. 명절(節祀) 142
3. 지제 142
4. 묘제 143

Ⅵ. 의례의 절차와 의미 151
1. 의례의 절차와 성격 151
2. 신앙적 의미 162

Ⅶ. 맺음말 173

<참고문헌> 176

Ⅰ. 머리말

Ⅰ. 머리말

한 여성과 남성이 성장하여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이들은 다시 성장하여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의 반복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인류학자인 아놀드 반 겐넵(1873-1959)은 이것을 세계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하여 통과의례[1]란 이름을 붙인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삶의 과정에는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조상 제사는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조상제사가 인간이 거쳐야 할 통과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의례는 아니다. 더 엄숙해야 할 의례이다. 제주도에서 인간이 살게 되면서 이러한 의례가 오래 전부터 행해 왔겠지만 문헌으로 남겨진 자료는 없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모습을 보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주도는 북으로는 북방문화의 영향, 남으로는 남방문화의 영향이 미쳐 공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중용출하는 신의 출현형식은 남방문화의 영향이고, 제주도의 독특한 언어가 알타이계통 언어의 영향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의 영향으로 인해 제주도 문화는 어느 한쪽보다 남북의 복합문화 형태를 띈다. 이러한 문화를 전승해 온 전승주체인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속에 숨어 있는 의례의 특수성을 찾아보려 한다.

제주도에는 여성 중심의 무속의례와 남성 중심의 유교식 의례가 공존

---

1) Arnold van Gennep의 "Les rites de passage"를 通過儀禮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張哲秀는 《韓國의 冠婚喪祭(집문당, 1995, 68쪽)》에서 平生儀禮를 학술용어로 사용하고, 통과의례란 인간생활에서, 주기성을 띤 것이든, 임시성을 띤 것이든,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의하여 생기는 생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달된 의례를 말한다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인간이 태어나 거쳐야 하는 의례라는데 의미를 두어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제주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다. 의례가 생활의 규범이요, 신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제주민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게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닥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거나 혹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하거나 신앙심으로 안정을 찾는다.

그런 신앙심의 일례를 상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례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거치는 가장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의례 중 하나이다. 통과의례에서 상·제례가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논의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제주민의 세계관, 영혼관 등을 살필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놀드 반 게넵이 나누는 통과의례 분류 방법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 그는 벨기에 태생의 유명한 프랑스 민족학자이며, 민속학자로 여러 민족의 통과의례를 조사, 연구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의례로 출생의례, 관례, 혼례, 상례를 들고 이를 인간이 거쳐야 할 의례라 하여 중시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의례는 분리, 과도(전이), 가입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2] 분리의례는 개인이 이전에 가졌던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전이의례는 새로운 지위 앞에 가로막힌 장애를 점차로 제거하고, 통합의례는 그가 새로 얻은 지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아 흡수되는 행위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3]

유교문화권 하의 제례는 반 겐넵의 통과의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례는 상례와 더불어 한 인간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이에 포함시키기

---

2) A.반 겐넵, 전경수 역,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94.

3) 張哲秀,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1995, 69쪽.

로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장철수에 의해 언급되었는데[4] 상례의 과정을 반 겐넵의 통과의례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은 하였지만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면서 무속과 관련시켜 신앙적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논의의 주 자료는 제주도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이 논의를 폐쇄적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제주의 문화가 한국 본토와 유다른 별개의 문화전승 구역이 아니라 언어 민속 등 한국 본토와 상당히 유사한 문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일 문화권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문화 현상은 곧 한반도의 문화현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글의 논의는 제주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본토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논의의 과정은 관례를 제외한 출생의례와 혼례, 상례와 제례의 과정을 살핀다. 오늘날까지 고정형으로 남은 것은 상례와 제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례의 의미는 상·제례에 중점을 두고, 그 과정을 반 겐넵의 통과의례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한 후 그 신앙적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출생의례를 행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았기에 과거 어머니들은 자식의 안전을 위해 출생의례를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의 출생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아이의 안전은 병원이 책임지기 때문에 심방에 의존하던 믿음은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것은 출생의례만이 아니다. 상례도 소상 대상을 치르던 풍습이 소상만으로 의례를 마치더니만 최근들어서는 소상 대신 야제(夜祭)라 하여 가까운 친족들만 모여 제사를 지내고 마쳐버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 제주도의 통과의례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으므로 제주도민이 근대교육을 받기 이전 세대의

4) 張哲秀, 위의 책.

의례 모습이라 하여 좋다. 하지만 그들도 196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급격한 문화 요소의 파괴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혼란의 모습도 반영하게 될 것이다.

Ⅱ. 출생의례

Ⅱ. 출생의례

1. 기자의례

혼인을 하고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데 심방을 불러 치르는 의례로 불도맞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산천을 찾아 기원을 하기도 한다. 이능화는 《조선여속고》에서 한국 사람들이 후사를 얻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우리 조선 사람은 딸을 이어 낳지 않고 아들만 이어 낳고자 한다. 남자로서 아들이 없으면 불효라 해서 축첩을 하여 家道를 허물어뜨리는 일도 있다. 여자로서 아들을 못 낳으면 병이라 하였고, 심지어는 七去의 한 조목으로까지 쳤으니 세계에서 후속관념이 가장 강한 것이 우리 조선사람이다. 그 까닭은 짐작컨대, 유교의 근본숭상제도를 본받아 조상을 공경하여 분향하며 제사 지내는 일을 높이 친 때문이었다.

조상제사를 위한 아들을 원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는 조선조에 나온 홍길동전을 비롯한 영웅소설에서 기자의례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명산대천에 온 정성을 드리고 태몽을 얻어 주인공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자방식은 제주도에서도 다르지 않다. 제주시 동광양의 미력보살물할망, 서김녕의 미륵당, 함덕의 서물한집, 와산의 불돗당 등이 기자의례를 행하면 효험이 있다고 잘 알려진 곳이다.

제주시에는 제주성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복신미륵이 있는데 여기에 기원하여 소원을 성취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하는데 그대로 옮겨본다.[5)]

이모여인이 동복신미륵 곁에 이사했는데 잠들기만 하면 밤낮으로 백발노인이 나타나자, 그녀는 정성으로 동복신미륵을 받들었다. 치성 후 2년이 지나 아들 쌍둥이를 얻었다.

고모여인도 1953년 동복신미륵 곁으로 이사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기절하여 점을 쳤더니 미륵을 섬기라 하였다. 온 정성을 쏟자, 부부의 건강은 말끔히 회복되었다.

1968년 당시 부산에 사는 김모씨 역시 현몽 등으로 미륵과 인연을 맺고 정성껏 섬기자 현몽하는 일도 없어졌고 그 이웃도 편안해졌다.

서복신미륵에도 온 정성을 다함으로써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으로 보면 복신미륵이 주술종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겠다.

제주도의 기자의례 장소는 한라산의 영실, 아흔아홉골, 성산읍 오조리의 식산봉, 가파도의 개미왕돌, 대정의 산방산 등이다. 이같은 곳에서 행하는 치성기자는 절에 가서 치르는 불공, 명산대천 치성, 집안에서의 치성 등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심방을 불러 치르는 불도맞이굿을 덧붙일 수 있다.

불도맞이는 큰굿의 일부로 치러지기도 하지만 자식을 얻기 위해 개별의례로 행하는 굿이다. 불도는 산신이며, 아이의 잉태, 출산을 관장하므로 불도맞이를 하면 자식을 잉태하여 순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외로 아들을 얻으려는 소망으로 행하는 주술의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유감주술에 근거한다. 그 사례로 보면, '아기를 많이 낳은 여인의 속곳을 빌리거나 훔쳐다가 입는다.', '분만한 집에 매어 둔 금줄을 훔쳐다가 잘 모신다.', '분만한 집 삼승할망상에 올려둔 쌀을 훔쳐다가 이레 동안 빈다.' 등이 있다.

---

5) 제주도, 《제주의 민속》 I , 1993, 227-228쪽.

이러한 속신은 자식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바램을 접촉주술로 나타내고 있다. 이 외로 미륵이나 돌하르방 등의 코를 쪼아서 그 가루를 먹거나, 그 가루를 삶아 그 물을 마시기도 한다.

제주도의 동북부 지역에는 '미럭당'이라 하여 미륵을 상징하는 석상을 신체로 모시는 당이 몇 개 있는데 이들에게 기자의례를 행하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도2동 속칭 동광양에 있는 '웨새미'라는 샘물머리에 미륵 석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 신은 웨새미라는 샘[泉]의 수신인 동시에, 아기를 점지해 주는 '생불할망'인 산신이다. 이 신에게 기원할 때는 "수덕좋은 웨새미 물할마님(물할머님) 이 자손을 좋게 ᄒᆞ여줍서(해 주십시오) 엇인(없는) 애기도 내와줍서(내 주십시오) 엇인(없는) 멩(命)도 이서줍서(이어 주십시오) 엇인(없는) 복도 재겨줍서(쌓아 주십시오)"라고 빌지만 오늘날 그 석상은 없다.

구좌읍 서김녕리 해변가에 있는 신당은 윤동지하르방을 모시는데 이 신에게 빌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본풀이에 따르면, 윤동지 영감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 낚시줄을 드리우면 고기는 아니 물고 먹돌만 걸려오자 그 돌을 배에 싣고 와 포구 옆에 던져버렸다. 그 이후 집안 아이들이 앓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돌을 당신으로 모셔야 하겠다는 점괘가 나와 그 이후로 이 신을 모시면 자식을 보게 되었다 한다.

조천읍 함덕리 하동의 서물날(매달 음력 11일과 26일)에 치성하는 서물한집이 있다. 이 신은 기자, 육아뿐 아니라 생업수호신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본풀이는 윤동지하르방본풀이와 유사하다.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에는 앞의 석상들이 바다에서 온 것과 달리 하늘에서 내려와 기자의 대상이 되었다. 옥황상제 막내딸이 지상에 내려와 돌로 변신하여 잉태를 주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2. 출산 전·후

현대는 都農을 가릴 것 없이 출산이 가까워 진통이 일면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하므로 별 문제 없지만, 30-40년 전만 해도 제주의 농어촌 부인들 대부분이 助産員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에서 출산했다.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우면 신부는 친정으로 간다. 출산은 친정에서 하는 것이다. 친정 어머니와 식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産母로서는 퍽 편할 뿐더러, 시집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지닐 수 있어 이롭기 때문이다. 집에서 출산할 경우라면 대체로 구들이나 대청마루방에서 출산한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마는 제주 여인들은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거나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나 축항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길가에서 출산하면 <길둥이>나 <질둥이>, 축항에서 출산할 경우면 <축항둥이>란 별명을 붙이곤 한다.

한본토로 출가했던 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도중 배 위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 위에서 숙식하면서 이 섬 저 섬을 돌며 이른바 <난바르> 물질을 하다가 느닷없이 진통을 일으키고 배 위에서 출산하고는 그냥 배에서 지냈고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딸이면 배에서 태어났으므로 <베선이>란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분만일이 가까워오면 그 집안에서는 보리짚을 차곡차곡 마련해 둔다. 산모가 진통이 있으면 보리짚을 방안에 깔고 바구니나 멱서리에 옷 따위를 가득 담고 베개를 얹힌다. 이런 멱서리나 바구니를 준비하는 까닭은 이를 꽉 붙들어서 엎드리고 힘을 내기에 편한 자세를 취하려 하기 때문이요, 보리짚은 산모가 깔아 앉고 그 위에서 출산하려는 것이다. 출산할 때 보리짚을 쓰는 까닭은 곡식의 생산성이 전이된 보리짚이 생산과 풍요

를 지니기 때문에 그 주술력과 관련된다고 본다. 보리짚 대신에 점차 비닐을 쓰기도 했지마는, 출산 후 사흘이 돼야 이를 걷어치운다. 산모의 보온을 위해서 온돌을 때기도 하는데, 그 연료로는 피마자 줄기 마른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오늘날은 진통이 오면 곧바로 병원으로 산모를 옮기지만 예전에는 조산원의 도움 없이 가족들의 협조 아래 자력으로 출산하는 예가 흔했다. 난산일 경우에는 <삼승할망>을 불러 그의 도움을 받는다.

<삼승할망>이란 관념적인 출산신을 뜻하기도 하지마는, 여기에서는 순경험만으로 조산에 익숙하고 유덕한 마을의 할머니를 뜻한다. 마을마다 <삼승할망>은 한둘씩 있는 바, 아무런 약품이나 기구를 갖추지 않은 채, 출산이 쉽게 이뤄지도록 간절히 빌고, 출산을 능숙하게 돕고 아이를 돌봐 준다. 아들을 낳게 되면 <삼승할망>에 대한 사례는 음식물이나 마포치마를 선사하는 게 관례였다.

난산일 때 <삼승할망>을 모시면 신앙에 가까울 만큼 산모는 안도감을 갖는다. <삼승할망>이 산모의 배에 손을 얹고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출산이 쉬워진다고 민간에서는 관념한다. 이처럼 삼승할망에 대해 절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무속의례의 영향인 듯하다.[6]

불도맞이에서 노래불러지는 삼승할망본풀이에 따르면 삼승할망이 잉태와 출산의 능력을 갖게 되는 내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7]

> 아버지 동이용궁과 어머니 서이용궁에게서 동이용왕따님아기가 태어났다. 자라면서 아버님 수염을 뽑고 담뱃대를 꺾고, 어머님 젖가슴을 잡아뜯는 등 죄를 지어 가니 아버지가 죽이기로 작정한다. 서이용궁어머니는 차마 죽일 수

---

6) 제주도, 《제주도 민속》 I, 1993, 252-253쪽.

7)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없어 석함에 넣어 동해로 띄워 버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생불법(잉태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임박사이 임보루주 개문개철하라'고 써서 동해로 띄우는데, 출산시키는 법을 미처 가르쳐 주지 못하고 보낸다. 물 아래도 3년 물 위에도 3년 떠다니다가 처녀물가에 떠오르니 임박사가 발견하고 생불왕(산신)임을 알고 집으로 모셔간다. 임박사 부인에게 잉태를 준다. 12달이 지나가도 해산을 시킬 수가 없어 동이용왕따님아기는 처녀물가에서 울고 있었다. 부인이 죽게 되어 가니 임박사는 옥황상제에게 신원한다. 이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는 인간에서 착한 명진국따님아기를 선정, 시험해 보고 생불왕으로 들여 세운다.

그녀는 명진국으로 가다가 처녀물가에서 울고 있는 동이용왕 따님아기를 만난다. 동이용왕따님아기와 명진국따님아기는 서로 생불왕 자리를 다투다가 옥황상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한다. 옥황상제는 꽃가구기 경쟁을 하여 번성시키는 자가 생불왕이 되라고 한다. 꽃을 가꾼 결과 동이용왕따님의 꽃은 이울어가므로 구삼승(아기를 잡아가고 죽은 영혼을 차지하는 신)이 되어 저승으로 가도록 하고 명진국따님의 꽃은 번성하므로 삼승할망이 되어 이승으로 가도록 한다. 이에 동이용왕따님아기가 성을 내며 삼승할망이 낳아 준 아기를 잡아감으로써 원한을 갚겠다고 하므로 명진국따님아기가 화해를 청하여 서로 작별잔을 나누고, 동이용왕따님아기는 저승으로 가서 구삼승이 되고 명진국따님아기는 이승으로 와서 삼승할망이 되어 '생불꽃', '환생꽃'을 쥐어 돌아다니며 인간에게 잉태를 주고 해산을 시켜주는 신이 된다.

아이는 태어나면 곱게 자라기를 기원하지만 천연두나 홍역 같은 유행병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처럼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러한 유행병이 돌면 많은 아이들을 잃었다. 그래서 '반타작'이라는 말이 생겼다. 자식을 10명을 낳아 5명만 살아나도 행운이라며 이를 '반타작' 했다고 한다.

천연두와 홍역은 한 번 걸렸다 낳으면 면역이 생겨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어린이에게만 생기는 이 병을, 천연두는 큰마누라, 홍

역을 작은마누라라고 하고 어린이의 출생을 담당한 삼승할망에게 부탁하여 치료하고자 하였다. 결국 마누라신과 삼승할망신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을 벌이고 삼승할망의 우세로 끝나면서 지상의 질서는 잡히게 된다. 그러나 생사의 문제는 경쟁으로 정할 수 없어 서로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삼승할망과 마누라신의 경쟁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8)]

> 삼승할망이 만민자손에게 잉태를 주려고 서천강다리에 나갔다가 마마를 주러 오는 대별상(마마신)을 만난다. 할머님은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 마마를 곱게 시켜 달라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었는데, 대별상은 남자 행차에 여자가 나타났다고 화를 내며 심술로 할머님 자손에게 마마를 주어 얼굴을 엉망(뒤웅박)으로 만들어 버린다. 할머님은 성이 나서 대별상의 부인에게 잉태를 주어 12달이 지나가도 해산을 시켜 주지 않으므로 사경에 이르게 된다. 죽게 된 부인의 부탁에 따라 대별상은 말을 타서 할머님을 찾아갔으나 본 척도 않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비니, 중차림을 하고 다시 와서 엎드려 빌라고 한다. 대별상이 완전 굴복하고 지시대로 순종하여 와서 비니, 그제야 허세를 부리지 말라 충고하고, 집에까지 다리를 놓아 모셔가도록 한다. 다리가 놓이자 대별상 집으로 가서 해산을 시켜 준다.

천연두와 홍역을 담당하는 마누라신인 남성신 대별상과의 경쟁에서 여성신 삼승할망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아이들이 예쁜 얼굴을 되찾게 되는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

8) 현용준, 위의 책.

3. 주술과 속신

임신을 위해 기원을 하여 소원을 성취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출산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까지 당하면 산모뿐 아니라 주변 모두의 불행이다. 따라서 산파를 부르든, 가족의 도움으로 스스로 출산을 하든 순산을 위한 기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출산을 돕는 산파를 제주도에서는 <삼승할망>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여기 <삼승할망>이란 출산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조산에 능숙한 후덕한 할머니이다. 신이 돕는다면 초자연적 힘으로 출산의 고통이 감해지겠지만 인간인 할머니가 돕게 되니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순산이 보장될 수 없기에, 출산시간이 가까워 오면 갖은 주술적 행위를 다한다. 주술력으로 난산을 순산으로 바꾸고 싶은 심정의 표현이다. 순산주술은 대체로 류감주술이다.[9)]

○ 대문·창문·고팡문·정지문(부엌문) 등 모든 방문을 열어 놓는다.
○ 궷문이나 서랍 및 장독이나 물항아리 뚜껑을 열어 놓는다.
○ 제주 특유의 재래적 온돌인 굴묵을 막아 놓은 이른바 '굴묵도'도 열어 놓는다.
○ 빨랫줄도 걷고, 옷고름 매듭이나 치마끈도 풀어 버린다.
○ 열쇠 셋을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키를 비스듬히 잡고 위쪽으로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하고, 떨어지는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물을 지붕에 던져서 따르르 떨어지면, 그 물을 키로 받아서는 곧게 흘러내리도록 하고 산모에게 먹인다.
○ 문지도리를 톱으로 좀 켜내어서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9) 제주도, 앞의 책, 253-254쪽.

○ 누에를 깐 누에씨 종이를 불에 태우고 그 가루를 온수에 타서 산모에게 먹인다.

이처럼 출산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열어 놓는 것인데, 월계 진좌수 전설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어 전승되고 있다.[10]

어느 날, 진좌수가 아직 잠도 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동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부인이 해산을 못하여 죽게 되었으니 와 봐 주십사는 것이다.

"거, 문지방을 깎아 불살라 먹이지."

진좌수는 누운 채로 잠꼬대처럼 말하였다. '우스운 방문(方文)도 다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사정이 급한지라 곧 문지방을 깎아서 살라 먹여 보았다. 그게 신기하게도 주효(奏效)하여 곧 순산하였다.

이 비방(秘方)이 곧 동네에 좍 퍼졌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 동네의 어떤 부인이 해산하게 되었다. 예상대로 난산이었다. 이틀째가 되어 날이 저무는데 산모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대로 가면 산모는 밤을 넘길 것 같지 않았다.

집에서는 진좌수의 비방을 쓰기로 하였다. 곧 문지방을 깎아다 불살라 산모에게 먹였다. 금방 순산하려니 하고 먹였는데, 순산은커녕 산모는 더욱 고통이 심해졌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진좌수에게 달려가 사실을 말하였다. 진좌수는 말을 듣고 나서

"저녁 때에는 문을 닫을 때인데, 문지방을 살라 먹이면 더 곤란할 게 아닌가. 예끼 사람! 건 아침이라야지."

하고 웃더라 한다.

열림=순산의 등식관계이며, 류감주술로 요약된다. 이런 유감주술은 이밖에도 숱하게 보고된다.[11]

---

10)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 성씨가 제각기 다른 일곱 집에 가서 열쇠를 하나씩 일곱 개를 얻어다가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피마자(아주까리) 줄기를 굴묵에서 땐다.
○ 피마자씨를 찧어서 산모의 발바닥에 바른다.
○ 피마자씨 세 알을 산모가 먹는다.
○ 하얀 피마자 줄기를 세 뼘씩 잘라서 방의 네 어귀에 세워 둔다. (출산하는 즉시 피마자 줄기는 치워 버려야 한다.)
○ 초석을 딱딱 치면서 턴다.
○ 지붕 위에 물을 던져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다가 산모에게 먹인다.
○ 미역국을 끓여서 산모에게 먹인다.
○ 소라 껍질을 산모의 양쪽 무릎 밑에 놓고 앉도록 한다.
○ 소의 길맛가지를 지붕 위에 뒤집고는 올려 얹어 둔다.
○ 초가집 네 귀퉁이에서 지붕을 인 낡은 새, 곧 그슨새를 빼어다가 산실 밑에 깐다.
○ 엽전을 구워서 그것을 끓인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살아 있는 붉은 수탉의 배를 갈라서 산모의 배 위에 마주 붙인다.
○ 꿩발을 산모의 양쪽 무릎 사이 밑에 놓고 앉도록 한다.
○ 아기가 태어난 뒤 숨을 얼른 쉬지 않으면 소댕으로 부쳐 준다.
○ 출산할 때에는 방안에 아무것도 없도록 말끔히 치운다.

이런 주술의 대부분은 순산과 열린다는 사실의 등식만으로 풀이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제주의 순산주술은 제주에만 전승되는 것도 아니요 전국에 걸쳐 전승되는데, 비슷비슷한 점이 흔히 눈에 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의 안전을 위한 태낭처리, 산모의 음식, 수유,

---

11) 고부자, 《제주도의 産前俗》, 제주도, 위의 책, 254쪽 재인용.

아이의 옷입히기 등에 주술적 행위가 이어진다. 《제주의 민속》에 소개한 자료를 정리해본다.[12)]

태낭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인 바, 이를 집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처리할 경우엔 자녀들 터울이 늦어진다는 속신도 전한다.

① 산후 3일째 되는 날 알맞는 그릇에 넣어 딱 맞은 뚜껑을 닫고 남몰래 바다에 가서 던진다. 꼭 맞은 뚜껑으로 잘 닫고 던져야지 만약 틈이 생겨서 개미에게 태낭을 물어 뜯기게 되면 그 애가 부스럼이 난다는 속신이 전해진다.

② 산후 3일째 되는 날 삼살방이 아닌 방위로 나가서 세 갈랫길 한가운데서 장작으로 태낭을 불사른다. 태우고 남은 나머지는 태독약으로 효험이 있다고 한다.

③ 산후 3일째 되는 날 삼살방이 아닌 방위로 나가서 땅속에 묻는다. 바다 가운데 처리할 때처럼 알맞은 그릇에 넣고 꼭 맞은 뚜껑을 닫고 묻어야 한다. 묻혀 둔 태낭을 3년 후에 꺼내고 간질병이나 폐병환자가 복용하면 약효가 있다고 전해진다.

탯줄은 소중히 잘 보관해 두어야 하지 자칫 좀한테 먹히면 그 애가 잘 자랄 수 없다고 한다. 애가 경증으로 앓을 때 간직해 두었던 탯줄을 태우고 그 가루를 소주에 말아서 먹이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전 집안에서 출산하는 관행일 때, 출산 중인 산모에게는 참기름에 달걀을 타서 먹이곤 한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는 메밀가루를 탄 미역국을 먹이는 게 일반적이다. 출산 후 산모의 첫 음식으로 미역을 먹는 일은 한국과 일본 곳곳에 널리 번져 있다. 이밖에 출산 직후 산모의 음식으로 다음 몇 가지가 있었다.

○ 덥힌 물에 꿀을 타서 한 보시기쯤 먹인다.

---

12) 제주도, 앞의 책, 261-265쪽.

○ 메밀가루를 물에 타서 익히고 한 보시기쯤 먹인다.
○ 청주에 설탕을 타서 좀 끓이고 먹인다.
○ 참기름을 두세 숟가락 먹인다.
○ 엿기름(麥芽)을 말을 매어 두는 말뚝이나 '신차성'(짚신을 삼을 때 쓰이는 연장)으로 빻아서 먹인다.
○ 마를 파다가 그 뿌리를 갈아서 물에 타서 먹인다.
○ 죽순을 먹인다.

예전에는 출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산모와 산아를 목욕시키는 게 관례였다. 쑥을 삶은 물을 목욕물로 쓴다. 얼레빗도 쑥물로 깨끗이 닦고 흐트러진 머리를 비로소 빗는다. 쑥물 목욕을 하는 대신에 하루쯤 쑥을 깔아 앉는 경우도 있다. 출산 일이 가까워 오면 그 집안에서는 쑥을 필요한 만큼 마련해서 깨끗하게 말려 두었다가 쓰곤 한다. 이 때 깔아 놓았던 보리짚 따위도 말끔히 걷어치운다.

출산 후 3일째 목욕한 다음 수유하기 시작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산모가 직접 수유하기 전에는 자식을 잘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는 부인을 빌어다가 젖을 먹인다. 남아인 경우는 여아를 낳아 기르는 부인을, 여아에게는 남아를 낳아 기르는 부인을 택하여 젖을 먹이게 한다는 곳도 있다.

예전엔 사정에 따라 유모의 젖을 석 달 동안이나 먹고 자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유모가 별세하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은 석 달 동안이나 복을 입음으로써 성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산모가 수유하기 전 '젯어멍'이라는 유모의 신세를 지는 일 없이 설탕물, 또는 꿀물을 먹이고 산모의 젖이 잘 나지 않을 때에도 우유로써 대신한다. 우유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지난날에는 산모의 젖이 잘

안 난다면 몹시 당혹해 한다. 젖이 난다, 안 난다는 말을 일체 삼가게 하고 온갖 대책을 마련한다.

○ 돼지 발 넷이나 돼지 머리를 달여서 산모에게 먹인다.
○ 수덕이 있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산모의 유방을 한참 문질러 준다.
○ 심방을 모셔와서 상을 차리고 빌어준다.

심방에게 의뢰하여 제상을 차려서 빌 때에 제상에는 그릇에 담은 쌀과 실·헝겊·돈을 올리고 물을 가득히 담은 흰 병을 가지런히 놓는다. 심방이 정성껏 빌다가 병물을 산모의 어깨에 흘린다. 곧 오른쪽 병물은 산모의 오른쪽 어깨에, 왼쪽 병물은 산모의 왼쪽 어깨에 헝겊으로 적셔다가 흘린다. 또한 얼레빗을 그 병의 물로 적시면서 산모의 머리를 빗겨 준다. 나머지 병물은 물독에 쏟는데 병을 높이 들고 세차게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 가서 쏟아 버리기도 한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모든 순산과 수유과정이 유감주술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출생하면 남성의 '갈중의'로 아기를 싸는 게 관행이었다. '갈중의'란 제주 특유의 재래 일상복이면서 노동복인 '갈옷'가운데 바지에 해당되는 중의다. '갈옷'이란 무명으로 한복인 바지와 저고리를 만들어서 그 옷에 풋감을 빻은 감물을 들이고 말려서 입는 옷이다.

빳빳해서 몸에 잘 붙지 않으면서 워낙 질기고 세탁하기가 간편한 경제적인 옷이므로 제주 특유의 옷으로서 널리 알려졌다. 제주도의 농어촌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이 '갈옷'을 즐겨 입는다. 일상생활에서 입는 일상복이면서 일할 때 입는 노동복을 겸한다.

다색(茶色)인 '갈옷'은 쉬 더러워지지 않으며 일단 만들면 약 3년간은 입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일 뿐더러, 위생적인 옷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이 '갈옷'의 됨됨이와 그 효용성에 대하여 매우 주목한다.

그런데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반드시 남자가 입던 '갈중의'로 몸을 싼다. 여자가 입던 '갈중의'는 철저히 삼간다. 남자가 입던 '갈중의'로 몸을 싸야 애가 튼튼히 자란다는 속신이 깔려 있다. 여자 옷보다 남자 옷을 택하고, 저고리보다 중의를 택하는 까닭은 태어나는 어린애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곧 여자보다는 남성에게, 남성이면서도 상체보다는 하체에 힘이 모아졌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따라서 아기가 자라면서 자주 앓거나 자칫하며 쓰러지기를 잘하는 경우를 보면서 '갓 태어난 때 어머니 옷으로 쌌느냐'고 묻곤 한다.

갓 태어난 아기를 남자의 '갈중의'로 싸곤 했던 습속은 옷을 지을 재료가 귀했기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주술로 풀이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 말하자면 허약한 어린애는 여자의 '갈중의'로 쌌던 게 아니냐는 속신이 민간에 짙게 깔렸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아서 사흘이 되면 특유의 남자 갈중의로 싸던 일을 멈추고 베로 지은 '봇뒤창옷'을 입힌다. '봇뒤적삼'·'베창옷' 등으로도 불리는 봇뒤창옷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의례복인 셈이다.

'창옷'이라면 제주 여성들이 입는 예복이며 '봇'이라면 태낭을 뜻한다. '봇'을 둘러싸고 태어난 뒤에 처음으로 입는 예복이란 뜻이 그 명칭 속에 담겨졌다. 신생아복을 서울 지방에서는 베내옷이라 하고, 경북에서는 베옷, 강원도에서는 삼저고리 등으로 평범하게 일컫는데, 제주의 경우는 의례복이란 뜻이 '봇뒤창옷'이라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이 봇뒤창옷은 시어머니, 곧 아기의 할머니가 만드는 게 관례다. 아니면 그 옷감으로 쓰이는 베를 시어머니, 곧 애의 할머니가 출산 직후 산모의 음식으로

쓰일 메밀가루·미역 등과 함께 마련해 오곤 한다. 베 석자로써 봇뒤창옷과 아기의 베개를 만드는 바,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집안에서는 정성을 다한다는 뜻에서 다복한 할머니에게 일부러 의뢰하여 지어 입히기도 한다. 태어난 아기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쑥물로 목욕을 시키고 대체로 세이레 동안 입히는데, 아기가 갓 태어나자마자 만드는 게 관례다. 첫아기가 태어나면 봇뒤창옷을 만들어 입히고, 다음 애들은 첫아기가 입었던 것을 물려가며 입는다. 이 봇뒤창옷을 미리 만들어서 보관해 두는 일은 없으니, 미리 만들어 두면 사기가 끼어들거나 출산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봇뒤창옷의 재료는 보통 베이지마는,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제주산 명주로 만들기도 한다. 명주로 지을 경우에는 청색물을 들이기도 한다. 이 옷은 태어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기를 목욕시키고 삼신상을 차릴 때 입히는 일종의 첫 의례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옷이 지니는 뜻은 대단히 크다.

그 형태는 한복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거의 약식으로 처리된다. 등은 반쯤까지만 꿰매고 아래쪽은 터놓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기가 용변을 보았을 때 오물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아기가 사내인가 계집애인가에 따라서 그 소매 길이도 다르다. 사내애는 찬소매로 계집애는 반소매로 만드는데, 찬소매란 베를 통째로 써서 소매를 기다랗게 짓는 것이요, 베의 폭을 반으로 잘라서 짧게 만든 소매를 반소매라 한다. 옷고름은 실로 만드는데, 실은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라 한다.

첫아기가 입던 봇뒤창옷은 다음에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물려주어 가면서 입힌다. 첫아기가 계집애여서 반소매의 봇뒤창옷을 마련했을 경우, 다음에 사내애가 태어나면 찬소매로 된 봇뒤창옷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아기의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아예 찬소매로 만들어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잇따라 입히는 예도 흔하다.

사람 한 평생 살아가는데 예복은 세 번 입는다고 관념하는데, 태어나서 신생아복으로 맨처음 입는 게 봇뒤창옷이요, 다음에는 혼례복이며 사망하면 '호상옷'을 입는다. 따라서 태어나면 '봇뒤창옷'을 입혀야만 비로소 독립된 인격으로 다루어지므로, 가난한 집안에서는 낡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남에게 빌리고 며칠 동안 반드시 입혀야 한다.

봇뒤창옷은 결코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부득이 가난한 집에 잠깐 빌려 주었더라도 반드시 찾아서 보관한다. 남에게 양도하게 되면 길복과 행운을 빼앗긴다는 속신이 깔렸기 때문이다. 봇뒤창옷이 너무 낡거나 다음에 입힐 아기가 없을 경우에는 정결한 곳에서 태워 버리는 게 관례다.

봇뒤창옷은 길운이 따르는 옷이라는 관념이 짙다. 따라서 출정할 때 등바대로 그 내의에 누비어 입게 되면 무사하다는 속신이 널리 번져 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나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집을 나설 때에도 그 사람 내의에 등바대로 누비게 되면 만사형통한다는 관념이 널리 깔려 있다.

또한 '봇뒤창옷'은 태워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를 입었던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 관 속에 넣는 습속도 있다. 관 속에 봇뒤창옷을 넣게 되면 다른 무슨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그 효험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곧 갖은 방법으로 정성을 쏟아서 불공을 드리고 치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제가 입었던 봇뒤창옷을 시신을 입관할 때 함께 넣는 일 이상으로 효험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Ⅲ. 혼례

Ⅲ. 혼례

남녀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길러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혼인을 시킨다. 인륜지대사라 일컬을 만큼 중요한 일이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혼례를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당사자가 신부라면 신랑을 고르게 된다. 나이가 적당하면, 신랑될 사람의 용모, 문벌, 학력, 생활력, 성품 등을 탐색한다. 반대로 당사자가 신랑이라면 신부를 고르게 되는데, 성격, 문벌, 생활력, 생활정도 등을 살핀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하여 해명하고, 양가의 혼사를 성사시키도록 중간에서 애를 쓰는 자가 있는데, 이를 중매인이라 한다.

중매인은 두 집안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신부의 부모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양가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진애비>라 하며, 중매일을 하는 것을 <중신선다, 중매놓는다>고 한다.

청혼하는 일, 곧 중매인을 통하여 혼사를 청하는 일은 제주에서는 "중매 놓는다"고 말한다. 물론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청혼하는 일은 없다. 일단 여자측에서 거절하더라도 중매인은 거듭거듭 찾아가서 적절한 혼처임을 애써 강조한다. 색시집 출입구에 난 풀이 발에 밟혀 모지라지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을 흔히 한다.

게다가 중매인은 양가집을 드나들어야 하므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관습이다. 최재석이[13]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제주도인데도 여자가 중매인이 될 수 없다는 지난날의 관행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본토에서는 '매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매인으로서 여자도 무방

13)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110-111쪽.

하다. 한본토에서는 여자도 중매인으로 나설 수 있는데, 특히 제주에서 여자가 중매인으로 나서질 않고 남자가 나서는 게 정상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중매인을 신부측과 가까운 사람으로 내세우는 까닭은 혼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뜻에서다. 곧 청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지혜라 볼 수 있다. 중매인은 신랑측의 친족이 아닐수록 좋은데, 이는 신부측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성 때문이라 여겨진다. 신부측 친족은 중매인으로서 괜찮지만, 5촌 이내의 친족은 대체로 삼가려 한다.[14] 혼인 후 신랑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별 탈이 없지만, 혹시나 탈이 생기면, 중매를 선 중매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중매인이 신랑신부 양쪽 집안을 오가며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자.

중매인이 신부될 사람의 부친을 찾아가 혼담을 넣는데 단번에 허혼하는 일은 드물다. 보통 부인과 의논해 보겠다고 하여 돌려보내고 신랑될 사람의 인물 됨됨이와 집안을 알아보고 부부가 의논한다. 그래서 다시 중매인이 찾아왔을 때 허혼의 의사를 전하거나 거절을 하게 된다. 허혼의 의사표시로는 남자의 부친이 한번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내방요청을 받은 남자의 부친은 중매인과 같이 여가를 방문하여 정식 청혼을 하고 여자 부친은 허혼의 표시로 미리 여자의 생년월일이 쓰인 사주단자를 남자의 부친에게 내어 준다.

이를 사주단자라 하는데, 여기에는 본관이나 이름 등 어떤 글자도 적지 않는다. 사주단자를 굳이 한지에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알리기도 하고, 남자측 부친이 찾아가지 않고 중매인이 색시의 사주를 물어보고 남자측에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주단자는 색시의 생년월일만을 적어놓은 것으로 다른 의미가 없다.

---

14) 제주도, 위의 책, 293-294쪽.

주의를 끄는 것은 중매인과 더불어 남자측 부친이 찾아갔을 때 색시의 생년월일만 알려줄 뿐 차 한 잔이라도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없다. 아직 혼인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남과 같이 여긴다. 이런 금기는 집이나 밭 따위 재산을 매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훗날, 인연이 있다고 하여 재차 남자측 부친이 재방문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므로 음식을 대접하게 된다.

여자측에서 사주를 남자측에 내주는 일은 한본토의 경우와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한본토의 경우는 남자측에서 신랑감의 사주를 여자측에 내주면 여자측에서 궁합을 보고 택일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두 집안의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혼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이에서처럼 중매인을 내세워 청혼하는 예의를 지킨다. 함부로 농담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혼담이 오가게 되면 서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자집에서 사주단자를 받아온 남자집의 부친은 <정시>를 찾아가서 궁합을 본다. 한본토에서는 대체로 여자측에서 남자의 사주를 받아다가 궁합을 보는데, 그 주체가 바뀌는 셈이다.

<정시>란 궁합을 보거나 묏자리를 고르거나 택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궁합을 보는 일을 <수주본다>고 말한다. 궁합은 '혼인이 성립되는가'의 여부에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두 집안에서 혼인이 성립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궁합은 중국 한나라 태조의 아들 혜제 때에 유래했다고도 한다. 곧 그의 모친인 여후가 즉위하여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 강폭한 흉노의 청혼을 곱게 거절할 만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구궁궁합(九宮宮合)을 만들었던 데서 유래했다는 것인데, 이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혼사에 있어서 궁합은 열쇠와 같다. 정시에게서 궁합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남자측 부친이나 중매인은 여자 집에 사주를 돌려주는 게 예의다. 구두로 사주를 전해 받았을 경우,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구두로 전달된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두 집안에서 미련 없이 단념한다. 쑥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혼인이 성립될 수 없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한본토에서는 대체로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사주단자가 전해지는데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거꾸로 여자측에서 남자측에 사주단자가 건너간다. 따라서 한본토에서는 여자측에서 궁합을 보고, 제주에서는 남자측에서 궁합을 보는데, 이런 상반된 관습의 연유를 아직은 밝힐 길이 없다.

어쨌든 사주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은 허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주를 전하기에 앞서 두 집안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서로를 탐문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이 좁으므로 비록 거리가 먼 마을이라 하더라도 탐문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더구나 통혼권이 거의 같은 마을이거나 이웃마을에 몰려 있는 게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의 사람 됨됨이나 집안 등을 알아보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사둔칩광 칙간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 사돈집과 측간, 곧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은 제주도의 재래적 통혼권은 가까운 거리에 몰리는 편이었다.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궁합을 보기에 앞서 남자측에서 여자를 몰래 살피기도 하고 중매인을 앞세워 공개적으로 맞선을 보는 수도 있다. 맞선을 흔히 친심(親尋)이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본토와 비교하여 특색을 보이는 제주도의 혼례 풍습은 김영돈, 현용준, 고부자 등이 많은 연구 성과를 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적으로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소개하는 데 그치려 한다.[15]

---

15) 김영돈·고광민, 〈제주도의 통과의례〉, 《제주도 민속》 I, 1993, 294-301쪽. 현용준, 〈禮考〉, ≪제주유맥육백년사≫,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572-581쪽. 고부자, <제주도 통과의례복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

1. 막편지

혼인할 나이가 된 아들을 둔 집안에서 이곳 저곳 수소문하여 참한 규수를 고르면, 중매인을 놓아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한다. 딸을 둔 부모가 동의하면, 사주를 건네받고 궁합을 보게 된다. 이것은 서로 혼인할 인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궁합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사주를 돌려보내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궁합이 맞으면, 납채할 날짜와 납폐할 날짜를 택일한다. 한국 본토에서는 대체로 여자측에서 남자의 사주를 받고 여자측에서 택일하는 지방이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택일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 즉 남자측에서 여자의 사주를 받고 정시에게 가서 혼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궁합을 맞추어 보고, 맞으면 여자측 부모에게 궁합이 맞음을 알리고, 혼인 가능 시기를 합의한다. 남자측 부친은 이 시기를 맞추어 정시에게 가서 택일을 한다. 때로 두 집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흔히 <맞택일>이라 한다.

택일이 되면 정시가 써 주는 택일기(擇日記)를 갖고, 날짜를 잡아 신랑측에서 신부집으로 이것을 가지고 간다. 이를 <막펜지>라 하는데, 결혼 1주일 전에 택일 된 대로 시행되는지 확인차 찾아가는 일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납채 예장과 신부 옷감 한 벌을 예물로 싸들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이 예장을 막편지라 하기도 한다. 이때 남자의 집에서는 쌀, 술, 돼지고기를 가져가는 곳도 있다.

<막펜지>를 가지고 갈 때는, 신랑과 신랑의 부친 및 백숙부 등이 신부집을 찾아간다. 혼인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양가 어른과의 상견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막펜지>를 가지고 가는 일은 약혼이나 다름이 없다.

이날 신부집에서는 간단한 연회가 열리는데, 사돈끼리 정중하게 회식하는 첫 자리가 되는 수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신랑측에서 주효를 마련하고 신부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며, 드문 일이지만 신랑 모친이 신부집으로 식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날 신랑측에서는 신부의 옷 한 벌을 마련해 가는 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긴다.

납채서식

時維孟春(正月一孟春, 二月一仲春, 三月一季春, 春夏秋冬 隨時)
伏承
尊慈不鄙寒微曲從媒議虛以令愛(孫女면 令孫女, 長女면 令愛, 次女면 令女, 姪女면 令姪女) 貺室于僕之第長子(次子는 幾子) 某(名) 玆有先人之禮謹行納采之儀伏惟
尊慈俯賜
鑑念不宣
(別紙)大禮丙寅年正月初五日行 卯時出發 已時禮式擧行
歲丙寅年正月初一日
本貫后人姓名印謹拜

여자 부친이 여가를 방문하여 여자의 부친에게 막편지와 예물을 드리면 여자의 부친은 이를 받고 그 자리에 모인 양가 대표들이 주연을 베푼다. 신랑될 남자와 신부될 여자 사이에는 어떤 의식이 없다.

<막편지>가 전달된 후는 사돈 관계가 분명해 진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시집에서 상을 당하면 사돈들이 모두 조문을 한다. 만약에 택일 후에 신부가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신랑이 남편으로 상제가 되고 신부 부모가 돌아가면 사위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막편지> 전달로써 두 집안의 혼사가 성립되었음을 사회적으로도 공인하게 된다. 말하자면 두 집안의 친족이나 마을에서 그 혼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신랑 신부의 부모 사이를 <더운사돈>이라 하는데, <막펜지>가 전해진 날부터는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언행을 조심하면서 서로 사돈이라 부르고 사돈으로서의 예의를 깍듯이 지킨다. 남녀가 서로 맞선을 보는 것은 최근의 일이요, 예전에는 결혼할 때까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라 하여도 만나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다.

이상으로 보면 막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납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이바지

'이바지'(이버지)란 혼례가 치러지기 직전에 신랑측에서 신부댁에 보내는 혼례에 필요한 식품을 말한다. 이것은 '이받다'라는 고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잔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잔치에 대접하는 음식의 뜻으로 변하였다.

결혼 3일 전일을 흔히 '돗잡은 날'이라 한다. 돼지를 잡는 날이라는 뜻으로 이날부터 신랑, 신부 양가에서는 잔치 준비에 분망하다. 돼지는 동네 사환(하인)을 시켜 잡도록 하고 근친의 남자와 이웃의 남자들은 모여와 돼지고기를 삶거나 천막을 치거나 여러 가지 준비 일을 도운다. 친족의 여자와 이웃의 여자들은 모여와서 두부를 만들고 전을 지지고 하여 준비를 한다. 돼지잡기가 끝나면 술을 나누며 잔치 분위기를 돋운다.

이날이나 잔치 전일이나 우수일(偶數日)에는 신랑집에서 신부 집으로 돼지고기, 쌀, 술, 닭 계란 등 잔치날에 소용된 물품을 보낸다. 이를 이바지 또는 이버지라 한다. 이바지의 물종과 량은 지역과 신랑측의 재력에 따

라 다르다. 제주시 한 마을의 일례를 보면 돼지 1마리, 술 1단지, 닭 2마리, 계란 30개, 신랑 부친은 이바지 물종을 하인을 시켜 소에 실어 보내면 하인이 다녀와서 신부 부친이 만족히 받고 감사히 하더라는 보고를 한다. 하인들에겐 품삯을 준다. 지금은 이 이바지 제도가 사라지고 말았다.

잔치 전날 저녁이 되면 잔치 준비가 다 끝난다. 그러면 근친들이 모여 가문 잔치를 벌인다. 차려놓은 술과 돼지고기로 간단한 주연을 베푸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바지' 습속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마을에서는 전혀 없는 '이바지'의 관행이 어떤 마을에서는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바지'는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적절한 우수일(偶數日)을 택하여 소에 실어서 마을의 하인 편에 보내었다. 량의 많고 적음은 신랑측의 능력에 따랐는데, 신부측에서 사양한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바지'를 보내는 일은 신랑측의 당연한 의무요 도리였다.

3. 가문잔치

혼례 전날이 되면 아침부터 일가친척뿐 아니라 이웃들이 찾아든다. 서로 협력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다음 날 잔치를 위해 모든 절차를 확인한다. 부계친과 모계친이 가문잔치에 참여하여 혼인 절차 시 자신이 할 역할이 있는지를 묻고 협조한다. 이러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친족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가까워진다.

가문잔치 전날에는 잔치에 쓸 돼지를 잡는다. 돼지는 혼인을 할 약속한 후 가장이 새끼돼지를 기른 것이다. 느닷없이 혼인을 하려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웃에서 혼인하는 집과 가까운 자들은 찾아들어 돼지 잡는 일을 거들고, 간단한 술상을 준비하여 회

식을 하기도 한다. 이것을 일명 <돗 잡는 날>이라고 일컫는데 일거리를 맡지 않은 이웃들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윷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남자들이 돼지를 잡는 반면, 여자들은 음식 마련에 부산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혼례에는 <돗 잡는 날> - <가문잔치날> - <잔치날> 이렇게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인다. 비록 사돈 사이의 의례적 잔치라 하지만 잔치날 뒷날에는 신부집의 사돈잔치가 치러지고 또 그 뒷날에는 신랑집에서 사돈잔치를 벌이므로 5일 동안 잔치가 이어지는 셈이다.

근래에는 이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혼례 당일에 사돈 사이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혼례 후 이틀 동안의 사돈잔치는 생략되었다. 사돈잔치를 뺀다 하더라도 사흘 동안의 잔치는 이어지는 셈이다. 더구나 잔치 날 밤에는 신랑집에서, 그 뒷날 밤에는 신부집에서 흥겨운 여흥이 벌어진다. 이른바 동상례(東牀禮·東廂禮)다. 동상(東牀·東廂)이라면 남의 집 사위를 뜻하는데, 아름다운 색시를 맞아들였음을 빌미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신랑을 거꾸로 천정에 매달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논다. 그럴 때마다 술상이 차려져 나오면 이를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긴다. 전파매체가 번지기 전에는 농어촌사회의 소중한 오락이면서 유행가를 익히고 번지게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한다.[16]

제주도의 혼례는 잔치하는 동안이 사흘에서 닷새동안에 이르러서 꽤 길기 때문에 한본토보다 그 마을의 축제 분위기가 훨씬 고양된다. 친족 사이, 동네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짙게 해 주는 기능이 한 집안의 혼례 속에 담겨진 셈이다.

신부집에서는 잔치날에는 신부가 신랑집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 전날, 가문잔치날 비단 친척이나 동네사람들뿐이 아니라 하객을 거의 맞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

16) 제주도, 위의 책, 301쪽.

4. 예장과 혼례 행렬

잔치날이 밝으면 신랑은 한복 위에 도포를 입고 예장을 쓴다. 예장은 신랑 자필로 당일 아침상을 받기 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래에는 거의 신랑이 예장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근친 중에서 예법을 알고 글 잘 쓰는 이가 쓴다. 신랑이 쓴다고 하지마는 예장의 내용은 신랑 부친이 신부 부친에게 부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장은 혼례 전날 가문잔치가 끝나고 나서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사리에 밝은 사람이 쓰는 수도 흔하다.

예장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初婚書式

時維仲春(正月은 孟春, 二月은 仲春, 三月은 季春, 春夏秋冬 隋時)
尊體百福僕之長子某(名) 年旣長成未有
伉儷
伏蒙
尊慈許以
令愛(長女는 令愛, 次女는 令女, 孫女는 令孫女, 侄女는 令侄女) 貺室玆有先人之禮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
歲丙寅正月初五日
本貫后人姓名印謹拜

再三娶婚書式
伏蒙
嘉命許以
令愛貺室于僕之長子某(新郎名) 玆有先人之禮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
丙寅正月初十日

本貫后人姓名印謹拜

皮封式

이것은 최재석이 지적하고 있듯이[17], 혼례 당일 신랑측에서 신부집으로 전해지는 예장은 혼례의 확약과 더불어 결혼지속의 상징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혼례 당일 신랑측에서 가지고 간 예장을 신부측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검토한다. 만약 잘못이 드러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예장을 고쳐 써야 하기 때문에 붓과 먹, 종이를 일부러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이 예장은 혼인에서 대단히 귀중한 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단 받고 나면 신부 부친이 평생 동안 소중히 보관한다. 만약 이혼하거나 할 경우엔 신랑이 가서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장 전달은 혼례의 굳건한 약속이라는 뜻을 머금고, 약혼의 뜻을 지니는 <막펜지> 전달의식과 더불어 제주도 혼례에서 중요한 의례다. 제주도 혼례에서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가 없는 대신에 <막펜지> 전달과 예장 전달이 중요한 의례로서 자리잡는 셈이다.

예장이 완성되면 신랑 부친이 날인을 하고 함을 싼다. 함을 홍세함(婚書函)이라 한다. 홍세함 안에는 폐백으로 무명 2필이나 광목 1통을 넣고 그 위에 봉투에 넣은 예장을 바르게 넣어 뚜껑을 닫고 붉은 보자기로 싼다. 보자기의 매듭은 뚜껑 중앙에 오게 싸는데, 매듭을 짓지 않는다. 이어서 보자기의 네 가닥 끝을 서로 바꾸어 엮어 올라가 창호지로 감아 묶고 풀로 붙여서 '謹封'이라 쓴 후 신랑 부친의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그 보자기에 '上'의 표지를 하여 예장의 머리 쪽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 해 놓는다. <홍세함>에 넣는 무명을 흔히 <홍세미녕>이라 하며, 이는 새살림의 기초

17)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123쪽.

라고 관념한다. 이를 팔아서 소를 사기도 하고 태어나는 애들의 옷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희망찬 새살림의 바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짙다.

홍세함이 다 되면 신랑부친이 방에 제상을 차려 음식을 올리고 조상에게 단헌단작의 제를 간단히 지낸다. 자식이 혼인함을 보고하는 의미가 있다. 혹 묘소가 가까우면 묘소로 가서 차례를 지내오기도 한다.

예장과 폐물을 넣은 <홍세함>은 혼례 당일 신랑 일행과 함께 하님이 가지고 간다. 하님 제도가 사라지면서 근래에는 신랑측 상객이 <홍세함>을 지참한다.

제가 끝나면 신랑은 관복과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독상을 받아 아침 식사를 하고, 상객(우시라고 함)으로 갈 친족들과 함께 모두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문전제를 지낸다. 상방의 앞쪽 문(대문) 앞에 작은 상을 놓아 돼지 머리, 술, 기타 음식을 간단히 차리고 또 홍세함을 문전제상 앞쪽에 놓은 상위에 놓아 신랑 부친이 분향, 헌작하고 잡식을 하여 끝낸다. 이때 잡식한 것은 지붕 위에 올리는 집안이 보통이나 출입로인 올레의 어귀에 던지는 집안도 있다.

문전제가 끝나면 신랑 일행이 신부 집으로 향해 집을 나선다. 이때 신랑은 왼쪽발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지방을 넘을 때도 왼쪽 발로 넘어야 한다. 男左女右의 상징원리의 반영이다. 신랑이 백색 암말을 타서 나가는데, 그 행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8]

① 하님(동네 여자하인을 말한다)

홍세함을 등에 지고 말을 탄다. 하님이 탄 말은 목에 흰 무명을 감아, 멀리서 보아서 표가 나게 한다. 가까운 곳으로 갈 때는 말을 타지 않고 앞에 서고 백마를 탄 신랑이 뒤따른다.

---

18) 현용준, 〈禮考〉, 576-577쪽.

② 신랑

사모관대 차림을 하고 사선(紗扇)으로 얼굴을 가려 백색 암말을 타며 하인이 고삐를 잡아 이끈다. 신랑이 말을 탈 때에는 '도고리'라는 함지박을 엎어놓고 이를 발판으로 삼는데 말이 부르르 떨면서 똥을 싸면 불길하다고 여겨서 미리 말을 길들이기도 한다. 만약 말이 똥을 싸게 될 경우에는 신랑 모친이 재빨리 안방으로 거둬치워야 한다. 말은 순하면 순할수록 좋다.

③ 남자상객

'우시'라고도 한다. 근친으로 신랑부친보다 연하이고 신랑보다 연상인 사람으로 글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낸다. 신부집에 가서 예장을 드릴 때 틀린 곳이 있으면 고쳐 쓸 수 있도록 필연을 준비하고 간다. 이 상객에는 신랑의 삼촌 1인, 신랑이 타는 말을 이끌 하인 1인 그리고 외삼촌이 한 사람 끼는 것이 상례이다.

④ 여자 상객

근친에서 신부보다 연상인 젊은 여자로 숙모나 형수, 1-2명 정도가 간다. 솔부하고 오는데 돕기 위한 자들이다. 상객을 '우시'라 하는데 말을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한다. 예전에는 여자 상객이 없었다.

⑤ 가마(駕馬)

신부가 타고 올 가마를 하인들이 메고 간다. 신부 집이 멀 경우는 가마를 분해하여 말에 싣고 가서 조립하기도 하고, 신부를 모시고 올 때는 앞 뒤에 말을 메워 태워 오기도 한다. 이 말을 가교마(駕轎馬)라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비교적 체통이 갖추어진 혼례행렬이라 볼 수 있다. 말만 하더라도 도합 여덟마리가 동원되는 셈이니, <홍세함>을 가진 하님이 타는 말 한 마리, 신랑이 타는 말 한 마리, <우시>가 타는 말 두 마리가 각각 사람을 태우고 가고, 신부를 태울 독교를 끌 말과 신부측 <우시>를 태울 말을 각각 두 마리씩 끌고 간다.

제주에서는 유달리 예장을 중시한다. 따라서 그 전달 과정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신랑과 신부가 이미 약속한 혼처에 맞는지 틀린지의 내용이 예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신부측에서 예장을 살펴볼 때 틀린 글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혼인을 위한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린 예장을 갖고 글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 고쳐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부측으로 가는 신랑측 <우시> 중에는 예식을 잘 아는 한 사람을 꼭 끼어 넣는다.

하지만 상객의 역할은 예장을 살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랑을 신부댁까지 잘 안내해야 한다. 어린 신랑이 말을 타보지 않았을 경우는 갑자기 말이 날뛰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독교를 맨 말이 앞에서 끌고, 뒷말은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독교 때문에 앞이 안 보이므로 움직이지 않고 버치는 일도 벌어진다. 따라서 우시 중 1인은 말을 잘 다루는 자가 필수적이다.

혼례 행렬은 흔치 않는 일이지만 장의 행렬과 만나는 일도 있다. 이럴 때는 흔히 분쟁이 일어난다. 이럴 때 다투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다. 집안의 대사를 맞아 복이 굴러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장례행렬은 반갑지 않은 상대이다.

장례 행렬은 그 성격상 많은 사람이 뒤를 따르게 되고 혼례 행렬은 적다. 장례행렬이나 혼례행렬이 서로 마주치는 것을 싫어한다. 부득이

만나게 되면 혼례행렬을 먼저 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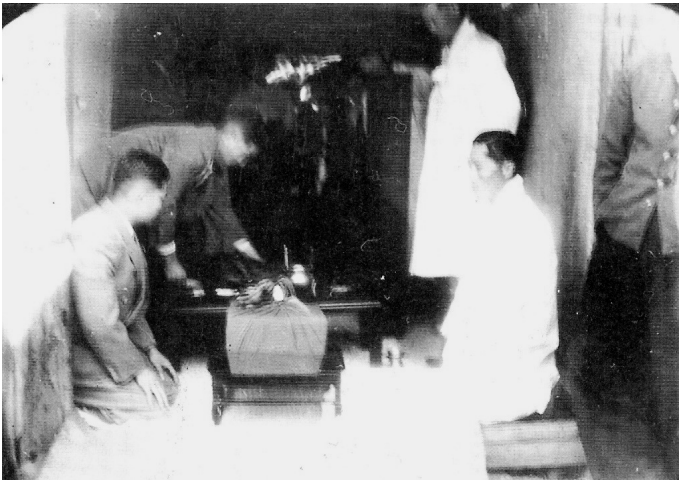
산 쪽과 바다 쪽을 각각 <물우>·<물알>이라 하는데 다투어 한라산쪽인 <물우>의 길을 택하려 한다. 혼례행렬은 장례행렬을 마주치는 것을 꺼리며, 만약 장례행렬과 마주쳤을 경우에는 혼례행렬을 우선하여 <물우>를 택하게 했다. 곧 혼례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장례행렬은 <물알>로 일단 멈추었다가 혼례행렬이 아주 지난 다음에야 지나가는 게 관행이다.

혼례행렬이 관원행렬과 마주쳤을 때에도 혼례행렬이 우선했다고 하니, 혼례의 중요성이 실증된다. 드문 일이긴 하지마는 혼례행렬끼리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때에는 가문의 자존심을 걸고 서로 <물우>를 택하려고 팽팽히 맞섰는데, 이런 분쟁은 지금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남겨져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닷가로 이어지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라산 쪽이 높고 바닷가 쪽이 낮다. 따라서 한라산 쪽 길 즉 높은 쪽 길을 택하려 한다. 따라서 꼭 같은 길이라도 한라산쪽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이다. 이 다툼에서 지면 신랑 신부의 장래가 좋지 않다는 속신이 있어 상객이나 하인들이 위세를 부려 여기에서 이겨내려 한다. 신랑행차가 지난 다음에 지나가야 한다는 관례 때문에 관원의 행차도 신랑행차에는 양보를 했다 한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날만큼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 신부 집 동네에 일행이 도착하면 하인들은 '홍-옹-' 하는 권마성을 길게 내어 신부 집에 이른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이 오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다. 신랑 일행이 도착할 시간이 되면 문전상 준비를 갖추어 둔다. 신랑 우시가 홍세함을 들고 들어오면 먼저 신부의 근친이 소반에 정성을 다해 홍세함을 받게 된다. 이것은 이른바 <문전코시>(門前告祀)를 위한 상차림인데, <홍세함>이 제상에 올려지면 분향, 잡식한 다음 예장을 검토한다.

예장 검토가 끝나야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신랑이 안내를 받으면서 신부집 마당으로 들어선다. <홍세함> 속에 넣고 예장을 전달하는 일은 약혼의 뜻을 지닌 <막펜지> 전달의식과 더불어 이처럼 제주도 혼례에서 큰 비중을 지닌다.



<사진 1> 함 받음 (제주시 일도동 1957. 11. 3)[19]

신랑의 상객은 두 손으로 홍세함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가 상방 문 앞에 서 있는 신부측 근친에게 드린다. 이때 상대방이 상방 문 앞에서 홍세함을 받고 열면 바로 예장이 바르게 나타나게 보자기의 '상(上)'자 표시에 유의하여 드린다. 신부의 근친은 그 함을 받아 문전제상 위에 놓고 분향한 후 보자기를 풀고 예장을 꺼내어 한 자 한 자 검토하면서 살펴본다. 이때가 신랑측에서는 긴장되는 순간이다. 틀린 데가 없으면 예장을 봉투에 넣고 문전제를 간단히 지낸다. 즉 상방 앞쪽 문 앞에 신랑 집에

19) 현용준, 《민속사진집 靈》, 도처출판 각, 2004, 129쪽.

서와 같이 미리 준비해 놓은 문전제상에 술을 부어 올리고 홍세함에 넣은 무명(幣帛)의 실오라기를 조금 뽑아 술잔에 넣고 잡식한 후, 그 술을 지붕 위에 올린다.

이것으로 예장 확인을 마치고 그제서야 중방(안내자)은 말에 탔던 신랑이 내려 방에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상객들도 하마하여 다른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여자 상객도 다른 방으로 안내됨은 물론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랑은 문 지방을 넘을 때 반드시 왼발로 넘어 들어가야 한다. 남자 중방이 신랑을 신랑방으로 안내하여 신랑과 인사를 나눈다. 다른 곳에서는 신부측 어른들이 상객을 상객방으로 안내하여 인사를 나눈다.

이어서 신랑방과 상객방에 음식상이 들어온다. 음식상은 각각 독상으로 차려 하님(여자하인)이 들고 들어오는데, 하님은 신랑에게 술을 부어 석잔 권하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 밥을 세 숟갈 떠서 그 뚜껑에 놓아 밥상 밑에 놓는다. 그러면 중방의 권유로 식사를 시작한다. 상객방에도 마찬가지로 하님이 밥상을 들고 가는데 여기서는 밥 세 숟갈을 떠서 밥상 밑에 놓는 일은 없다.

신랑과 상객방에서 주연이 베풀어지는 동안 신부는 원삼 족두리 차림의 치장을 하고 음식상을 받는다.

신부의 치장이 끝날 무렵이 되면 식사를 끝낸 신랑측이 상객을 다른 방이나 상방으로 안내한다. 여기서는 신부의 부모, 백숙부모, 형제 등 근친이 인사를 받으려고 대기해 있다. 신랑측 상객들은 신부의 부모에게서부터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차린 술상이 들어오면 술을 마시고 작별 인사를 한다. 이를 '사돈열맹'이라 한다.

사돈열맹이 끝나면 신랑이 중방의 안내를 받고 나아가 말을 탄다. 또한 하인들은 가마를 준비하여 집 난간에 들어다 걸쳐놓으면 신랑측의 여

자 상객과 하님의 안내로 신부가 나와 가마를 한다. 이때 신부는 오른발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지방을 넘을 때도 오른발로 넘어야 한다. 가마 속에는 신부가 차리고 가는 혼수인 이불, 방석, 요강 등도 실어 놓는다. 하인들도 가마를 메거나, 원거리인 경우에는 말 두필에 가교를 메어 출발 준비를 완료시킨다.

이렇게 하여 신랑 집으로 솔부하여 오는데, 그 행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신랑측 하님

신혼살림을 하게 될 이불을 짊어진다. 이불을 짊어진 하님은 미리 신랑 집으로 들어가 신부가 앉을 방에 이불을 쌓아 둔다. 이불은 신랑신부용 1채, 시부모용 1채는 일반적이다.

② 신부가 탄 가마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오면 마당에는 'ᄂᆞ람지'가 깔려 있다. 그 ᄂᆞ람지를 거쳐 가마는 집 대문 앞 난간에 놓인다. 신부는 오른발부터 첫발을 내디뎌 방으로 들어간다. 난간을 거쳐 대문 지방을 지나 마루를 거쳐 좌우에는 방이 있다. 어느 한 방에 신부가 머물게 된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갔을 때 창문으로 들어간 것은 백년 손님이라는 관념의 표시이고, 신부가 시집에 들어와 대문을 거쳐 들어가는 것은 이집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즉 신부의 소속 집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신랑이 탄 말

신랑집을 출발할 때 탔던 백색 암말이다.

④ 신랑측 상객

신랑집에서 출발했던 일행이다.

⑤ 신부측 상객

신부의 삼촌, 외삼촌, 이불을 짊어진 하인, 독교를 책임 맡은 하인 1

인 모두 5명이 최소한의 인원이다.

이상으로 보면 신부측 상객도 친가에서 삼촌으로 1명 외가에서 1명(외삼촌) 정도로 하고, 근래에는 여자 상객도 1-2명 따른다. 신부측 상객은 뒤에 따라가면서 신부를 조심히 모시도록 촉구한다.

신랑 신부 행열이 권마성을 울리며, 신랑 집에 당도하면 가마를 방문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하님의 안내로 신부가 내려 방에 들어간다. 이 방이 신방이 되는 것이다. 신부 방에는 대반(보통 백·숙부가 맡음)이 앉았다가 마중한다. 또 신부측 상객도 신랑측에서 상객으로 갔던 이의 안내를 받아 각각 방으로 들어간다. 신랑은 예복을 벗고 방문한 친족 친지들에게 인사하며 자유로이 행동한다. 잠시 후 신부 방에는 하님이 음식상을 독상으로 들고 와 대반 앞에 먼저 놓고 다음에 신부 앞에 놓는다. 그러면 대반이 자기 밥 뚜껑을 열면 하님이 신부의 밥 뚜껑을 열고 신부에게 술을 석잔 권한다. 신부는 먹는 척하고 빈 그릇에 부어 버리는 것이 상례다. 다음은 하님이 신부의 밥을 세 숟가락 떠서 밥 뚜껑에 놓고 밥상 밑에 놓으면 대반의 권유로 같이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신부측 상객들은 신부 집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방으로 안내 받아 신랑의 부모 및 근친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돈열맹'을 하고 술을 나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때는 신부는 식사를 마쳐 예복을 벗고 대문 바깥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신랑과 신랑의 근친도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므로 여기서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경우가 많았다.

신부가 차리고 오는 혼수는 이불 1채, 누비이불 1채, 방석 몇 개, 요강, 빗접 등으로 솔부 시 가마 속에 담아 왔지만 흐름에 따라 이불 수가 점점 늘고 경대, 궤, 옷장, 가구 등 종류가 여러 가지로 점점 많아져 근래에는 결혼 전날 실어오게 되었다.

상객을 보내고 나서 신부가 방에 들어와 앉으면 신랑측 근친부인들이 신부방으로 들어가 자기 소개를 하고 신부에게 선물을 전한다. 선물은 옷 한 벌 정도이며 현금으로 주기도 한다. 그후 신부는 하루 종일 바에서 고팡(庫房)을 향해 앉아 있고, 저녁 식사는 동서, 시누이들과 함께 한다.

축하객들의 잔치는 신랑 집이나 신부 집이나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대접하는 것은 밥과 술, 돼지고기, 두부, 전 따위이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가면 신랑이 신방으로 들어가 자는데, 신방에 음식을 차리는 일이나 신방 엿보기 등도 없다.

이로써 잔칫날의 의식은 전부 끝난 셈이다. 이상과 같이 상객과 더불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솔부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의 의식이 없다. 이런 의식을 일부 상층가문에서는 행했다고 전하기는 하나 일반민간에서는 행한 일이 없다.[20]

5. 신부댁 잔치

혼례가 가까워지면 신랑집에서는 백마이면서 웅마를 준비한다. 이 말은 신랑이 타고 갈 것이다. 한라산을 건너가야 할 경우는 혼인 전날 출발해 가야 한다. 혼례 당일 아침에는 마당에 백마를 준비하고, 말 옆에 <도고리>라는 함지박을 엎어놓고 신랑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신랑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혼서지를 쓰고 홍새함 속에 넣고 붉은 보자기로 싸 문전제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신랑은 마루에 준비된 문전상에 배례를 하고 밖으로 나서는데 오른 발을 먼저 내딛는다. 도고리를 발판으로 말에 오르면 출발한다. 이때 말이 똥을 싸면 신랑 모친이 재빨리 안방으로 거둬치워야 한다.

20) 현용준, 앞의 책, 578-579쪽.

신랑댁에서 출발한 신랑과 하님, 상객들이 신부댁에 이르면 신랑, 홍세함을 짊어진 하님 등은 올레 밖에서 기다리고 하인 하나가 신부댁으로 들어가 신랑이 왔음을 알린다. 신부댁에서는 신랑과 상객이 앉을 방을 치우고, 중방으로 선정된 사람은 밖으로 나가 신랑과 상객을 모셔들인다. 그러면 먼저, 신랑측 친족대표가 납폐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가 드리는데 납폐함을 <홍세함>이라 일컫는다. 납폐함 속에는 무명 두필(혹은 네필)과 예장을 넣는다. 납폐함을 문전상(門前床)위에 놓고 예장을 검토한 다음 양가의 대표가 인사를 나눈다. 이를 이른바 '문전코시(門前告祀)'라 하는데, 대체로 '난간'이나 대청에서 이루어진다. '난간'이란 대청이나 구들방 바깥 옆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널을 깔아 놓은 곳을 말한다.

예전엔 예장 검토가 엄격했으며, 만약 착오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 작성하기 위하여 신랑측에서는 먹과 붓, 용지를 준비해 가곤 했다. 예장은 신랑이 쓰기도 하나 보통은 글씨를 잘 쓰는 집안 어른이 쓴다. 그는 신부댁을 찾아가는 '수우시'가 된다. 흔한 일은 아니나 사돈댁을 시험하기 위해 한두 글자를 빼어 작성해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신부댁에서는 세밀히 살펴 실제와 내용이 달랐을 경우 다르다고 지적하면 '역시 사돈 잘 했다'라 한다. 신부댁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장을 확인할 때는 정성들인다.

혼서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불러 신랑방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신랑은 중방을 따라 난간을 거쳐 마루를 지나 신랑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신랑은 이미 관복으로 갈아입었기에 행동은 자유스럽지 못하다. 마루에서는 음식상을 준비해 들어온다. 먼저 중방에게 상을 놓고, 다음에 신랑에게 상을 놓는다. 지역에 따라 한 상에 중방과 신랑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기도 한다.

납폐는 곧 새살림의 기초라는 관념이 짙다. 신랑의 옷을 만들거나 태어나는 애들의 옷감으로 쓰기도 하고, 이를 팔아서 소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신랑이 방에 들어서고 상을 받으면 신부는 치장하기에 부산하다.

신랑이 음식을 받으면 먼저 중방이 밥뚜껑을 열고 상 위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떠서 그 뚜껑 위에 놓고 상 밑으로 놓는다. 이는 간단한 의례로 외부인이 들어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코시(고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부도 마찬가지이다.

신랑과 상객들이 음식을 다 들면 신랑은 겉에 입은 관복을 벗고 인사할 준비를 한다. 관복은 벼슬아치의 복장으로, 즉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관복을 벗고 두루마기만 입은 차림으로 신부측 어른들에게 인사할 준비를 한다. 중방의 안내를 받아 마루로 나서면 이미 어른들이 마루 가득 앉아 있다.

"이 분은 신부의 고모, 이분은 신부의 큰어머니…"

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 주면 큰 절을 올린다. 인원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기도 한다. 상객들이 서로 술상을 준비하여 서로 한잔씩 주고 받으며 인사를 하는 사돈 열맹을 하는 사이에 신부는 방에서 치장하기에 부산하다.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을 나선다. 신부와 신랑은 오른발부터 신발을 신고 신부는 독교(혹은 가마)에 오른다. 독교는 약간의 공간이 있어 이불을 같이 넣기도 한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랑측 상객, 신부측 상객, 하님들과 신랑댁으로 향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혼인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누는 것은 집이 좁기 때문이다. 보통 마루 1, 방 2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웃집을 빌어 혼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이다. 신부집에서는 친족과 친지들이 찾아와서 한참 잔치가 벌어진다.

6. 신랑댁 잔치

제주도에서도 동서쪽과 산간과 해변 쪽이 조금씩 혼례의 절차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주된 것은 척박한 토지를 일궈 살아가야 했기에 혼인이라 해야 특별하게 절차를 중시하며 예를 갖춰 치를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 육지부 혼례에 비해 제주도가 극히 간단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지금은 신부를 데리고 나오면 정해진 예식장에서 예식을 거행한다. 그밖의 예법은 전래적인 혼속을 대체로 그대로 따른다. 예전에는 이른바 <올히친심>이라고 신랑댁 마당에서 초례가 거행되었는데, 1940년대 경에 이르러 제주에서는 흔히 생략되기도 했다.[21]

신랑.신부가 신랑댁에 도착하면 신랑댁은 잔치 분위기로 몹시 술렁인다. 하객들이 운집하고 잔치가 벌어진다. 신부가 탄 독교는 난간에 내려지고 독교 문은 신랑이나 신랑 부친이 여는 게 관례다.

신부는 상을 받고 두세 숟갈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신부 대반은 신부 밥그릇에서 밥 세 숟가락을 떠서 상 밑으로 넣는다. 떡이나 달걀은 시조부모나 신부방 밖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조무래기 애들은 이런 정경이 모처럼의 즐거움이며 귀중한 추억이다.

신부방 주변에는 신부의 얼굴을 엿보느라고 종일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신부가 상을 받기 전에 시어머니가 신부를 쳐다보게 되면 고부 사이의 알력이 생기기 쉽다는 속신이 깔려 있어, 신부가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숨어 버리는 일이 있다.

예전의 하객은 친척만으로 국한하였지만 점차 동네사람들도 거의 참례하게 되었다. 하객 접대는 돼지고기와 식사가 위주이며, 지역에 따라

---

21) 제주도, 앞의 책, 298쪽.



<사진 2> 1956년 10월 혼인한 신랑과 신부

서는 돼지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쓰기도 한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귀포시를 중심으로는 정식 대신에 국수를 마련하며 대소상 때에도 이와 같은데, 이런 잔치를 잘 차린 잔치로 간주했다. 살기 어려운 곳에서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이바지하는 일도 없었다.

옛날에는 신부가 시집오면서 특별히 예단을 하는 일이 없었다. 시집에서도 신부에게 아무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몸만 왔다. 1970년대부터 시삼촌들에게 버선을 하나씩 해 왔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커져 옷을 한 벌 하기도 한다. 예단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보답을 돈으로 해 준다.

대개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부모가 괘를 하나 해 주었다. 자식을 낳고 살림을 따로 나가게 될 때는 부모가 솥, 임시 살 수 있도록 쌀, 수저

두 벌을 해 주었다. 보통은 2-3년 정도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게 되었다.

신부는 혼인한 다음날부터 언제라도 친정에 가고 싶은 때 갈 수 있었다. 신랑은 신부가 보고 싶은데도 친정에 가 버리면 처갓집을 찾아간다. 신랑은 신부와 친정에서 살 수도 있으나 '풀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모살(모래)에 새(띠)를 박주(박지).'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처가살이는 안 하려고 한다.

첫 애기는 친정에서 낳고 한두 달 후 몸이 회복되면 시집에 돌아온다. 애기가 친정에서 나올 때는 외할머니가 '솥 썽 가라이?' 하면서 숯검정으로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어준다. 백일이 되면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러 가는데, 애기구덕에 쌀 한 말 정도를 넣고, 술과 고기 등을 넣고 간다.

7. 사돈잔치

혼례를 치른 뒤 이틀 동안은 <사돈잔치>가 벌어지는데, 곧 사돈끼리 오가면서 인사를 나눈다. 신랑 신부의 부모 사이를 <더운사돈>이라 이르는데, 이른바 <더운사돈>끼리 상호방문을 통한 교례인 셈이다.

혼례 다음날 조반을 먹으면 신랑, 신부는 근친의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가 끝나면 신랑 부친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사돈의 예로써 신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 근래에는 이때 신랑의 자매가 돼지고기와 술을 지고 수행하기도 한다. 술 한말과 돼지고기 한뼈를 가져가는 게 상례인데, 생략되는 지역 또한 많았다.

신랑부친 일행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 부친은 근친 몇 명과 함께

정중히 맞이하고, 서로 사돈 사이에 인사를 나누고 음식 대접을 한다. 이를 사돈잔치라 한다.

잔치가 끝나면 신랑 부친은 그날로 돌아오고, 신랑, 신부는 그날 밤 신부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상례다. 신부는 이때 신랑측 근친에게서 받은 선물인 옷을 가지고 가 친정 어머니께 일일이 보고를 한다. 그러면 신부 모친은 답례품을 마련해 준다. 답례품을 넘기는 시기는 대개 그해 연말로 버선 한 켤레씩을 해다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룻밤을 신부집에서 자고 이튿날이 되면 신부부친은 또한 사돈의 예로써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집에 인사차 간다. 이 때 역시 신부댁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혹은 시루떡 한 시루를 쪄서 신랑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시루떡을 <거스름떡>이라 했으며 이를 받은 신랑댁에서는 친족과 이웃에 나누곤 했던 곳도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돈끼리의 인사도 혼례 당일에 치르고 신랑 신부댁을 오가며 인사하는 습속도 점차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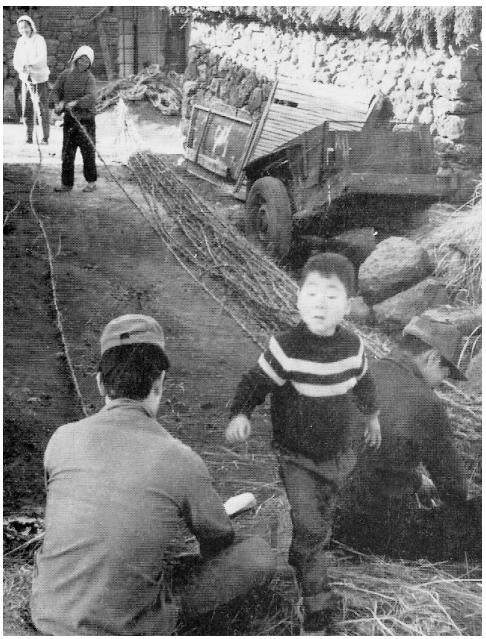
신부 부친 일행이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 부친은 역시 근친들과 함께 정중히 맞이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 대접을 한다. 신부 부친 일행은 대접을 받고 신랑, 신부를 남겨둔 채 당일로 돌아간다. 이것은 신랑 집 사돈잔치다.

이날 신랑, 신부는 신랑 집에서 자고 다음날부터 신부는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 일을 도운다.

이로써 모든 예식이 끝나 평상으로 돌아가는데, 신부는 곧장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엔 혼례를 치르고도 서너 해 지나서야 새살림을 꾸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행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일까? 당사자들, 특히 신랑이 너무 어려서 당장 새살림을 꾸며야 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았다는 점, 신부측 친정에서도 출가는 시켰지만 딸의 노동력이

당분간 요청된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부는 몇해 동안 일상생활을 친정에서 치르면서 명절과 제사 때, 농번기나 유별난 일이 있을 때 시집에 가서 며칠 지내다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 특유의 가옥구조에서도 드러나지만, 부모와 더불어 대가족이 묶여 살기보다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부부는 자식들대로 독립생계를 꾸려나가는 점이 유다르다. 이제는 대체로 결혼하자마자 새살림을 꾸리는 경향이 짙지마는, 한본토에 비하여 신부의 친정출입은 비교적 자유롭고 빈번한 편이다.



<사진 3> 집줄놓기 (조천읍 신촌리 1968. 2)[22]

요즘은 신부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와 딴 살림을 차리나 제주도에서는 소위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라 하여 신부가 친정에 갔다가 시집에 돌아오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친정에 가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날부터 바로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

22) 현용준, 앞의 책, 75쪽.

칠이 지나 친정에 가고 싶으면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온다 하여 말하고 가서 며칠 살다가 한다. 신랑도 신부가 갈 때 함께 따라가 처가에서 며칠 살다 돌아오기도 한다. 신부가 반드시 시집에 돌아오는 날은 명절, 제사, 농번기 등의 시기이다.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은 첫 자식을 낳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신부가 해산달이 가까와지면 친정에 가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온다. 이때 시집에서는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인정을 하여 살림을 마련해 주어 딴 살림을 하도록 한다.

8. 혼례의식의 변화[23]

과거에는 부모가 배필을 정해주면 자식은 거역하지 않고 따랐지만 점점 혼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게 되었다. 또한 삶이 윤택해지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합심하여 새 인생을 만들어가기보다 미리 처음부터 행복한 삶에 혼례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덩달아 자식을 적게 낳으면서 부모도 자식들이 자신들과 같이 어렵게 살게 않으려는 생각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례 의식의 변화 양상을 몇 가지 들어본다.

① 중매혼이 점차 연애결혼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식 교육을 받은 세대들에게 많다.

② 혼인 연령이 점차 남 27세 이상으로, 만혼 경향으로 바뀌어졌다. 조선조에 15세를 기준으로 성인 취급했음은 춘향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조혼이 만혼으로 변화한 것이 큰 차이다.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어야 혼인할 정도로 늦어졌는데 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23) 현용준, <禮考>, 《제주유맥육백년사》,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③ 이바지 제도가 완전 없어졌다. 과거에는 혼인을 위해 돼지를 길러야 했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은 혼인을 통해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은 노동력의 확보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신부댁에 이바지를 보내는 제도가 있었으나 점차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이러한 제도가 사라졌다.

④ 사모관대, 원삼 족두리 차림이 거의 없어져 양복과 드레스로 바뀌었다. 전통결혼식보다 서양식 결혼식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듯하다. 서양문화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일제강점기부터 강하게 나타났다.

⑤ 신부의 혼수품, 패물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가품으로 바꾸어졌다. 과거에는 신부 몸만 오는 것도 환영이었다. 왜냐하면 노동력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가치 기준이 능력 위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⑥ 신랑, 신부, 상객 등 일행이 모두 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동 수단이 말에서 자동차로 바뀐 것이다. 신랑신부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일지라도 반드시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날만큼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

⑦ 동네 하인이 없어지자 홍세함은 상객이 들고 가고 하님이 하는 심부름은 근친이나 이웃 사람이 대행하고 있다. 동네 하인은 신분제 사회에서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였었다. 그러나 신분제가 무너지자 하인 제도가 사라졌으며, 그에 맞춰 하인이 하던 심부름을 근친이 대신하는 것이다.

⑧ 결혼 당일에 신랑 일행이 신부 집에 가 솔부하고 오는 길에 곧바로 예식장에 들러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신식 의례를 지내고 신랑

집으로 온다. 신랑이 신부를 동반하고 신랑집으로 향하던 것이 예식장을 경유한다. 신랑과 신부의 친족끼리 인사를 하지 못하였기에 혼례식을 치르고 난 후 다시 신랑집으로 찾아가 사돈열맹을 한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약식으로 한다며 음식점에서 사돈 인사를 한다.

⑨ 혼인한 후 치르던 사돈잔치가 거의 없어졌다. 혼인 날에 신랑 부친이 신랑 일행과 함께 신부 집에 가 사돈 인사를 나누고, 신식 결혼식이 끝나 일행이 모두 신랑 집에 올 때 신부 부친이 같이 와 사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대행하고 있다.

제주도 혼례에서는 이 외로 들러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른 후 사돈들은 신랑집으로 가 사돈열맹을 하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사진을 찍는 등 추억을 남기고 돌아온다.

현대는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자로 '부신랑', '부신부'라는 제도가 있다. 주로 친구들이 맡는데 혼인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본토의 혼인방식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서는 거의 사당(祠堂)이 있는 집이 없으므로 혼인할 때 사당에 고하는 풍속이 없다. 신랑 신부의 부친이 동의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또 혼례식 날 예장을 쓰는 방식은 《사례편람》에 나온 방식대로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예장을 함 속에 넣는데 예물로 무명 한 두 필을 넣는 것이 일반이다. 이 예장을 넣은 함을 홍새함이라 하는데 이것을 들고 신부 집으로 가서 인사하는 법이 없다. 또 신부 집에서도 사당에 고하는 일이 없다. 다만 신부 집에서는 혼서지를 검토해서 틀림이 없으면 그대로 신랑과 상객을 집안으로 청해 들여 대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상객으로 가는 사람 중에는 신랑의 외

삼촌이 반드시 한 사람 끼는 점도 특이한 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혼례의 예식이 없다는 것도 특색이다.

이러한 혼례 이외에 구덕혼사라는 것이 있다. 아이를 낳은 후 남녀 집안어른이 서로 훗날 '이 아이들이 크면 혼례를 시키자'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 사돈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Ⅳ. 상 례

Ⅳ. 상례

사람은 죽음에 임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민요의 노랫가사가 전승된다.

사람이 죽으면 후손들은 망인에 대해 경건함과 더불어 공포감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 시신을 정성들여 다루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상례는 그 특성상 혼례처럼 의식을 쉽게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하게 장례가 치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집성된 선학들의 연구성과[24]를 참고로 재구성해본다.

1. 초종

환자가 병세가 위중해 가면 주위의 어른들이 자녀와 근친들을 환자 곁으로 모아 마지막 임종을 지키게 한다. 환자 곁에 조용히 근신하며 어른들은 환자의 의복을 깨끗한 평상복으로 갈아입힌다. 근래에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는데, 임종이 가까우면 의사도 자택으로 옮기도록 알려준다. 만일 자택이 아닌 곳에서 운명하는 경우는 시신을 집안으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밖에서 상을 차려 장례를 치른다.

운명하려는 상황이 되면 가족과 근친들은 환자에게 원미를 마련하여 조금씩 입에 넣어드린다. 환자는 입에 넣는 원미를 힘들이지 않고 삼킨다.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생전에 한스러운 일이 있으면 눈을 곱게 감지 못한다고 하므로, 이런 경우는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 눈을 아니 감으

24) 김영돈·고광민, "제주도의 통과의례", 《제주의 민속》Ⅰ, 1993.
현용준, 〈禮考〉, 《제주유맥육백년사》,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십니까? 모든 것 용서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라고 하며 눈을 내리쓸어 감겨 드린다.

임종할 때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므로 혹시라도 거짓이 생길까 보아 이웃의 친지를 참석시켜 증인으로 삼기도 한다.

숨이 끊어졌다고 판단되면 얼굴에 적삼을 덮어 호흡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후 움직임이 없으면 머리를 풀고 곡을 한다. 요즘은 머리를 기르지 않으므로 머리를 푸는 절차는 없다. 망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미음을 한 그릇 올릴 뿐 차사상은 차리지 않는다.

2. 수시(收屍)

운명이 확인되면 먼저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몸을 바로 해야 한다. 몸이 굳어져 버리면 억지로 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망인을 똑바로 눕히고 두 손을 배 위에 모으도록 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3, 4 군데 묶고 이불을 시신의 머리까지 덮는다. 이를 소렴이라 한다. 그리고 곡을 시작한다. 또 운명하는 즉시 온돌 아궁이의 불을 꺼내고 아궁이를 잘 막는다. 만약 온돌 아궁이를 막지 않아 고양이가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는 속신이 있다.

3. 고복(皐復)

운명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 고복(초혼)을 하는데, 흔히 '혼부르기'를 한다고 한다. 근친자가 고인이 평상시에 입던 속적삼을 꺼내어 시신 위에 덮었다가 들고 대문 앞에 사다리를 놓고 지붕 용마루에 올라간다. 지붕 위 용마루나 높직한 곳,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올라서서 북향하고 왼

손으로 그 적삼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아서 치켜 올리면서 한숨에 초혼을 한다.

예를 들면 "金海金公○○씨七十復"이라 세 번 외친다. 金海金公○○씨가 七十에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세 번 외칠 때마다 屍身이 있는 방 옆에 한 분이 섰다가 '復'소리를 받으며 응답하기도 한다. 또는 초혼하는 이로 봐서 아주머님 차례이면 '아주머님 00복' 하는 식으로 '복'을 세 번 외친다. 이때 사용했던 적삼은 내려와 시신 위에 덮어두거나 시신 앞에 친 병풍 위에 걸쳐 두었다가 대상 때 불사르거나, 지방에 따라 지붕 위에서 고복했을 때에는 적삼을 처마에 얹혀 두었다가 장지에 가지고 가서 관 머리 쪽에 넣어서 묻는 지역도 있다. 또는 근친이 혼백상을 가져와 그 적삼을 받아 혼백상에 모시기도 한다. 혼백상은 나무로 짠 작은 상자이다. 이 혼백상은 소상, 대상 때에도 없애지 않고 모신다. 고복이 끝나면 지붕 위에서 앞으로 내려오지 않고, 사다리를 뒤 찻방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거기서 내려온다.

예전에 <큰마누라>·<족은 마누라>라는 천연두나 홍역이 번졌을 때에는 그 역신을 극진히 받든다는 뜻에서 고복을 삼갔다가 장지에 가서 고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초혼이 끝나면 상을 차려 원미를 올리고, 분향하며 제주를 부어 올려 곡을 한다. 이때부터 근친들이 분담하여 장례준비에 들어간다.

4. 부고(訃告)

장사가 나면 근친자들이 원·근 친족과 친지들에게 부고를 알린다. 부고는 어떤 서식으로 전하기보다 구두로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근래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스컴을 활

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근친자가 날짜 보는 이(흔히 정시라고 하는 지관이 본다)에게 가서 장례 택일을 하고 상주들이 의논하여 장지까지 정한 후에 부고를 작성, 신문에 내는 일이 많다.

만약에 알맞은 날짜가 안 나오면 가매장을 한다. 이를 토롱이라 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흙을 쌓아서 만든 약식의 무덤 또는 토분'이다. 제주에서의 토롱은 장례 택일의 문제(상주 수, 막은 절기, 상주 운), 천재지변(폭설, 홍수), 음택 미정(명당, 묘자리 문제), 운상이 안 됨(전염병, 난리 등), 주상 없음(맏상주 출타), 집안 사정(혼사, 상주 출타 등), 관습(마을 관습, 포제, 가문가례 등) 등의 이유로 행해진다. 토롱 방법은 짚으로 이엉을 덮어 '눌'처럼 만든 '생빈눌'로 만들거나 야산에다 가매장 해 두었다가 택일을 하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산터까지 구하였는데 장례 택일이나, 방향이 맞지 않아 성분을 못하는 경우 용미·제절만 뽑지 않았다가 그 장애 요소가 해소되면 봉분을 완성시키는 장례방법도 있다. 장지는 고인이 미리 유념해 두었다가 '어디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하는 수도 있고 예전에는 스스로 묏자리를 마련하고 남이 써 버리지 못하게 가봉분을 만들어 놓는 일도 있었다. 고인이 장지를 결정해 두지 않았을 때는 상주들이 지관을 청하여 산야를 헤매며 명당을 찾아 정한다.

일반적인 부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부고서식

李OO大人(父親, 母親은 大夫人, 祖父는 王大人, 祖母는 王大夫人) 全州李公OO(本貫O씨) 以宿患O年O月O日O時O分於自宅別世玆以告訃

發靷日時 : 年月日時

發靷場所 : 群邑面里 自宅

葬地 : 郡邑面里O坐之原

年月日

嗣子

孫

婿

外孫

親族代表

護喪

5. 염습(殮襲)과 입관(入棺)

망인의 임종시간에 맞춰 입관, 동관, 하관 시간 등이 택일할 때 미리 정해진다. 이 시간에 맞게, 관은 동네 목수에게 부탁하여 만든다. 관과 개판의 재료는 소나무를 많이 쓰며, 고인이 생전에 준비해 두는 일이 많고 준비가 아니 되어 있을 때는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조관은 상례 가운데 주요한 일거리로서 상가 마당에서 장막을 치고 한다. 친족이나 동네 사람이 모여와, 남자들은 조관이나 수질(首絰) · 요질(腰絰) · 건대(巾帶), 짚동·상장 등 만드는 일을 돕고, 여자들은 수의(壽衣)(「호상」이라 함)나 상복을 만드는 등 일을 돕는다.

관의 재료로서 향나무나 비자나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상품으로 치지만 소나무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조금 부유한 집은 관을 짜기 위해서 소나무를 미리 사 둔다. 그래서 상이 나면 목수만 빌려서 관을 짠다. 남자는 어깨쪽이 넓고, 여자는 엉동이 쪽이 넓으니 그에 맞게 짠다.

조관하는 목수는 중요한 일을 했기에 대접을 잘 한다. 이 대접을 '공정'이라 하는데, 돼지고기, 솔변, 절변, 은절미, 중괴, 약괴, 제편 등 1차

롱과 술 4홉 1병을 같이 넣어 보낸다. 이러한 대접은 소상, 대상 때까지 3년 동안 계속된다. 이것이 일을 해 준 데 따른 품삯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을 보내는 것은 도감, 지관 등도 같다.

날이 더운 때 상이 나면 시신은 금방 부패한다. 더구나 택일이 안 되어 7일, 9일 장이 되어가면 관은 부패한 물을 먹어 불어나게 된다. 이를 대비해 목수는 나무를 엇물려 떼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관 속 지판에는 창호지를 깔아놓는데, 여기에는 북두칠성이 뚫어져 있다. 그래서 칠성판이라 한다. 이에 앞서 널과 널이 맞닿는 금이 튼튼하도록 송진으로 메운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찰흙을 바른다. 상하를 천판, 지판, 좌우를 둘레, 앞 뒤를 모메기라 하며, 나무는 6판이 필요하다.

관에 시신을 넣고 나면 약간의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는 보공이라 하여 망인이 생시에 입던 옷으로 메웠다. 종명하게 되어 가면 평소 입던 옷을 꺼내어 깨끗이 빨아두었다가 보공으로 쓴다. 만약 옷이 모자라면 산뒤(山稻)짚으로 보공을 대신하기도 했다. 안 썩는 재료는 보공으로 쓰지 않는다. 저승에 가면서 노자라도 하라면서 돈을 넣거나, 근래 들어 불교를 믿는자는 다라니를 넣는다.

염습할 때 입히는 수의를 제주도에서는 '호상옷'이라 하는데 자신이 입고 갈 '호상옷'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사람들이 많다. 호상옷은 윤달에 만들면 좋다고 한다. 그 재료는 명주를 최고품으로 치며, 무명은 쉽게 변한다고 삼간다. 모시로 하면 자손들의 머리에 새치가 생기기 쉽다는 속신이 전한다. 이들 모두는 썩느냐 안 썩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여자들은 혼인할 때 원삼을 만들어 입었다가 환갑 때에도 입고 잘 간수하고 나중에 호상옷으로 삼기도 한다. 만약 혼례 때 원삼을 못 만들었

을 경우에는 환갑 때에 원삼을 만들어 입었다가 호상옷으로 삼으려고 잘 보관해 두는 경우도 있다.

수의(壽衣)(호상)을 만들 때는 바느질을 하는데 박음질을 하거나 실매듭을 맺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승에서 품은 한을 풀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게 되거나, 상제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긴다고 하는 속신이 전한다. '호상옷'의 색깔은 물색을 고급으로 쳤다. 물색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부호나 세도가 있는 집안의 상징으로 여겼다. 남자의 '호상옷'으로는 도포를 흔히 입는다. 혼례 때나 회갑 때에 입었던 도포를 잘 간수해 두었다가 '호상옷'으로 삼는다. 청색물을 들인 도포를 값어치 있게 여겼지만, 이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보통 하얀 도포가 흔히 쓰였던 셈이다. 도포를 마련할 길이 없으면 두루마기로써 호상옷을 삼기도 한다. 그렇지만 두루마기는 "두루 막힌 옷"이기 때문에 호상옷으로 알맞지 못하다고 하며, 자손이 번창할 수 없다고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주도 여인들이 혼례복인 장옷을 호상옷으로 삼는 관례는 특이한 사례이다. 이러한 예는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어디를 가나 예로부터 수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매우 중시했다. 땅이 메마르고 가난에 허덕여 왔을 뿐 아니라, 모진 역사에 시달리면서 찌든 삶을 살아 왔으므로 내세의 행운을 몹시 갈망한 때문인 줄 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살아서 한번 호사하고, 죽어서 한번 호사한다는 속담이 전하며, 제주말로는 "살앙 혼번 호스, 죽엉 혼번 호스"라 표현한다. 이승에서는 혼례를 치를 때 만인의 축복을 온몸에 받으므로 아주 호사하는 셈이요, 죽어서는 수의를 입고 초상을 치를 때 숱한 사람들이 애달파하면서 서러워하므로 역시 호사하는 셈이란 뜻이다.[25]

초혼한 후부터 상제들은 머리를 풀어 짚으로 묶고 조관이 시작되면 아들 상제는 통두건(윗 부분을 꿰매지 않은 두건)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되 좌단우단(左袒右袒)이라 하여 아버지 상에는 오른쪽 팔을 끼지 않고 입으며 바지 대님도 한쪽을 풀어 종일 곡을 한다.

조관할 때에는 상가의 사돈집에서 팥죽을 쑤어 오는 관행이 널리 깔려 있다. 상제들과 복친 및 상사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쑤어 오는 이 팥죽의 유래에 대하여 몇 가지 전설도 전승된다.[26]

㉮ 옛날 친상을 만난 상제는 애통하고 경황이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 이를 보며 몹시 안타까와 하던 이웃집에서는 상제의 건강을 위하여 닭죽을 쑤어다 주었다. 상제는 이로써 요기하여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 상제는 보통식사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믿어서 사돈집에서 팥죽을 상가에 쑤어 가는 관행이 생겼다.

㉯ 옛날 어느 대감집에 우둔하고 몰염치한 이가 살았었다. 얼마나 몰염치했던지 동네에 장사가 나기만 하면 상가에 가서는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 치우곤 했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의 행패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어느 집의 장사 때에는 관을 만들 때에 팥죽을 쑤었다. 어디 팥죽이야 먹겠는가고 그대로 몰염치한은 나가 버렸다. 그 몰염치한은 사람이 아니라 악신인 〈멍청이귓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멍청이귓것〉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조관할 때에는 으레 팥죽을 쑤게 된 것이 굳어진 관례로서 전해졌다. 이 〈멍청이귓

25) 제주도, 앞의 책, 332-333쪽.

26) 제주도, 위의 책, 335-336쪽.

것〉은 인간에게 감기도 주는 악귀임이 밝혀지자 동지날에는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 먹음으로써 이 악귀의 침입을 막는 습속도 생기게 되었다.

관이 완성될 즈음이 되면 근친자나 경험이 있는 동네사람이 염습을 한다. 먼저 향탕수로 시신의 얼굴부터 전신을 닦은 다음 수의(호상 옷)을 입힌다. 수의는 견의(絹衣(명주옷))로 만든 상하의, 도포나 심의(深衣)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로따로 입히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겹쳐 꿰매어서 한꺼번에 입힐 수 있게 한다. 시신을 닦은 향탕수는 삼살방(三煞方)이 아닌 방위로 가서 살짝 부어야 한다.

심의를 입히고 나면 버선을 신기고 행전을 치고 허리띠와 도포의 끈을 매고 백지로 만든 신을 신긴다. 그리고 '소랑'(혹은 대랑)이라고 창호지로 자그만 주머니를 5개 만들어서 망인의 머리털을 몇 개 뽑아 넣고는 오른쪽 머리털은 머리 오른쪽에, 왼쪽 머리털은 머리 왼쪽에 하는 식으로 놓는다. 손톱 발톱 역시 오른쪽 것은 깎아 오른쪽에, 왼쪽 것은 깎아 왼쪽에 구분하여 넣는다. 그런가 하면 작은 주머니 둘을 만들어서 왼쪽 손발의 손톱 발톱을 넣은 곳은 왼쪽 허리에, 오른쪽 손발의 손톱 발톱을 넣은 것은 오른쪽 허리에 달아매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소랑>을 아주 생략하는 곳도 있다.

다음에는 콧구멍과 귓구멍을 풋솜으로 막는다. 염습을 할 때에 상주는 쌀 9알을 물에 넣어 불려두었다가 3알씩 숟가락으로 망인의 입에 넣어준다. 넣으면서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라고 한다.[27]

그리고 백미나 메밀로 만든 자그만 떡 9개를 양손과 가슴에 각각 3개씩 넣는다. 혹은 떡 6개를 만들어 양손과 가슴에 각각 2개씩 넣기도 하며, 양손에 각각 3개씩 잡히는 등 그 수효는 일정치 않다. 이 떡은 망인

---

27) 이 떡은 망인이 저승문을 들어설 때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내주어서 개를 쫓는데 쓰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저승문을 들어설 때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내주어서 개를 쫓는데 쓰이는 것으로 관념한다. 향탕을 대야에 떠서 헝겊이나 창호지 따위로 시신을 씻는다. 그 물은 반드시 삼살방이 아닌 방위로 가서 살짝 부어야 한다. 입관시 시신을 들기 위하여 <거관베>라는 베로 시신을 두 겹이나 두른다.

시신을 다 목욕시킨 후, 수의로 갈아입히고 몸을 묶는데, 초소렴 때는 사람이 금방 돌아가셨을 때 그냥 두면 뼈가 고루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펴주고 발을 두 번, 대소렴 때는 베를 4동을 잘라 시신 밑으로 집어넣어 양쪽으로 매듭을 짓는다. 머리 부분부터 묶기 시작하여 12매듭으로 묶는다. 주의할 점은 매듭을 묶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로 사람은 죽으면 좀 붓기 때문에 약간 헐겁게 맨다는 의미이다. 민간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12마디 묶어야 막말흔다'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네 폭의 베를 각 폭 당 3마디로 잘라 쓴다.

이로써 염습이 끝나고 다음은 입관이다.

관은 향나무나 비자나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상품으로 치지만 보통은 소나무로 흔히 만들고 겉면에 검은 색칠을 하고 天板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창호지로 도배를 하는데, 널과 널이 맞닿는 금이 튼튼하도록 송진이나 초로 메운다. 이것은 시체가 부패한 다음 썩은 물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밑널 안쪽에는 칠성 그림을 각인하기도 하지마는, 대체로 밑널 안쪽에 붙이는 창호지에 칠성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 놓음으로써 七星 그림을 대신한다.

입관 시에는 상복을 지으면서 함께 명주로 만들어 둔 천금과 지금을 입관할 때 쓴다. 지금은 시신 밑에 깔고 천금은 시신 위에 덮는데, 천금과 지금 속에는 각각 '설멩지'(雪綿子)를 넣는다.

염습한 후, 관을 시신 곁에 들여다 놓고 관 밑바닥에 명주로 만든 지금을 깔고 마른 흙이나 재, 모래, 숯가루, 머리털 등을 넣어서 만든 베개를 놓은 후 시신을 조심히 관 속에 옮겨 위를 향해 눕힌다. 시신이 똑바른 방향으로 눕게 한 후 묶었던 염마(殮麻)의 매듭을 자녀들이 풀면 위에 명주로 만든 천금을 덮는다.

이렇게 한 후, 관 뚜껑을 덮어 나무못질을 하고, 관을 들어 옮길 때 잡아 들 수 있게 거관(擧棺)배로 관을 둘러 묶은 후, 마목(馬木) 두 개를 깔아 그 위에 관을 올려놓는다. 관 위에는 이불을 덮는데 바로 덮지 않고 모서리지게 덮는다. 거관배는 칡이나 짚으로 꼰 것은 쓰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신 길이만큼의 오분판자 하나로써 관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 판자위에 칠성을 붓으로 그리거나 끌로 파서 그리므로 그냥 '七星板'이라 부르는데 관 대신 이를 쓸 때에는 염습 시 이 칠성판 위에 시신을 둘러싸 묶고 매장한다.

6. 성복제와 일포제

收屍 후 상제는 <통두건>을 쓴다. <통두건>이란 웃끝이 벌려진 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두건을 말한다. 웃옷도 한 쪽 팔은 빼버리고 한 쪽 팔만 끼워 입는다. 즉 아버지가 돌아간 때는 오른쪽 팔은 끼고, 왼쪽 팔은 내놓은 상태로 상복을 입고, 어머니가 돌아간 때는 그 반대로 한다. 이는 너무 황망하게 일을 당했으므로 급하여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복제를 지낼 때가 되어야 상제는 비로소 상복 입고 복친은 두건을 쓴다. 이것은 대상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며 쓴다. 보통은 베로 상복

을 만들지만 비싸므로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무명으로 상복이나 두건을 만들기도 한다.

입관한 다음에야 제대로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치른다. 상복을 입을 때 향탕으로 세수한 다음 머리를 손질해서 잘 고쳐 매었는데, 예전에는 짚으로 매었던 상투도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다시 손질하지 않는다는 금기가 따랐었다.

상제의 두건을 만드는 바느질 방법도 상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부상이나 조부상일 경우에는 실밥을 밖으로 내어 두건을 만든다. 즉 끄트머리를 접지 않고 그대로 바느질한다. 母喪이나 祖母喪이면 보통 두건처럼 만들어 놓고 웃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바깥으로 바느질한다. 父喪이나 祖父喪일 경우는 남녀 상복 모두 옷자락 끄트머리를 집어서 바느질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감친다.

상복은 베로 만들지만 제의를 행하는 제복의 경우는 좀 다르다. 사위의 상복은 팔에 우머니부분(이를 진양이라 한다.)이 길게 나와 있지만 아들의 상복은 그것이 없다. 게다가 아들은 우머니가 없는 상복을 입고 그 위에 제복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 제복은 등뒤 좌우와 앞가슴 좌우에 베 헝겊이 달려 있는데, 이는 조상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의무를 표상한다고 한다. 따라서 제복은 빌어다 입는 경우도 있었다.

여상제의 복수건은 넓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길이는 3자를 기본으로 한다. 이 정도 길이면 머리를 두르고 묶을 수 있다. 치마는 베치마가 일반적이지만 여유가 없는 데는 무명치마를 하기도 한다.

상장으로는 대체로 왕대와 머귀나무를 쓴다. 곧 부친상이나 조부상이라도 사손(嗣孫)이면 왕대를 여섯 마디로 잘라 사용하며 모친상, 또는 조모상이라도 사손(嗣孫)이면 머귀나무를 상장으로 쓴다. 보통은 길이가

1M 정도 되는데 성인이 짚고 서면 허리를 굽게 된다. 상주는 허리를 꼿꼿이 펴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굽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무가에 따르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뜸뜸하니까 대나무 지팡이로 방장대를 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신이 먹먹하니 머구나무로 방장대를 삼는다고 한다. 북침은 양쪽으로 한 자 조금 넘는 크기이며, 6군데로 묶는다.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에는 7군데로 묶은 것이 있다.

성복제는 입관 성복한 다음 치르는 제례이며 일포제는 발인 전날 신시에 치르는 제례다.

성복제는 상사에서 첫 제례라는 뜻을 지닌다. 그 집안에 있는 물품으로써 제물을 차린다지만, 한편으로는 성복제 때 잘 차려야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그 종류의 제물을 다시 차려도 영혼이 제대로 감응한다고 관념한다. 성복제가 끝나면 친족과 동네사람들이 문상한다.

성복제 때 시신을 안 보는 게 좋다고 하여 관 앞에 병풍을 친다. 상제는 상복을 입고 집사가 단헌단작으로 잔을 올리고, 횡배하고 곡을 한 후, 절을 한 후 조문객을 맞이한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지곡이라 하여 곡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곡을 한다. 매번 제사를 치를 때 숭늉을 올리는 헌다 차례가 되면 지곡을 한다. 이때는 혼백상의 종이 뚜껑도 덮고, 개폐문도 닫아 1분 정도 있게 된다. 초우제가 끝나고 재우제부터는 앞에서 배례를 할 수 있다. 초우제까지는 횡배인 셈이다.

상주는 조문객을 맞을 때 오른쪽에 선다. 여자 상제는 보통 방 안에 들어가 구석에서 곡을 하는데, 방이 좁으면 남자 상제 맞은편에 서기도 한다. 이처럼 여자 상제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남자 상제의 위치

는 정해져 있는 셈이다.

단헌단작으로 잔을 올리고 나면 사돈집이나 삼촌집에서 만들어 온 팥죽을 먹는다.

성복제 젯상 위에는 4개의 다리의 자그마한 상이 있고 그 위에 혼백상을 올려 놓는다. 차롱 안에 망인을 초혼하던 적삼이 넣어져 있다. 뚜껑이 없으므로 창호지로 뚜껑을 만들어 덮었다가 제의를 행할 때는 연다.

일포제 때 비로소 제의로서의 격식을 갖춘다.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일포제의 제물은 맏딸인 여상제가 차리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서는 맏딸을 낳으면 일포제감 낳았다고 말하곤 한다. 나머지는 점심, 필역 등을 나눠 맡기도 한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봉토 일이 다 끝나면 일꾼들을 해산시키게 되면 등절비를 3-4개씩 주곤 했다. 등절비는 솔변 크기보다 약간 큰 것으로 쌀로 만든다. 또 메밀로 만든 돌래떡을 품삯으로 주기도 하는데 이는 여유가 없을 때이다.

성복제가 끝나면 친족과 동네사람들의 조문이 시작된다. 남자상제들은 제상 옆에 나란히 서서 곡을 하며 조객을 맞이하고 조객들은 차례로 영전에 조문 배례를 한다. 원래의 조문 방식은 백지 1권, 양초 1봉, 만장 등을 가져와서 영전에 올리고 엎드려서 '어이 어이 어이' 하고 잠시 곡을 한 후, 재배를 한 후 상제들에게 돌아 엎드려서 '어이 어이' 곡을 하고서 일배를 하며, 상제는 역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여 교배를 했다. 여자조문객은 보통 보리쌀로 부조를 했고, 배례하는 법이 없다. 지금은 부조가 향전(돈)으로 바뀌고 '어이 어이' 하는 조객의 곡이 없어졌다. 조객의 조문은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발인 전일인 일포날에 많이 한다.

조문객은 성복전에는 1번 절을 하고, 성복 후에는 2번 절을 한다. 조

문할 때는 먼저 곡을 하고 절을 한 후, 상주에게 맞절을 했다. 하지만 곡을 하는 풍습이 사라진 것은 오래되었다.

조문객을 받는 날은 일포날이다. 동네에서는 성복 후 일포일까지는 상가에 와서 상을 지켜준다. 즉 상주가 쉴 수 있도록 상을 지키다가 교대하는 등의 도움을 준다. 아낙들은 이 손님들을 위해 술과 안주를 대접한다. 옛날에는 60Kg짜리 돼지를 잡아 장사를 치렀다고 한다.

손님 대접은 서귀포시 지역에는 보통 국수를 대접하고, 제주시 지역에서는 밥을 대접한다. 그러나 집안 여유가 있을 때는 떡국을 하기도 했다. 과거에 못사는 집인 경우는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기도 했다. 이때 들어온 부조금은 균등 분배를 하는데 대부분 주상에게 조금 더 배분하며 집안마다 각기 다르다.

日晡祭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日晡祭 祝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영원히 떠나는 예를 지내면서 / 좋은 때는 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 이제 운구에 앞서 / 조도에 준하는 의식을 올립니다.

일포제가 끝나면 상가에 모인 친족이나 동네사람들이 음복을 한다. 장사가 나면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한 상가에 모여 밤을 새며 지키지만, 특히 일포날 밤은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내일의 장례 준비를 하고 밤이 깊으면 상가에서는 밤참과 술을 내놓고 참석자들은 장기나 바둑을 두며 밤샘을 한다.

7. 토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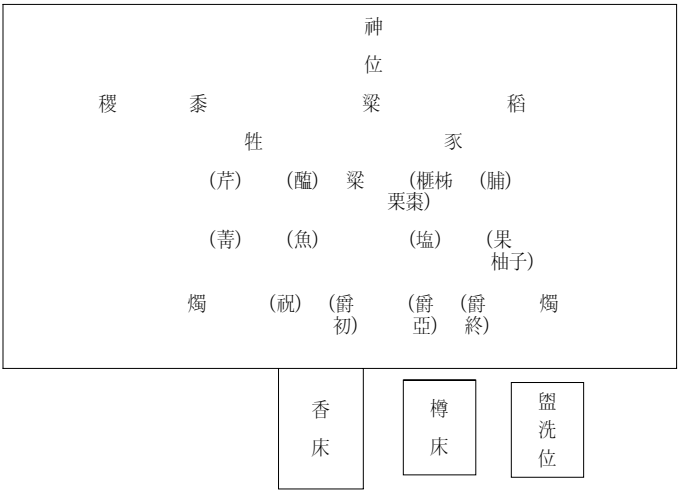
정해진 시간에 장지에서 미리 토신제를 치른다. 지방은「土地之神位」라고 써 붙여 지내지만 일명 山祭라고도 한다. 이 제는 장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신에게 매장할 것을 고하고 보호해 주기를 비는 제이다. 그 제관은 상가에 와 본 일이 없고 부정치 않은 사람이라야 한다. 때문에 축문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다른 동네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도 있다.

상가에서는 토신제를 의뢰한 제관에게 제수비용을 전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토신제를 떠맡은 자가 임시로 먼저 부담하기도 한다. 정성을 들여야 하므로 상가 돈으로 제물을 사서는 안 된다. 토신제의 제의형식은 마을 단위로 음력 정초에 치러지는 포제의 제의와 비슷하다.

제물은 도량서직(稻粱黍稷) 4가지 메 각각 1器, 희생(돼지머리), 포(脯)로서 우육, 해(醢) 대신으로서 명태, 해어, 실과 5종, 芹菹(미나리), 靑菹(무채), 청주 등이고, 폐백으로 명주 3자, 백지 7매가 소요된다. 지금은 도량서직을 다 구할 수 없으므로 백매메 2기, 좁쌀메 2기로 대신 올린다. 배석은 신위에서 약 2M 정도 떨어지게 마련한다. 제례의 형식은 단헌으로 한다. 즉 제관이 직배로 4배, 盥水, 焚香, 獻幣, 後退, 前進, 獻酌, 小退跪, 讀祝, 後退, 前進, 獻酌, 後退, 前進 獻酌, 4배, 撤籩豆, 4배, 焚幣의 순으로 끝내는데, 분폐는 신위 우측에서 하며 분폐한 위에 올렸던 술을 부어 끈다.

토신제를 지내기 전에 지관은 방향을 보고 줄을 매어둔다. 그러면 머리부분 자리에 가서 제를 지낸다. 일반 토신제를 지내듯이 제사를 지내듯이 하는데 특이한 점은 4배를 한다. 이러한 배례법은 포제와 같다. 토신제 제관 역시 큰 도움을 주었지만 조관한 목수나 지관보다는 조금 적

게 대접을 한다. 이 제의 陳設圖는 다음과 같다.



토지신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幼學某姓名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또는 某封某氏)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祇薦于
神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 신께 고하옵니다. 오늘 이곳에 ○○의 묘소를 조성하오니, 신께서는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차려 경건하게(삼가) 신께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8. 발인 · 성분

발인하는 날 出柩할 때에는 삼살방이 아닌 방위를 가려서 반드시 그 방위로 出柩해야 하는 게 예전의 관례였다. 그러다가 보면 심지어는 벽을 뜯어서 出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出柩할 때 관 위에 덮는 이불은 반듯하게 덮지 않고 좀 비뚤어지게 덮어야 하며 棺이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불을 비뚤어지게 덮는 것은 길이가 짧아 다 덮이지 않아 관이 보이기 때문이라 한다.

동관할 때 머리 쪽 창문으로 조심히 관을 옮긴다. 부딪히면 후환이 있다고 하여 조심하고, 관을 모셔 나오다가 관 허리를 부딪히면 상주 허리가 안 좋다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시신에 대한 공경과 공포의 관념의 반영이라 할 만하다. 흉년일 때는 문 앞에 첫발을 디딜 때 곡식을 밟아서 넘어가기도 했었다. 관을 운반해 집 밖으로 나오면 집안에 있던 여인이 즉시 방안을 비로 쓸어 내치고 콩을 뿌려 문을 닫기도 하고, 사기 그릇을 밖으로 던져 깨기도 한다.[28]

발인 시간이 되어 가면 근친자들이 출구 준비를 해 관 옆에 서고 경험 있는 자가

今以吉辰 遷柩敢告

<이제 길일이 되어 영구를 옮기려 감히 고하나이다. >

---

28) 마을마다 있는 본향당에 가면 많은 술병과 깨진 사기그릇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망인이 집을 떠났을 경우, 그 영혼이 곱게 돌아가야 하지, 만일 몸은 떠나고 영혼이 떠돌게 되면 이는 사귀가 되어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영혼의 귀가를 막기 위한 위협으로 풀이할 수 있다.

라고 부르면 관을 조금 들어 옮기고 다시

今遷柩就擧敢告

<이제 관을 옮기어 상여(영구차)로 모시겠기에 감히 고하나이다.>

라고 부르면 관을 들어 집 밖으로 나와 상여에 싣는다. 관은 삼살방(三煞方)이 아닌 방위를 가려서 나가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다가 보면 심지어는 벽을 뜯어서 出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 위에는 간단히 과일, 술 등을 올리는데 미움(원미)을 같이 올렸다가 이를 상여가 나갈 길에 조금씩 뿌린다. 이것을 발인제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상여를 매기 위해 제자리에 가 서 있는 상여꾼들에게 제물을 음복하는 뜻에서 조금씩 祭酒를 나눠 마시게 한다. 그리고나서 상여꾼들은 "자-"하고 한꺼번에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상여를 매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상여는 마을마다 조직된 상여계에서 관리했다. 상여계는 <화단제>라고도 하는데 계원이 아닐 경우엔 임대료를 지불한다. 상여는 마을 벗어난 변두리에 <상여막(상여집)>을 지어서 보관해 둔다. 상여를 지탱하는 '찻대(찻낭)'는 길이가 길므로 상여집이 좁아 보관하지 못할 경우는 <ᄆᆞᆯ방에왕>(ᄆᆞᆯᄀᆞ레왕)이라는 연자맷간에 보관해 둔다. 보통 6자를 1칸으로 치는데, 찻대는 2칸 반 이상이나 되는 길이였다. 그 사이에 걸쳐놓는 나무는 'ᄆᆞᆯ캐'라 했다.

장의행렬의 순서는 명정을 선두로 혼백상이나 사진 다음에 만장이 뒤따르고 <설베>가 양옆으로 늘어선다. <설베>란 본디 먼 山으로 운상할 때 상여를 잡아당기는 베였으나 이제는 광목을 상여 앞에 좌우로 길게 늘어뜨리고 숱한 부인들이 잡고 간다.

상여꾼은 총 10명인데, 상여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4명, 앞뒤로 각 1인씩 자리잡고 상여를 매어간다. 관을 움직일 때, 가운데 서서 중심 역할을 하는 자를 '마새기'라 하며 뒤의 사람은 '치잽이'라 한다. 앞에 서 있는 '마새기'가 상여의 인도자가 되는 셈이다. 상여는 명정을 따라 움직이며, 길의 넓고 좁음에 따라 조절한다. 운구를 하다가 좁은 길을 만나면 양 옆의 상여꾼은 찻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상여를 매어 운상을 한다. 오른 어깨로 매던 자는 왼어깨로 바꾸어 매는 것이다. 더 좁은 길을 만나면 앞의 안내자인 마새기와 뒤의 치잽이만 관을 들고 움직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좋아야 한다.



<사진 4> 운상 (서귀포시 중문동, 1975. 8)[29]

이 설베는 앞에서 당겨주기도 한다. 동산을 올라갈 때 끌어올리거나, 상제들이 친구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

29) 현용준, 위의 책, 137쪽.

앙적 의미로는 망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모의적 표현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말 속에는 저승에 가기 싫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표현이다. 이미 죽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나 그의 지인이거나 자식, 친족들은 망인의 뜻을 받들어 그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의복 등을 저승에 갖고 가도록 챙겨준다. 상여를 매고 가는 상여꾼들도 망인의 뜻을 대신하여 이승에서 그의 의지를 표현하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가기 싫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거나 친지의 집 앞에 도달하면 술 한 잔 먹고 가야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친지는 원미를 준비했다가 노제를 치르고, 술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녀자들이 설베를 메어 이끄는 것도 상여가 무거워서이기보다 가기 싫다는 상여를 빨리 저승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이겠다. 망인을 장사지내지 않으면 이는 완전한 죽음이 아닌 불완전한 죽음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다가 누군가에게 들리게 된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여 빨리 저승으로 보내려는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만장 다음에는 상여, 상여 뒤로는 상제들과 복친들이 따른다. 장지로 가는 도중 상제집이나 고인의 친한 친구집이 있으면 행상을 멈추고 간편한 고별제를 치른다. 고별제는 간단히 음식을 준비해 술을 올리는 것이다. 친구집 앞에서는 추도문을 읽으며 조의를 표하기도 한다. 이때 음복은 모든 상두꾼이 더불어 한다.

행상하는 도중에 망인의 근친 산소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하는 뜻으로 상여를 조금 낮추었다가 간다. 곧 수복친이 "하매ᄒᆞ여 줍서" 하고 상두꾼에게 요청하면 상두꾼들은 상여를 좀 낮춤으로써 예의를 갖추고 행상해 나간다.

장지로 가는 도중, 喪制(고인의 자녀)의 집이나 고인 친구 집 앞을 지

날 때는 그 집 문 앞에 간단한 제상을 미리 차려 두었다가 행상을 멈추고 간단히 고별제를 지내기도 한다. 친구집 앞에서는 追悼文을 읽으며 조의를 표하기도 한다. 이때 飮福은 모든 상두꾼이 더불어 한다. 고별제 때 그냥 원미와 술만 상에 차려 두었다가 행상을 멈추지 않은 채 술과 원미를 던져서 고별을 표시하기도 한다.

장지가 멀 경우는 동구 밖까지 행상이 나아가면 일단 상여를 멈추구 여상제(고인의 딸들)가 대접하는 술과 떡을 나누어 먹고 설배를 매었던 부인이나 친지들이 상제에게 인사를 하고 귀가하기도 한다.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를 정상방에 내려놓아 병풍을 치고 제상을 차려 상제들이 옆에 서서 곡을 하며 조객을 맞는다.

이때쯤 되면 개광은 완료되어 있다. 묘혈은 관이 꼭 맞게 들어갈 넓이로 파는데 깊이도 관을 넣으면 지면과 맞닿을 정도로 하여 평평하게 한다. 본토에서는 깊이 파는데 이것이 제주도와 다른 점이다. 개광을 할 때는 지관이 정한 정자리에 좌향이 틀리지 않게 꼭 바르게 파야 한다. 하관시간이 되면 상여를 풀고 관을 옮겨다 광 속에 내려놓는데 좌향이 틀리지 않게 실을 매어 관을 똑바로 안치하는데 유념한다.

제주도에는 도처에 돌이 지천으로 깔렸기 때문에 하관할 때 관 가까이에 돌이 끼지 못하도록 상제들은 철저히 돌멩이를 주워낸다. 돌이 있을 경우 세월이 흘러 개판이 썩으면 시신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관은 묘의 앞쪽에 시신의 발이, 뒤쪽에 머리가 가도록 내려놓는 것이다. 관이 안치되면 광(壙)과 관 사이 틈을 흙으로 단단히 메우고, 관 위를 공포(麻布 針尺 3척)로 깨끗이 쓸어낸 다음, 관 위 중심에 동심결, 우측에 불삽(斂霎), 좌측에 운삽(雲翣), 위쪽에 현훈(玄纁), 아래쪽에 후훈을 놓고, 그 위에 주상이 드리는 명정을 바르게 덮어서 개판을 덮는다.



<사진 5> 하관제 (제주시 도두동, 1974. 5)[30]



<사진 6> 하관 후 줄을 빼냄

개판은 구슬잣밤나무·비자나무·느티나무 등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상품이요 보통은 소나무를 쓴다. 이것은 두꺼운 나무가 여러 토막으로 된 것인데 위에 흙을 덮어도 세어들지 않도록 빈틈없이 붙여 덮는데, 중간의 개판을 하나 떼어내어 하관제를 지낸다. 광 앞에 작은 제상을 차려서 상제나 복친들이 술 한 잔씩을 드려 직배로 재배하는 것이다. 이때부터의 제는 모두 직배로 한다. 이때 올린 술은 광 앞에 모두 붓는다. 하관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下官祭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某封某氏) 形歸窀穸
　神返室堂 紙榜旣成 伏惟
尊靈舍舊從新 是憑是依

<이제(올해) 00 감히 고하나이다.
00(00씨) 형체를 광중에 묻고,
신위는 집으로 모셔, 지방을 이미 이루었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옛것을 버리시고 새것을 따라 여기에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성분할 흙은 무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파다가 쓰는데, 이를 <진토>라 하고, <진토>를 파내는 구덩이를 <진토굿>이라 한다. 삽에 줄을 매고 여럿이 흙을 파 올릴 때에 <진토굿 파는 노래>가 불린다. 이 <진토굿 파는 노래>는 보기 드문 장례의식요로서 주목할 만하다.

봉분이 반쯤 이루어졌을 때 달구질을 하면서 <달구 노래>를 부른다.

---

30) 현용준, 《민속사진집 靈》, 도서출판 각, 2004, 138쪽.

역군들은 뱅뱅 돌아가며 괭이자루 따위로 봉분을 다지면서 후렴을 받는다. 성분한 다음 떼를 입히는데 제주도의 묏자리가 보통 경작지에 위치하므로 떼를 소용될 만큼 마련해 오는 일도 힘겨운 역사다.

장소에 따라 봉분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데 장소가 넓으면 봉분을 크게 한다. 관이 들어갈 만큼 넓이로 파서 관을 넣고 관의 가로 세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이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흙을 쌓아올리는데 직경 길이가 최하 6자, 크면 8자 정도를 했다. 높이는 1m정도인데 크기에 맞춰 높이며, 너무 높으면 경사가 져서 파손되기 쉽다. 땅 깊이는 1m 정도 파는데 보통 두 자 정도 파면 밑에 찰흙이 나온다. 시체에는 찰흙이 좋다고 해서 찰흙이 나오면 거기부터 관이 들어갈 곳을 만든다.

하관을 하고 하관제를 지내고 개판을 덮는다. 하관제는 노제와는 달리 메와 갱, 과일, 채소, 해어, 적, 떡 등을 올린다. 상주는 횡배이며 단



<사진 7> 개판 덮는 장면

작으로 한다.

개판은 상하로 하나씩 덮어가다가 마주치기 전에 가운데 하나만 남겨두고 상주, 며느리, 딸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으로 권잔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개판을 덮으면 봉분을 만들기 시작한다.

둥근 형태가 되었다고 봉분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뒤가 가오리연처럼 길쭉해지도록 만든다. 이를 용미제절을 뺀다고 한다. 매장 후에는 집에 와서 초우제를 지낸다. 초우제는 관을 모셔둔 방향에서 봉분 100보 밖에서 지내고 여유 있으면 집에 와서 지낸다. 초우제 음식은 제사지낼 때와 똑 같다. 다만 아직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대상이 끝날 때까지는 메와 갱은 살아있는 사람이 먹듯이 갱은 오른쪽, 메는 왼쪽에 놓는다. 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사이기에 횡배가 아니라 종배로 3헌이 서서 배례를 한다. 그 이후로, 재우제, 삼우제, 삭망제, 소상, 대상, 담제를 지낸다.



<사진 8> 성분중기

화단 즉 상여를 빌려주는 계는 없다. 다만 겹상이 나는 경우, 이웃한 타골에 가서 임대료를 내고 빌어온다.

제주도 분묘의 특색은 묘 둘레를 돌담으로 네모로 두른 <산담>이다. 장례 당일 <산담>까지 모두 쌓으려면 산역에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장지가 원거리일 경우에는 상둣군을 두<골>〔葬禮組〕을 동원해야 할 경우도 있다. <산담>을 쌓는 일을 맡아 치르면서 계의 기금을 늘리는 계조직인 이른바 <산담제>(산담접)도 종전에는 마을마다 조직돼 있었다.

산담은 겹담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산담은 '통째로 얼마' 하여 맡겼다. 그것은 산담의 높이, 폭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담을 쌓는 일을 하면 당시 일당은 서속쌀 1말, 보리쌀 1말 정도이다. 초기버섯을 기르는 일을 하는 '센도'라 하는 총책임자 하루 일당이 백미 1말, 그 다음 일 잘한다는 사람이 보리쌀 1말 정도였다. 1940년대에 10전이니 찐빵을 10개 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서숙 쌀 1말이면 7Kg정도 된다. 이 정도면 장정이 1주일 정도 먹을 식량이다. 돌을 쌓는 사람보다 돌을 깨는 사람은 수고비를 더 주었다.

이날 장지에서의 점심 식사는, 예전에는 떡으로 했었다. 이 떡은 친척들이 해 온 떡이다. 이 부조의 떡을 '고적'이라 한다. 고적은 의무적이어서 부계 혈족의 8촌까지의 近親, 外從兄弟, 姑從兄弟, 姨從兄弟까지의 친척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 범위의 친척들은 그 촌수에 따라 메밀쌀 2말 어치 또는 1말 어치의 떡을 만들어 여인들이 장지에 지고 가 떡의 개수를 일일이 세면서 바치고 장사가 끝나야 돌아온다. 장사가 끝나면 장사 일이 끝났음을 토지신에게 고하여 加護를 기원하는 토신제를 지낸다. 이를 흔히 畢役土神祭라 한다.[31]

---

31) 현용준, 위의 책, 590쪽.

初喪畢役山祭祝

維歲次 云云 幼學某姓名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某公(某封某氏) 窆玆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淸酌庶羞 祇薦于神 尙

饗

<이제(올해) 운운(00년 00월 00일에)

유생 00는 감히 토지신께 고하옵니다.

이제 이곳에 00의 분묘(유택)를 완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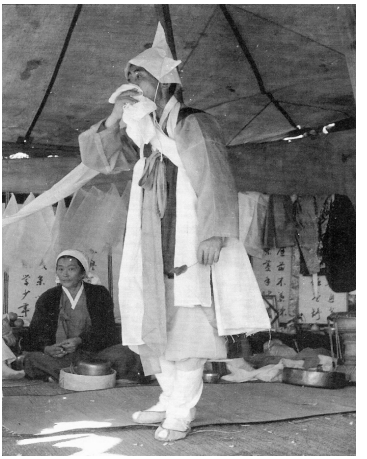
신께서 항상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훗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기 바라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차려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장사날 밤에는 심방(무격)을 빌어서 귀양풀이라는 무속의례를 하는 집이 많다. 저승을 차지하고 있는 시왕과 그 사자인 차사를 청하여 사자를 저승까지 곱게 인도해 주도록 비는 의례다. 이것은 유교식 제례와 어긋나는 것이지만 무속신앙의 강한 전통 때문에 영혼의 저승 안착을 위하여 굿을 하는 것이다. 남상제는 관여하지 않고 여상제가 심방을 빌어와 주관하여 행한다.



<사진 9> 영게울림 (제주시 용담동, 1970)[32]

32) 현용준, 위의 책, 433쪽.

9. 우제(虞祭)

봉분이 완성되면 장지에서 초우제를 지낸다. 병풍을 쳐서 設床하여 상제들이 곡을 하면서 일포제 때와 같이 제물을 진설하고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揷匙, 添酌, 獻茶, 雜食의 순으로 행한다. 다만 독축을 할 때는 哭을 중지한다.

장례 다음 初柔日(乙, 丁, 巳, 辛, 癸日) 아침에는 再虞祭를 지내고 再虞翌日(剛日 : 甲, 丙, 茂, 庚, 壬日)에는 三虞祭를 지내는데 보통은 葬日 다음날 아침에 재우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삼우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의 방식은 초우제와 같다. 초우, 재우, 삼우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孤子(母喪엔 哀子 俱亡엔 孤哀子, 承重엔 孤孫, 哀孫, 孤哀孫) 某(弟以下는 不名) 敢昭告于(妻엔 去 敢字, 弟以下但云告于)

顯考(母엔 顯妣, 承重엔 懸祖考或顯祖妣, 妻에는 亡室) 訓長府君(某封某氏) 日月不居 奄及初虞(再虞 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告子엔 悲念相屬에 心焉如燬오, 告弟엔 悲痛猥至에 情何可處오, 告兄엔 悲痛無已 至情如何오, 告妻엔 悲悼酸告 不自勝堪) 謹以(妻弟以下엔 玆以) 淸酌庶羞 哀薦(傍親엔 薦此 妻弟 以下엔 陳此라) 祫事(再虞엔 虞事, 三虞엔 成事) 尙

饗

<초우(재우·삼우)제 축

이제(올해) 병인년 삼월 계미 15일에 아들 ○○는 삼가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세월은 머물지 않아 어느덧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에 편할 때가 없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애통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제사의 례를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10. 상식(上食)

상식은 고인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완전한 죽음이란 고인의 영혼이 저승에 이르러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 자신이 가야할 곳으로 판결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고 하겠다. 이는 심방들이 강림차사본풀이에서 이승 1년은 저승 하루라는 것과 관련 있다. 상식 기간이 임종 후부터 대상까지 만 2년간 하는 것으로 보아 저승에 가는 기간과 같다고 하겠다.

장례가 끝난 후 고인이 쓰던 방에 제상을 차려 생전과 꼭 같이 하루 삼시 식사를 올린다. 식사가 끝날 만한 시간이 되면 숭늉을 올려 밥을 내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올린다. 해가 지면 촛불을 키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무렵이 되면 불을 끈다. 방안에는 고인이 덮던 이불을 상시 정돈하여 넣어두고 또 평소 입는 의류도 걸어둔다. 문 밖에는 고인이 평소 신던 신발을 놓되 아침이 되면 밖으로 돌려놓고 저녁이 되면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식사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 먹듯이 오른쪽에는 국을, 왼쪽에는 밥을 올린다. 살아있는 사람과 꼭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11. 삭망제

삭망제는 초하루에 행하는 삭제와 보름에 행하는 망제를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1달에 공식적으로 망인과 만나는 날이 2회이며, 이는 달이 기울고 차는 기간과 같다. 결국 달의 주기와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제물은 메, 갱, 떡류, 고기적, 메밀묵, 해어, 채류, 과류 등을 진설하여 상제들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제를 지낸다. 우제 때와 같은데 독축만 없다. 일반적으로 삭망제에 복친들이 모두 참가하는데 대상 직전의 삭망제는 막朔祭(마지막 삭제)라 해서 삭망제로서는 최후의 제이므로 특히 제물을 잘 차리며 평상시 참례하지 못하던 복친들도 모두 참례한다. 삭제는 아들 상제들이 돌려가며 차리는 습속이 있고 딸 상제도 성의로 한 번씩 차리기도 한다.

12. 졸곡

삼우제 후 백일 이내에 강일(剛日)을 택하여 졸곡제를 지낸다. 삭망제에서 행하던 곡을 비로소 그치는 제의인 셈이다. 절차는 우제와 같으며 축문은 집사가 헌관의 좌측에서 고한다. 졸곡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卒哭 祝文
維歲次 云云 孤子某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某封某氏)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아들 ○○는 삼가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세월은 머물지 않아 어언 졸곡이 되었나이다.
밤낮으로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에 편할 때가 없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올려 슬픈 마음으로 성사의 예를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13. 대 · 소상

고인이 돌아가시고 지내는 상례는 초상이다. 그로부터 1년 째 기일에는 소상을 지내고, 2년째 기일에는 대상을 지낸다. 이 기간은 고인의 영혼이 저승에 안착하지 못하였기에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그러한 근거는 제물을 올릴 때 살아있을 때와 같이 국은 오른쪽, 밥은 왼쪽에 올리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준비는 기일 3·4일 전부터 근친들이 모여 떡 가루를 빻아 떡을 만들과 돼지를 잡는 등 부산하다. 대·소상 날 조객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날에는 두 번 다 초상 때 신세를 진 이, 곧 염습해 준 이, 토신제를 지내 준 제관, 관을 짜 준 목수, 묘지를 선정해 준 지관, 묘지의 지주들에게 공정(功呈)이라 해서 떡과 돼지고기적 등을 채롱에 가득 넣고 술 한 병을 붙여 사례로 보낸다. 이것을 '반테운다'고 해서 동네 각호에 떡을 한 반기씩 나눈다.

소상, 대상날 당일은 아침 일찍부터 친족들이 모여 제상을 크게 차려 제물을 올리고 조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상제는 상복을 갖추어 입어 배석 옆에 나란히 상장을 짚고 서서 곡을 하며 조객을 맞이하고, 여상제들은 상복을 입어 조객 접대의 지휘를 한다. 이날 아침 설상이 끝나면 아침제를 지내고 낮에는 점심제를 지내고 저녁에는 저녁제를 지낸다. 독축이 없이 상제들이 헌작을 하고 유식(侑食)만을 하는 것이다. 조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온다. 남자 조객은 향전을 영전에 올려 재배하고 이어서 옆에 나란히 서서 곡을 하는 남자 상제들과 한번 배례를 나눈 후 객석에 안내받아 음식대접을 받고 돌아간다. 음식은 술, 돼지고기, 떡, 밥이나 국수 등이다. 여자 조객은 영전에 배례하는 일이 없이 여상제를 만나 부조(돈이나 빵)을 넘기고서 여자 조객석에서 음식 대접을 받는다.

근래는 부조가 주로 돈이나 빵, 쌀 등으로 바뀌어졌지만, 1950-60년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남자조객은 '紙燭'이라 해서 백지나 양촉을 가져와 영전에 올리고 엎드려 '어이 어이' 하고 잠시 곡을 하여 물러났다.

소상 때나 대상 때나 자시가 되면 제를 지낸다. 기일이 되면 곧 제를 지내는 의미가 있다. 제식은 삼헌삼작의 본식으로 지내니, 즉 參神, 降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揷匙, 添酌, 獻茶, 雜食, 辭神(大喪에만 辭神을 함)의 순서이다.

소상 제를 지내기 전 술해(戌亥) 시에 齋衰 이하의 복친는 곡을 하며 재배하여 복을 벗는다. 이때 남상제들은 巾帶의 띠만을 벗는다. 대상 때 戌亥時에는 상제들이 같은 방식으로 복을 벗는데, 상제들이 곡을 하며 분향, 헌작하고 재배하여 엎드려 있으면 복친 중 연상자가 상제의 巾帶, 頭巾, 喪服 순으로 벗겨 준다. 그리고 남상제의 벗은 두건은 윗부분을 접어주어 복두건으로 만들고, 대상 제의 때에 써서 행제한다. 또 여상제나 근친부인들이 복의 일종으로 머리에 땋아오던 헝겊오리 곧 '머리창'도 대상 때까지 쓰던 것은 소상날 밤 술해시, 소상에서 대상까지 쓰던 것은 대상날 밤 술해시에 제를 지내기 전에 소각한다. 그리고 만장이나 고인이 생전 애용하던 의복 등을 불사르고 대상제가 끝나면 만 2년간 모시고 있던 영혼상을 철상한다. 이것으로 상을 끝내고 평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소상 때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33]

大小喪 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孝子 某(名)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 日月不居 奄及小喪(大喪)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常事(大喪엔 祥事)尙

饗

33) 현용준, 위의 책, 592-594쪽.

<소(대)상 축

이제(올해) 병인년 삼월 계미삭 십오일 정유에 아들 ○○는 삼가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세월은 머물지 않아 어느덧 소상이 되었나이다.
밤낮으로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에 편할 때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올려 슬픈 마음으로 소상제의 예를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대상이 지나면 주부가 주관하여 심방(무격)을 빌어 十王맞이라는 굿을 하는 집안이 꽤 있다. 이 굿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말고 좋은 곳으로 보내 주십사'고 저승의 신 시왕(十王)에게 비는 굿이다. 이때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치워 닦아 고이 보내는 의식을 한다. 이것은 儒敎祭禮와 어긋나는 것이지만 전통적인 무속의 他界觀 靈魂觀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토속적 喪禮行事의 잔존인 것이다.

14. 담제

대상 후 3개월 안에 정일이나 해일에 담제를 지낸다. 이때 상제들은 복두건만 쓴다.

제물은 일반 제사 때와 같이 차리고 祭法도 대소상 때와 같이 삼헌삼작의 본식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祭와 틀린 점은 곡이 없고 제물의 진설방식이 다른 점이다. 제물의 진설방식에 있어 대상 때까지는 메와 갱을 살아있는 사람의 밥상에 올리듯이 올린다. 즉 식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 메를, 왼쪽에 갱(羹)을 올린다. 또 제를 지

내는 방식에도 다름이 있으니, 대상 때까지는 헌관이 헌작을 하면 집사가 숟가락을 갱에 걸치고 젓가락을 채소류에 걸치되, 신위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젓가락의 뿌리 쪽을 오른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걸치는데, 담제부터는 숟가락을 갱에 걸치는 일이 없고 젓가락도 반대 방향으로 걸친다. 고기 적이나 해어를 올리는 방향도 대상 때까지와는 반대로 한다. 곧 대상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식사법 그대로 진설이나 행제를 하는데 담제부터는 그것이 반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상 때까지의 사령은 살아있을 때와 같이 간주하고 담제부터는 비로소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있다. 아마 담제부터는 영혼이 저승에 안착한다는 관념의 표현일 것이다.

담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禫祭祝文
維歲次 云云 孝子 某敢昭告于
顯某親某封某氏 日月不居 奄及禫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禫事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아들 ○○는 삼가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세월은 머물지 않아 어느덧 담제일이 되었나이다.
밤낮으로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에 편할 때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올려 슬픈 마음으로 담제의 예를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15. 가장(假葬)

사람이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일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면 정상적으로는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지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명절이 닥치거나 동네 사람이 도울 없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가매장을 해 둔다. 이를 토롱이라 한다.

가매장하는 방식은 염습을 하고 입관한 후 마을 주변의 밭이나 적당한 곳에 묘혈을 파고 밑에 푸른 소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에 관을 놓는다. 다시 그 위에 푸른 소나무 가지를 덮어 흙을 덮고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띠(ᄂᆞ람지)로 둘러 덮어둔다. 가매장하는 기간이 오랠 것 같으면 띠(ᄂᆞ람지)를 둘러 덮지 않고 아예 흙을 올려 봉분을 만드는데 용미와 제절(階節)을 빼지 않는다. 물론 풍수지리설에 맞게 방향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산을 하여 장지에 장사를 지낸다 해도 정식 장례를 지낼 날짜를 잡지 못할 경우는 정식 장례를 지내듯 매장하여 봉분을 쌓되 용미 제절을 만들지 않는다. 이 경우는 나중에 용미, 제절을 만들 날짜를 택일하여 成墳을 완성함으로써 정식 장례가 되게 한다.

가매장, 곧 토롱을 했을 경우는 혼백 명정 등을 묻지 않고 방안에 혼백상을 놓아 그 속에 모셔서 매일 상식을 한다. 식사를 올릴 때는 혼백상자의 뚜껑을 열고, 식사를 내릴 때는 그 뚜껑을 닫는다. 그래서 묘지가 결정되어 정식 장례를 지낼 때에 그 魂魄과 銘旌을 棺 위에 놓아 묻는다. 정식 장례를 지낼 때까지는 토신제나 우제를 하지 않는다.

정식 장례식으로 매장을 했어도 택일 관계로 용미 제절을 만들지 않을 때도 토신제나 우제를 하지 않고 용미 제절을 만들 때에야 토신제를

지내며 그 후 정식으로 초우, 재우, 삼우제를 지낸다.

이 경우 토신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初喪權葬後山祭祝文

維歲次 云云 幼學 某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 某官某公名(妣位면 某封某氏) 前日營宅之時 已有非常之故 未遑遍先告 不勝恐懼 今卜吉辰 將加 封築 伏願神后 厚施至德 特恕愆咎 庶垂陰騭 俾無後艱 永保貞吉 謹以 特幣 醴齊粱盛 庶品式陳 祇薦于
神尙
饗

그리고 묘 앞에서 지내는 祭(몸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 伏以 已營宅兆之時 玆有非常之故 未成禮事 不勝哀懼 今以吉辰 將加封築 伏惟
尊靈 不震不驚 謹以 淸酌庶羞 用伸虔告謹告

그리고 龍尾, 제절(階節)을 만들어 봉분을 완성시킨 후의 토신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幼學 某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某公 禮事俱畢 墓儀已成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 祇薦于神 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신께 고하옵니다.
이곳 00공의 일을 마치고 묘의 석물들도 갖추었사옵니다.

신께서 항상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훗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기 바라옵니다.
삼가 주과를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이때의 초우제 축문은 약간 다르니, 다음과 같다.[34]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顯親某封某氏) 修營事畢 乃行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淸酌庶羞 哀薦祫事 尙
饗

<이제(올해) 운운(○○년 ○○월 ○○일에) 유생 ○○는 고하옵니다.
묘자리를 정리하고 일을 마치고 초우제를 행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에 편하지 않아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차려 애통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신께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16. 개장(改葬)

정식으로 장사를 지낸 후에 혹 집안에 불운이 계속되어, 그것이 묏자리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묏자리를 좋은 곳으로 골라 移葬한다. 이장하는 일을 '遷移'라고 한다.

이장을 하려면 초상 때 토신제 등 제를 지낼 때 쓰인 것과 같은 제물과 이장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종을 준비하여 묘소로 가서 먼저 토신제부터 지낸다. 토신제의 제물이나 행제방식은 초상 때의 토신제와 같은

34) 현용준, 위의 책, 596-598쪽

데, 묘소의 後左便에 陳設하여 지낸다.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移墓時啓墓所 山祭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祭未朔 十五日 丁酉 幼學 某敢昭告于
土地之神 玆有某官某公 卜宅玆地 恐有他患 將啓窆遷于他所 謹以 淸酌脯醢
祇薦于
神 神其佑之尙
饗

<이제(올해) 병인년 삼월 계미 15일 정유에 유생 ○○는 삼가 토지신께 고하옵니다.
○○공의 유택을 여기에 정했는데 다른 우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실 것이니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삼가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토신제가 끝나면 다음은 묘소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祭(몸제)를 지내는데, 제물은 일반제례와 같고, 祭는 單獻單酌式으로 한다.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移墓時啓墓所告祝文
維歲次 云云 孝孫 某 敢昭告于
顯祖考訓長府君 將于玆地 歲月滋久 體魄不寧 今將改葬(合窆則 改葬于以下十六字 爲將以某月某日 合封于母親某官府君 或某封某氏之墓 今方啓墓) 伏惟 尊靈(妻弟以下는 但云惟靈) 不震不驚

<이제(올해) ○○년 ○월 ○○일에 효손 ○○는 삼가 고하옵니다.

○○공의 유택을 여기에 정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체백이 편치 못하여 이제는 개장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소서.>

이와 같이 제가 끝나면 왼새끼 줄을 묘소 주위에 둘러매어 놓고 防邪經을 묘소 주위를 왼쪽으로 걸어 돌면서 읽는다. 즉 [영신안부동 불진불경 계토빈(혹계묘) 감고(靈神安不動 不震不驚 啓土殯(或啓墓) 敢告)]라고 3번 고하고 [영신안부동 불령불경 암치라 사파가(靈神安不動 不靈不驚 唵哆囉 娑婆訶)]라고 21번 읽는다. 그리고 오곡의 씨를 뿌리며 [암팔만사천 사동신 보호영신 사파가(唵八萬四千四動神 保護靈神 娑婆訶)]라고 7바퀴를 돌면서 읽은 다음, 五方神將軍 버드나무 가지를 꽂는다. 이것은 버드나무 다섯 가지를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깎아 東方靑帝將軍, 西方白帝將軍, 南方赤帝將軍, 北方黑帝將軍, 中央黃帝將軍이라고 朱砂로 쓴 것인데, 이것을 묘의 사방에 꽂고 중앙황제장군 나뭇가지를 묘의 중앙에 꽂는다. 이렇게 한 후 묘소를 파기 시작하는데, 봄에는 남쪽부터, 여름에는 북쪽부터, 가을에는 동쪽부터, 겨울에는 서쪽부터 먼저 파기 시작한다.

정식장례를 지내어 얼마 없이 하는 이장의 경우는 관이 아직 썩지 아니했으니 관 뚜껑을 열어 시신을 대면하기만 하여 신묘지로 옮기지만, 세월이 흘러 관이 썩어 없고, 뼈만 남았을 경우는 七星板을 이용한다. 즉, 체백을 놓아 덮어질 정도로 남게 창호지를 붙인 칠성판 위에 뼈를 옮겨놓고, 설명주로 잘 싸서 창호지를 접어 덮은 후, 배 1필로 칠성판 상하 길이로 싸서 그 끝을 실로 주워 12묶음으로 가로 묶고, 벼짚관 위에 칠성판을 올려 놓아 짚 끝을 덮어 이엉처럼 엮어 옮긴다.

뼈를 칠성판 위에 옮겨 놓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묘를 파헤쳐 뼈가 나오면 소주를 뿜어서 더러움을 씻은 후, 부드러운 댓가지(竹針)를 뼈의 밑으로 머리에서 발 끝가지 빈틈없이 가로질러서 그 대를 한

꺼번에 들어 올리면 뼈가 완전히 들어 올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뼈를 칠성판 위에 옮기고 대를 뽑아 버리면 완전히 옮겨 놓여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버드나무를 칼같이 만들어 그것으로 각 부분의 뼈를 하나하나 흙이나 더러운 것을 긁어내며 차례대로 주워내어 칠성판 위에 차례대로 벌여 놓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여 시신을 광중 자리에서 옮길 때는 [금이길진천구감고(今以吉辰遷柩敢告)]라 고하고 백보 밖으로 옮겨다 놓고, 거기에서 성복제를 지내어 두건을 쓰고 상복을 입는다. 成服祭는 初喪 때의 성복제와 같다.

성복제가 끝나면 시신을 喪輿 또는 임시 만든 들것(돌채라 함)에 옮길 때는 [금천구취여감고(今遷柩就轝敢告)]라 고하고 新葬地로 運喪하며 출발할 때는 [령이재가왕즉신택(靈輀載駕往卽新宅)]이라 고하고 운상하여 간다.

한편 파 버린 舊墓地의 壙中을 메울 때는 계란 1개, 붉은 팥 1合, 무쇠조각 21개를 묻어 흙을 덮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한 가지 꽂아 살아나게 한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암천천평화, 지지평화, 인인평화, 귀귀멸멸, 사파가(唵天天平和, 地地平和, 人人平和, 鬼鬼滅滅, 娑婆訶)]라고 여러 차례 읽는다.

신묘지에서는 운상이 도착하기 전에 또한 토신제를 지낸다. 제법은 초상 때와 같으며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移墓時葬所山祭祝文

維歲次 云云 幼學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 孺人羅州金氏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淸酌脯醯 祇薦于 神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 신께 고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인나주김씨 유택이 좋지 못하여 여기로 다시 모시려 하오니
신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차려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려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토신제가 끝나면 초상 때처럼 개광을 하고 운상이 도착하면 초상 때처럼 하관을 하고, 개판을 덮고, 하관제를 지내고, 봉분을 만든다.

성분이 끝나면 소위 畢役土神祭를 초상 때처럼 지낸다.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移墓時葬所事畢山祭祝文
維歲次 云云 幼學 某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某公 建玆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淸酌脯醢 祗薦于 神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 신께 고하옵니다.
이제 ○○공의 무덤을 이곳에 정하였사오니 신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시
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차려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려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그리고 일이 전부 끝나 돌아올 때는 묘지에서 초상 때의 초우제처럼 우제를 지내는데,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移墓畢墓時 墓前虞祭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孝孫 某 敢昭告于
顯祖考訓長府君 新改幽宅 禮畢於虞 夙夜靡寧 啼號罔極 謹以 淸酌庶羞 祗薦

虞事尙
饗

<이제 병인년 삼월 계미삭 십오일 정유에 효손 ○○는 삼가 할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새로 묘지를 고치고 일을 마쳐 우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맘이 편치 못하여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우제의 예를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17. 치산

장사를 지내고 봉분을 다 만들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뱅 돌아가며 목장지가 많으니 어디를 가나 마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본래 우마를 방목했기에 목초가 무성하였다. 게다가 이를 먹기 위해 들어간 마소에게 진드기는 골치 아픈 존재였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목장에 불을 넣어 진드기를 태워 죽이곤 하였다. 이러저러한 일로 보아 조상의 산소는 마소와 불로부터 구해 내야 했다. 그래서 산담을 두른다. 봉분을 가운데 두고 사각형 모양으로 두르며, 그 폭은 집안에 여유에 달렸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묘소에 비석, 망주석, 석상 등을 세우고, 묘소가 오래되어 봉분이 허물어지게 되면 흙을 쌓아 올려 묘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럴 때마다 각각 제를 올린다.

첫째, 산담을 쌓을 때는 택일을 하고 일꾼을 빌어 석재 준비를 한다. 또는 산담계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가입하여 계원으로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먼저 전날 제물을 준비하고 당일에는 묘소에 가서 토신제를 지낸다. 묘의 좌측 후방에 제물을 진설하고 「土地之神位」라

는 지방을 써 붙여 단헌단작으로 지내는데 이때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築壙時 山祭祝文

維歲次 丙寅 丁月 甲申朔 十日日 甲午 幼學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 某官某公 旣營宅兆 墓儀未具今卜吉辰 葬築塋域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酒果 恭伸奠獻 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 신께 고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공 무덤을 이제 완성하고 석물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제 길일을 잡아 묘역을 구축하오니 신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차려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히 신께 올려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토신제가 끝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主孫이 單獻單酌으로 산담을 쌓게 되었음을 고하는 제를 지내는데,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孤子(孝子 孝孫)某 敢昭告于

顯母親某官府君 伏以 旣營宅兆 墓儀未具 今以吉辰 將築塋域 伏惟尊靈 不震不驚 謹以 淸酌庶羞 用伸 虔告 謹告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아들 ○○는 감히 어머님께 고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무덤을 이제 완성하고 석물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제 길일을 잡아 묘역을 구축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고합니다.>

제가 끝나면 공사에 착수하여 묘 둘레에 전면부 폭 침척 2척 반 정도

후면부 2척 정도의 담장을 사각형으로 쌓는다. 겹담장으로 큰 돌로 쌓아 사이에 작은 돌로 메꾸는 방식으로 한다. 담장에는 신문이라 하여 사령의 출입구를 터 놓는데 여묘에는 우측에, 남묘에는 좌측에 터 놓는다. 간혹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산담을 넘어 갈 수 있게 돌계단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남좌여우 사상의 표현이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묘 앞에 제물을 차려 사령을 위안하는 제(몸제)를 주손이 단헌단작으로 지내는데,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顯母親某官府君 今以 旣築塋域 墓儀以成 伏惟尊靈 永世是寧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아들 ○○는 감히 어머님께 고하옵니다.
이제 무덤을 완성하고 석물을 갖추었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영원토록 편안히 계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공손히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산담을 쌓는데도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외줄기 담장으로 묘 주위를 둥그렇게 쌓아 놓는 수도 있다. 이 산담을 '토롱담'이라 한다. 가매장을 토롱이라 하는 것으로 보면, 정식이 아닌 임시라는 의미인 셈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토롱담을 정식 사각형의 산담으로 바꾸어 쌓을 때는 먼저 다음과 같은 축문을 고하여 토신제를 지낸다.

圓墻更築 築墻時 山祭祝文

維歲次 云云 幼學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某公之墓 儀物未具 今將修治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 祇薦于神 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 신께 고하옵니다.
○○공의 묘에 석물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제 정리하고 갖추고자 하니
신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차려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려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토신제가 끝나면 묘소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산담을 쌓는 제를 지내는데 다음과 같은 축문을 고한다. 공사가 끝나 사령을 위안하는 제는 앞에서 설명한 산담 축조 때와 같다.

維歲次 云云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財力不逮 儀物多闕 玆築塋域 伏惟尊寧 不震不驚 永世是寧 謹以清酌庶羞 用伸虔告 謹告

<이제(올해) ○○년 ○○월 ○○일에 효자 ○○는 감히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석물을 많이 빠뜨렸사오나 여기에 무덤을 구축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오래 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차려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고합니다.>

둘째, 묘소에 비석, 망주석, 석인 등 석물을 세울 때에도 산담을 쌓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토신제를 지내는데, 축문은 다음과 같다.

墓所石物建竪時山祭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幼學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姓名 墓儀未俱 玆將祭臺 用衛神道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酒果 祇薦于神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신께 고하옵니다.
이제 ○○공의 석물을 준비하지 못하였사오나 제를 지낼 수 있게 하오니
묘의 길과 묘를 호위케 하시고
신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 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차려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다음 묘소 앞에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고하는 제를 지내는데,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 伏以 財力不逮 儀物多闕 玆將祭臺 伏惟
尊寧 不震不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석물을 많이 빠뜨렸사오나 여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제단을 만드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차려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고합니다.>

石物工事가 다 끝나면 다시 묘 앞에서 위안의 제를 지내는데,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 伏以 儀物多闕 今至有年 謹具祭臺 用衛墓道 伏惟 尊靈 是憑是安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이제(올해) ○○년 ○○월 ○○일에 효자 ○○는 감히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석물을 많이 빠뜨렸사오나 이제 해가 바뀌어 삼가 여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제단을 만드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여기에 의지하여 편안하소서
삼가 줄과 과일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고하옵니다.>

維歲次 云云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 伏以 儀物多闕 今至有年 謹具祭臺 用衛墓道 伏惟 尊靈 是憑是安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이제(올해) ○○년 ○○월 ○○일에 효자 ○○는 감히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석물을 많이 빠뜨렸사오나 이제 해가 바뀌어 삼가 여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제단을 만드오니 묘의 길과 묘를 호위케 하십시오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여기에 의지하여 편안하소서
삼가 줄과 과일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고하옵니다.>

마지막으로 봉분이 허물어졌을 때 흙을 덧대고 잔디를 입힐 때에도 산담을 쌓을 때와 같이 토신제를 지내는데,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改莎草前山祭祝文

維歲次 云云 幼學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某官姓名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 祇薦于神 尙
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유생 ○○는 감히 토지신께 고하옵니다.
이제 ○○공 무덤이 무너져 내려 가토하고 정리하고자 하오니
신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훗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소서
삼가 술과 과일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올려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다음에 묘 앞에서 묘의 수치를 고하는 제를 지내는데,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丙寅 正月 甲申朔 初十日 癸巳 孝子 某 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之墓 伏以 封築不謹 歲久頹圮 今以吉辰 將加修葺 伏惟尊靈 勿震勿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이제(올해) ○○년 ○○월 ○○일에 효자 ○○는 감히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이제 무덤이 무너져 내려 길일을 잡아 가토하고 떼를 입히고자 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삼가 술과 과일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히 알립니다.>

공사가 끝나면 역시 묘 앞에서 慰安의 祭를 지내는데,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云云 某 敢昭告于
顯考訓長府君 今以吉辰 改封幽宅 伏惟尊靈 永世是寧 謹以 酒果 恭伸尊獻 尙饗

<이제(올해) ○○년 ○○월 ○○일에 효자 ○○는 감히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이제 길일을 잡아 무덤을 고쳐 쌓았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오래 동안 여기서 편안하소서

삼가 술과 과일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히 올려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옵니다.>

18. 부조와 문상

장례 때 친족들은 원근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한다. 부조는 이러한 역할에 따라 부여된 의무이다. 그 의무를 어기면 친족들에게 크게 지탄받는다. <고적>이라 불리는 부조는 떡과 살로 나뉘는데, 떡은 메밀가루로 둥글넓적하게 만든다. 이것을 돌래떡이라 하는데 점차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여건에 맞게 준비하다보니 고적이 밀가루 빵으로 바뀌었다.

친족 중에 부고가 나면 부인들은 <고적>떡을 마련하고, 장사날에는 이것을 짊어지고 장지로 간다. 친족의 일이므로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가지 않을 수 없다. 장지에서는 원근에 따라 떡의 수효를 하나하나 세면서 접수한다. 장지에서 작업을 하다 점심 때가 되면 이 고적떡을 일꾼들에게 나누어준다. 부인들은 장지 구석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들의 반기떡을 받고 돌아간다. 떡 대신 쌀(대두 2되)로 <고적>을 하는 곳도 있었다.

일가 친족이 고적을 하는 반면, 가까운 이웃들은 초 한 봉이나 제사에 쓰도록 올리는 제주로써 조의했으나 이것 역시 생활이 나아지면서 조의금으로 대체되었다. 예전으로 치올라갈수록 조문은 번거로와서 이름난 분의 상례 때엔 지면이 없더라도 조문하는 경향이 짙었다.

초상 때의 부조와 아들 딸 상제들의 장례시의 분담에 대해서는 최재석이 정리한 글이 있다.[35] 다만 이것은 남제주군 성산읍의 한 마을에서 조사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

35)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158-160쪽.

장례시의 부조는 결혼시의 부조와 또 양상을 달리한다. 부조의 종류를 살펴보면 남자는 결혼시와 마찬가지로 술(소주)이나 현금으로 하는데 여자는 제물떡을 한다. 제물떡은 원칙적으로 친척이나 이웃을 불문하고 여자 문상객이 여자 상주에게 하는 부조이며 제물떡이 되지 않을 때는 쌀, 현금의 순으로 한다.

장례시 부조는 그 접수에 있어서도 결혼시와는 다르다. 즉 부조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상주 한 사람에게 부조를 하는데 대개 향상에 봉투를 얹는다. 그러나 부조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여상주(딸, 며느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조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상주가 많으면 제물떡 상자를 한 짐 짊어지고 가도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한다. 쌀이나 현금으로 부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는 여론이 있어 근래에는 남녀로만 구분해서 부조를 접수하고 개별접수를 지양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부조는 문상객이 돌아간 후 상주들이 모여앉아 집계해서 분배한다. 부조금의 분배는 각 상주가 거의 비슷하게 나누지만, 장례경비를 분담하지 않은 상주에게는 적게 할당되고 미혼인 경우에는 용돈 정도만 받는다. 분배받은 부조금은 각 상주가 그냥 가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례와 삭제 등에 맏상주가 더욱 수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맏상주에게 주기도 한다. 같은 부락에 살면 삭제에 음식 등 경비를 부담하기도 하고 일을 거들기도 하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딸이나 아들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대개 분배받은 부조를 맏상주에게 준다.

부조의 분배에서 장차의 구별이나 남녀의 차등이 심하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장례경비를 분배하는 데도 이들간에 큰 차이가 없다. 즉 아들딸의 수에 따라서 장례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주로 중요한 음식 준비)를 적당히 분할해서 담당하는데, 대체로 딸은 장례일의 조반과 점심식사를

책임진다.

3남 2녀일 경우에 장례비용을 사망자의 자녀가 분배한 가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장남 : 집에서 쓰는 것 일체, 장례일까지의 손님대접, 식사, 돼지고기, 술

○차남 : 피력(시루떡, 장례일 참여자에게 먹일 것), 술

○삼남 : 잔떡(제사용)

○장녀 : 조반(쌀, 반찬, 돼지고기, 국), 술

○차녀 : 점심(쌀, 반찬, 돼지고기, 국), 술

그런데 딸이 담당하는 식사는, 딸 시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상두꾼이나 친척들이 딸 집으로 가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식 준비, 운반, 접대, 음식 분배 등 일체의 시중도 딸의 시집가족들이 담당한다. 그러나 딸이 모두 같은 부락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딸이 인근 부락에 살고 있으며, 부락 내에 있는 딸이 조반을 준비하고 인근 부락에 있는 딸이 점심을 준비한다. 점심은 인근 부락 딸의 시가에서 직접 요리해 가지고 마차로 싣고 장지로 간다. 이때 딸의 시가가족들이 같이 따라와서 점심식사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지만, 상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전혀 거들지 아니한다. 조반을 담당할 딸댁에서는, 점심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온 딸 시댁가족들이 조반을 먹지 않았으므로 그 몫을 따로 장지에 운반해다가 대접한다.

출가한 딸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장례시 부조의 접수와 분배 및 장례비용의 분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육지의 전통적 가족과는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현상의 하나이다.

평소 친정 가는 일은 거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한 부락에 있는 경우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상황도 시집을 감으로써 출가외인이라 하여 친정과 단절시키는 육지와는 대단히 다르다.

19. 장례에 따른 금기

삶과 죽음을 비교하여 밝음과 어둠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사고의 표현이므로 이승에 사는 우리들은 오른 손으로 밥을 먹고, 저승에 간 조상은 왼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인식한 것이다. 즉 이승은 정상이요, 저승은 비정상인데 그 비정상이 정상적인 능력 이하가 아닌 그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두려워한다. 장례에 따른 금기사항들은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 종명 직후 온돌 아궁이를 잘 막고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만약 온돌 속에 족제비, 또는 고양이가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궁이에 불이 있다면 시신은 쉽게 부패할 것이다. 따라서 금기담을 통해 장례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하관할 때 관 가까이 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조상에게 정성을 바쳐야 함을 말한다.

○ 외출했다가 사망한 자의 시신은 그대로 집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어디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또는 어서 들어오라 등 산 사람을 맞아들이듯 대화한 다음에 입실시켜야 한다. 영혼은 떠돌다가 아무 신체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 본다.

○ 수의를 만들 때에 바느질하면서 실매듭을 맺어서는 안 된다.(이승

에서 맺힌 원한이 저승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실매듭이 이승에서 맺힌 원한으로 보는 유감주술적 사고의 표현이다.

○ 마을에 마마가 유행할 때엔 고복을 해서는 안 되며 곡소리를 내어서도 안 된다. 마을에 천연두가 유행할 때는 유행병이므로 어느 한 집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호흡기 전염이니 곡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이에 대한 예방의 의미가 있다.

○ 시신을 향탕으로 씻은 다음에 그 물을 삼살방으로 던지면 안 된다.

○ 출구를 할 때에 관을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치게 해서는 안 된다. 조상에 대한 공경심의 표현이라 본다.

○ 관 위에 덮는 이불은 좀 비뚤어지게 덮어야지 반듯하게 덮어서는 안 된다.

○ 장례를 마칠 때까지 상가에서 비질을 해서는 안 된다. 비질을 하는 것은 복을 모은 것이거나 밖으로 밀어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칠 때까지 비질하지 말라는 것은 몹시 애통하고 장례일에 바쁠텐데 한가롭게 청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라 본다.

○ 호열자로 병사한 자는 시신을 엎어서 매장해야지 그대로 매장해서는 안 된다.(예전에 호열자를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그 전염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풀이한다.) 호열자는 작은마누라라고 하는 존재이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큰마누라인 천연두와 작은마누라인 콜레라가 범접하여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유행병으로 인한 것인지 몰랐던 옛날은 신격의 조처로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부정적 신격이므로 콜레라에 죽은 시신은 엎어서 매장해야 한다. 그럴 경우 뒤집어 일어나는데 몹시 힘들기 때문이다.

○ 임부는 시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임산부는 조그만 놀라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니 몸조심하도록 하는 의미라 본다.

○ 동네에 초상났을 때 마을사람들은 성복전에 머리를 빗으면 안 된다.(흉사가 생긴다.)

○ 수의를 지을 때 바느질하다가 수의 속에 바늘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바늘이 상제의 몸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행상할 때 고인의 친척 묘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인사하는 뜻으로 상여를 좀 낮추었다가 가는데, 이를 <하매한다>고 일컫는다.) 고인이 친척 묘소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살아있는 자손이 조상의 묘소를 모른 척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예의를 지키는 것을 말함이다.

○ 시신을 보고나서 장독을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장맛이 변한다. 지난날에는 장을 담글 때 정성을 다하는 뜻으로 금줄(인줄)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 집안의 장맛은 그 집안의 음식맛을 말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장을 담글 때는 택일하여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하물며 장독을 열어볼 때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관 위로 칼을 넘기면 안 된다.(시신이 살아 일어선다.) 시신이 살아나면 좋은 일일 것이나 강림차사와 저승으로 간 영혼이 떠돌다가 시신에 들어와 일어서는 것은 불길하기 때문이다.

○ 장지에 다녀오고 나서 사흘 동안은 메주를 쑤거나 장독에 장 담그는 일을 서둘면 안 된다.

○ 장례를 치른 집에서 소상 전에 혼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그해에는 가장해 두었다가 그 이듬해에 정식장례를 치러야 한다.) 일단 장례를 치렀다면 몸을 더럽힌 것인데 기쁜일 즉 혼례를 치를 수 없다는 말이다.

20. 사또놀이[36]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또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장사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마을의 한 어른을 사또(또는 원님)로 선정하여 모셔들이고 나서 흥겹게 노는 놀이이다. 달리 원님놀이라고도 한다.

이 자료는 서귀포시 하효동에서 1984년 7월 10일에 행해졌던 사또놀이이다. 사또놀이는 제주도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것인 듯하나 전통적인 장사 치르기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자취를 감춰버린 민속놀이인데, 자료의 중요성 때문에 제주도 민속에 실린 자료를 전재하기로 한다. 오문복 저《豊川略史》'風俗'조에도 사또놀이와 비슷한 민속놀이가 '원님모시기'라 하여 소개되고 있다.

일명 '관가모심'이라고도 하다. 장례가 끝나면 덕망이 있고 영광된 일이나 행운이 있는 사람을 골의 원님으로 추대하여 급히 나뭇가지나 짚으로 관복과 삼모를 만들어 입히고 가마를 만들어 태워 모셔오다. 그 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동네사람들을 대접하고 밤새껏 놀고 헤어진다.

이 민속놀이는 장례와 관련 깊은 놀이라는 데서 의미가 깊다.

1) 하효마을의 장례조직

이 마을의 장례조직은 동골과 섯골 둘이 있다. 골마다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여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관리한다. 자료의 사또놀이는 동골 장례조직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2) 놀이의 기회

---

36) 제주도,《제주의 민속》Ⅰ(장례편), 1993, 364-369쪽.

액상이 났을 때는 놀이를 삼간다. 반드시 오래 살고 복력이 좋은 사람의 장례에서만 행해진다. 그것도 여자보다 남자어르신 장례 때가 좋다.

하효마을에서 조사된 자료의 경우, 망인은 하효마을 동골의 노인으로 골 안에서는 큰 어른으로 모셔져 왔다. 가정도 유복했고, 마을의 행정을 책임진 일도 있었다. 특히 망인은 돌아가기 전, 동골의 한 장례 때에 사또놀이의 주인공이기도 했었다.

동네의 큰어르신이 돌아가자 동네사람들은 모두 장지에 참여했다. 무려 150여 가호마다 한 사람씩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 큰어른이었던 만큼 트럭으로 어른을 모실 수 없다면서 동네 청년들이 직접 상여에 모셔 운구했다.

3) 사또 선임

동골 청년들은 장지에서 사또놀이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기회가 거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사또 주인공 대상으로 서너분이 거론되다가, 동골의 이씨(남, 51)가 선임되었다.

이씨는 이 골 출신으로 그 당시 제주도의 명문인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줄곧 이 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성품이 올곧아 농협 감사를 여러 해 동안 역임해 보기도 했다. 또 골 청장년이나 동료들과 함께 낚시회를 조직, 그 회장 일을 맡기도 했다. 가정살림도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라 사또놀이의 주인공이 되더라도 집에서 잔치를 벌일 만한 여유가 있는 편이다.

4) 준비

놀이 준비는 급하게 이루어진다. 장지에서는 사또차림을 하고, 또 집에서는 사또를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상두꾼 한 사람이 마을로 뛰

어 내려와서 누구가 사또놀이의 주인공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리고, 황급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서둔다.

장지에서의 준비는 모두 산야에서 마련한다. 급히 나무를 잘라내어 '퉥게(獨轎)'를 만든다. 평교자처럼 생긴 것으로 사또를 모시고 올 것이다.

그리고 사또놀이 주인공인 사또에게 입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만드나. 자귀나무꽃과 칡넝쿨을 얽어 만든 모자는 사또가 썼던 사모가 되고, 띠를 베어 엮어 묶어맨 것은 벼슬아치의 公服인 관디가 된다. 소나무가지를 잘라내어 솔방울만 뎅그랑이 매달아놓고 담뱃대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을 놀이 주인공에게 입힌다. 그리고 주인공의 얼굴에 숯검정을 칠한다. 이제 놀이의 주인공은 예사사람이 아닌 사또가 된다.

사또의 집에서는 돼지를 잡고 술판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풍악을 울릴 장구는 물론 스피커도 장치한다. 그리고 사또가 받을 상차림 준비도 해야 한다. 돼지머리·케이크·수박·오이·자두·토마토·밀감·꽃다발까지 사또의 상에 올려진다.

5) 사또 행차

평교자처럼 만든 '퉥게(독교)' 위에 사또를 태우고 골의 청장년들은 이것을 어깨에 메고 행차한다. 앞뒤에 두 사람 양 옆으로 여덟 사람, 모두 여섯 사람이 '퉥게(독교)'를 어깨에 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면 가마꾼들과 따르는 행렬의 성원들은 훗소리를 받는다.

흥겨운 민요가락인 '옹헤야' 노랫가락에다 즉흥 노랫말을 붙여가며 불러나갔다.

하효에서

옹해야

제일좋은

옹해야

이○○씨

옹해야

놀아보자

옹해야

헤헤헤헤

옹해야

어절씨구

옹해야

만수무강

옹해야

비옵니다

옹해야

우리한번

옹해야

천년만년

옹해야

살고지고

옹해야

놀아보자

옹해야

강태공이

옹해야

따로있나

옹해야

이태백이

옹해야

따로있나

옹해야

우리동네

옹해야

제일가는

옹해야

어른모셔

옹해야

놀아보자

옹해야

사또행차는 사또의 집마당까지 이어진다. 집마당에서 행가레를 친다. 벌써 잡아놓은 돼지의 날간과 술을 사또에게 권한다. 사또는 '뒉게(독교)'에서 내려진다.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아 사또를 모셔들인다.

6) 사또모시기

사또를 모셔들일 자리는 마당 구석에 마련되고 병풍을 쳐 놓는다. 한 동네 청년이 알자가 된다.

"사또 앞으로 상을 데령하렸다."

알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또 앞에 푸짐한 상이 높인다. 사또가 받아든 상 위에는 돼지머리·케이크·수박·오이·자두·밀감과 꽃다발까지 올려져 있다.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다.

이제부터 연극적 행위는 알자의 지휘에 따라 진행된다.

알자 : 오늘 사또를 맞은 부인의 권잔(勸盞)이 있겠습니다.
[사또 부인은 사또에게 잔을 권하고 일배 후 퇴장한다]
알자 : 동생ᄒᆞ고 제수도 잔 올려.
[사또 동생과 제수도 잔을 올리고 절하고 퇴장한다.]
알자 : [사또에게] 사또님. 감개가 어떵ᄒᆞ우꽈?(어떻습니까)
사또 : 이거 춤 세상에 태어나 고생ᄒᆞ며 산 보람이 있도다. 기분이 좋으니 어서 풍악을 울려라.

7) 풍악놀이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놀이판이 벌어진다. 장지에서 뒤늦게 도착한 상제들도 상복을 입고 온다.

사또 집에서는 돼지 한 마리와 술을 내놓는다. 그 동생은 축하객들에

게 나누어 줄 만큼의 담배를 사온다. 그리고 상주들은 음료수를 사온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놀이판은 밤 10시까지 이어진다.

8) 사또놀이의 의미

동네 큰어른이 타계하여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면서 사또놀이를 한다. 한 동네의 큰어른을 저승으로 보내고 다시 새로운 어른을 뽑아 모셔 들이는 것이다. 사또놀이는 바로 그날 사또놀이를 통하여 한 동네 어르신 돌아가심의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여 이를 반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하겠다.

21. 상례의 변천[37]

위에서 기술한 상례법은 40여 년 전에 행하던 일반적인 것이지만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정해져 권장되면서부터 상당한 변화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 중요한 것만 약술하기로 한다.

① 상복이 간소해졌다. 전통 상례복은 복잡하다고 하여 밀려 약식화하고 있다. 더구나 까만 예복을 입고 가슴에 리본을 달거나, 팔에 완장을 참으로써 상복을 대신하고 있다.

② 부고는 신문의 부고란을 많이 이용한다. 과거에 직접 사람이 가서 부고를 알리던 것이 신문의 부고란을 이용하고, 요즘에는 방송을 이용하게도 되었다.

③ 상여가 차차 없어져 영구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상이 나면 시신을 어떻든 장지까지 이동해 가야 하는데 생활이 복잡화함에 따라 참

37) 현용준, <禮考>, 《제주유맥육백년사》,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여율이 저조하고, 일이 분업화하면서 새로운 장례와 관련한 직업이 생겼기 때문이다.

④ 조객의 '어이어이' 하는 곡이 완전히 없어졌다. 조문객이 곡을 하며 망인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⑤ 근래에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혼례든 장례든 집에서 치러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대사를 치르기 위한 집마련이 쉽지 않아 전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주변에서 질책을 받고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장례식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⑥ 우제를 장지에서 한꺼번에 지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은 약식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맞추어 축문도 바뀌게 마련인데 그 예를 하나 보면 다음과 같다.

⑦ 일년탈상으로 대·소상을 겸해 하게 되었다. 이때의 축문의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⑧ 집에서 치르던 장례식이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일이 많아졌다.

⑨ 공동묘지 이용 및 가족묘지 설치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누울 자리를 마련하고 심지어는 가봉분까지 해 두었다. 하지만 신교육을 받은 후세들이 그런 것이 허망하다고 인식하면서 풍수지리설을 고려하지 않은 공동묘지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여유 있는 집안을 중심으로 가족 묘지를 만들어 묘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념을 강화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 묘소를 한 곳에 모셔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Ⅴ. 제 례

Ⅴ. 제례

1. 기제(忌祭)

1) 祭需와 陳設

제사는 성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후손이 지내는 것이다. 성인 되지 못해 어릴 때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보통 15세로 잡는다.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꽃다운 나이를 거론할 때 이팔이라 하는데 이는 16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15세를 넘은 나이이므로 성인으로 취급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성인이 사망하여 장사를 치르고, 소상 대상이 지나 다음 해 사망한 날이 돌아오면 비로소 첫 제사를 지낸다. 그날을 기일이라 하며 매해 반복하여 기일 제사를 지내며 이는 4대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기일제사를 제주에서는 방언으로 '싯게'라 한다. 그 어원은 알 수 없으나 식가(式暇)로 보기도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식가는 관원에게 지급되는 급가(級暇)라 하며 집안에 기제사 따위가 있을 때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기일제사를 행할 때, '싯게 먹으러 간다(제사 먹으러 간다)', '싯게 넹겨부러시냐(제사 넘겨 버렸냐, 제사 지나 버렸냐)?' 등으로 쓰는 것을 보면 급가의 뜻과 선뜻 통하지 않는다.

성인이라면 양자를 데리고 후손을 이을 수 있지만 1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부모만 모여 자식의 제사를 지내게 된다.

기일 전날에 근친 부녀자들이 모여 제수를 준비한다. 그 종류는 떡, 묵적, 육류, 어류, 채소류, 과일과 술 등인데 지역마다 가문마다 약간씩

다르다. 공통인 것은 채소에서 고사리와 비늘이 있는 해어이다. 갈치나 고등어와 같은 것은 쓰지 않는다.

날이 저물면 가장이 방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설치하여 진설을 한다. 진설방식은 좌포우해(左脯右醢), 어동육서(魚東肉西), 과일로는 홍동백서(紅東白西) 등이 원칙이나 가문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것은 헌관 중심으로 좌우를 정할 것인지 신위 중심으로 좌우를 정할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과 같다. 또 숟가락과 젓가락을 메와 갱 사이에 놓거나 상 좌측에 놓는다. 도 생선을 엎어 놓거나 뒤집어 놓은 등의 차이다.

제상 앞에는 향상을 놓아 거기에 모사(茅沙)와 향로, 향합(香盒) 등을 놓는다. 모사는 정식 모사가 아니라 접시에 띠 끝부분 3개를 10Cm 정도로 끊어 3개 중 1개로 나머지 2개를 감아 묶어 걸치고 그 위에 고사리 채 세 개를 걸쳐 놓아 모사로 대치하는 것이 일반이다. 남제주군, 서귀포 일대(지금의 서귀포시)에서는 감귤 이파리를 따다가 접시에 놓아 모사로 쓰는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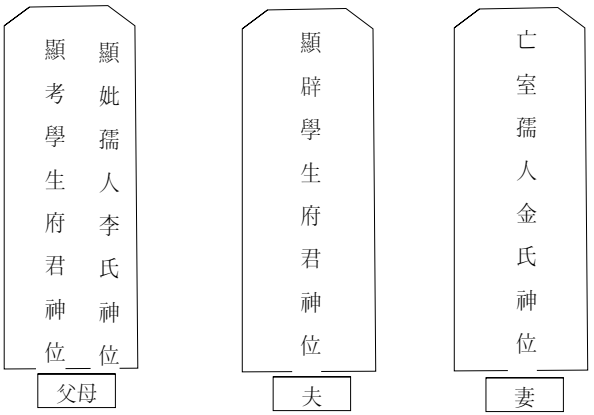


<사진 10> 제사에서의 진설

제상을 차리고 진설할 때는 오른쪽에 문전상을 차리는데 이것은 제주도만의 특색이다. 문전제상은 작은 상에 조상상에 올린 각종 제물을 똑같이 조금씩 올리는데 상이 좁으므로 제물을 조금씩 겸하여 올린다.

2) 지방

진설이 끝나면 지방을 써 붙인다. 지방의 크기는 세로 약 22Cm, 가로 약 6Cm 정도의 백지로 상단 양쪽 위를 조금 잘라 만든다. 그 서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 서식도 가문에 따라 다소 다르니, 배위의 본관을 밝히는 데도 있고, 신위의 표시를 兩位의 중간 위치에 한 줄로 '神位'라 쓰는 데도 있다. 진설이 끝나 지방을 병풍에 붙이면 主孫이 焚香하여 獻爵하고 再拜한다. 이어서 참례자들이 모두 배례를 한다. 그래서 고인을 추모하며 기일의 자시가 되기를 기다린다.

3) 문전제

기일제사는 시일이 되는 순간 제를 지내야 한다. 제사는 자시에 지내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기일제사 전날밤 11시가 되면 조상상과 문전상에 메와 갱을 올린다. 집주인은 손을 씻고 옆에 두었던 문전상을 들고 마루로 나가 대문 앞에 놓는다. 그리고 단헌단작으로 문전제를 지낸다. 먼저 재배하여 분향하고 헌작하여 젓가락을 신위가 오른손으로 잡을 수 있게 채소 위에 걸치고 숟가락을 메에 꽂은 후 잠시 揖하고 있다가 재배한다. 다시 꿇어서 미리 올린 술잔에 숟가락으로 메를 조금씩 세 번 떠 놓고 갱을 한번 더 떠 놓은 다음, 수저를 제자리에 내려 걸치고, 각종 제물을 조금씩 뜯어놓는다. 이것을 '잡식'이라 하며, 잡식이 끝나면 이것을 들고 나가 지붕 위에 던져 올리는데 2층집이거나 지붕이 높으면 올레 어귀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문전제가 끝나면 그 제상은 부엌으로 넘겨지고, 주부는 문전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그릇에 떠 모아 솥 뒤쪽에 떠 던지는데 근래에는 가스렌지 뒤쪽에 놓아두었다가 버린다. 이는 조왕에 대해 고사를 지내는 것



<사진 11> 조상상과 문전상

이다. 가문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 후에 문전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문전제나 조왕고사는 정식 유교예법에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행해지는 특유한 제사법이라 할 만한데, 이는 고래로 문신과 조왕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토속신앙이 유교식 제례에 습합되어 전승되게 된 것이다.

문전제는 유교식 제법에 해당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무속식 제의 요소이다. 무속에서 행해지는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38]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7형제를 낳고 가난하게 산다. 남선비는 부인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타고 곡식장사를 떠났는데 오동고을에 닿았다. 이 고을의 간악한 여인 귀일의 딸은 곧 남선비를 유혹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 나선비는 이 여인의 홀림에 빠져 돈을 빼앗기고 눈가지 멀어졌다. 할 수 없이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겨죽을 먹으며 연명해 간다.

기다리다 지친 여산부인은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 오동고을에 닿았다. 겨우 남편을 찾고 보니, 첩이 나타나 아양을 떨며 목욕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린다. 그리고서는 첩은 본부인인 척 가장하여 남선비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부모를 맞은 7형제 중 똑똑한 막내아들이 친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형들을 깨우친다. 첩은 이 눈치를 태고 장애물인 아들들을 죽일 계략을 꾸민다. 배가 아픈 체하며 뒹굴며 남편에게 점을 쳐 오게 하고, 아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는 점괘를 꾸며낸다. 7형제 간을 내어 먹고, 한 배에 셋씩 세 번을 낳아 아들 9형제를 낳겠다는 말이 그럴싸하여 남편은 칼을 간다. 이를 안 막내아들이 형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멧돼지 간 6을 내다가 형들 간이라고 계모에게 드린다. 계모가 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숨긴 것을 걷어치워 계략을 천하에 폭로한다. 겁이 난 첩은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변소신 '칙도부인'이 되고, 면목없는 아버지는 '올레'로 내닫다가 정낭

3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에 걸려 죽어 정주목신이 된다. 7형제는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어 부엌의 신 조왕으로 앉히고, 아들들 위로 5형제는 오방토신이 되고, 여섯째 아들은 뒷문전(상방의 뒷문신)이 되고, 똑똑하고 역력한 막내아들은 일문전(상방의 앞쪽 문신)이 되었다.



<사진 12> 문전제를 지내는 장면

여기에서 보이는 갈등을 보면 남선비의 아내인 여산부인과 첩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다. 처첩간의 싸움에는 부처님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승민들은 가정에서 처첩의 갈등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첩이 여산부인을 제거하면서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자식들의 압력에 목을 매어 죽은 비극적 결말을 맺는다. 한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가 문전신으로 모셔지는 막내아들이다. 신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기에 전승민들은 그에게 의례를 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무속적 사고에서 탄생한 의례가 어느 시대에 어떤 연유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유교식 제사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다.

4) 행제



<사진 13> 3헌관

문전제가 끝나면 선조에 대한 본제를 시작한다. 집사 두 사람이 재배하여

집사 위치에 나아가 자리에 서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나란히 서서 진행한다. 초헌관은 祭主인 장손이 되고 아헌관, 종헌관은 次孫 順으로 되며 여인이 헌관이 되는 일은 없다. 행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39]

① 참신 : 삼헌관이 일제히 재배하고 盥水(손을 씻는데 속의 세계에서 성스런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의 표현이다)한다.
② 강신 : 초헌관이 향상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향로에 향을 세 가지씩 세 번을 넣어 분향하면 집사가 강신 잔에 제주를 부어 초헌관에게 넘긴다. 초헌관은 강신 잔을 받아 오른손에 들고 향로 위를 시계 방향으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에 세 번에 나누어 붓고 잔을 향상에 놓은 후, 배석으로 돌아오면 삼헌관이 같이 재배를 한다.
③ 초헌 : 초헌관이 엎드려 신위의 왼쪽에 있는 집사가 부어주는 잔을 왼손으로 받아 양손으로 신위에게 올리면 오른쪽에 있는 집사가 잔을 받아 제상에 올리고 젓가락을 채소류 위에 내려 걸친다. 그러면 초헌관이 재배한다. 독축은 없다.
④ 아헌 : 아헌관이 엎드리면 왼쪽 집사가 改盞하고 다시 제주를 부어 초헌 하는 방식과 같이 잔을 올려 재배한다. 이때 가문에 따라 젓가락을 그대로 두기도 하고, 다시 다른 채소로 옮겨 걸치기도 한다.
⑤ 종헌 : 종헌관이 엎드리면 改盞하고 초헌하는 방식과 같이 잔을 올려 재배한다. 이 종헌 때에 집사가 開飯揷匙를 한다.
⑥ 첨작 : 초헌관이 엎드려 왼쪽 집사가 부어주는 첨작 잔을 왼손으로 받아 양손으로 신위에게 올리면 오른쪽 집사가 받아 세 번에 나누어 첨작한다. 그러면 삼헌관 일동이 재배한다.
⑦ 헌다 : 집사가 갱 그릇을 조금 옮겨 그 자리에 숭늉을 올리고 숟

39) 현용준, 위의 책, 606-607쪽.

가락으로 메 세 술을 조금씩 떠서 숭늉에 넣고 숟가락을 숭늉 그릇과 메에 걸쳐 놓는다.

⑧ 합문 : 집사가 바깥으로 나와 문을 닫고 헌관들과 집사가 정숙하게 읍한다. 합문시간은 一食九飯之頃이라 하니 지금 시간으로 4-5분 정도로 보인다. 가문에 따라서는 합문을 아니하고 그대로 읍하기도 한다.

⑨ 개문 : 초헌관의 기침 소리의 신호에 따라 일동이 일어서고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헌관과 집사가 제자리에서 읍한 경우는 개문이 없다.

⑩ 잡식 : 집사가 숟가락으로 메를 조금씩 세 번 숭늉에 떠 놓고, 갱과 술을 한 숟갈씩 더 놓은 후 숭늉 그릇을 옮겨 갱 그릇을 제자리에 놓으며 수저를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제상 위의 각 제물을 조금씩 숭늉에 끊어 놓아 숭늉 그릇을 향탁에 내려 놓고 메의 뚜껑을 덮는다.

⑪ 사신 : 헌관 일동이 재배를 하고 배석에서 물러나면 집사를 비롯하여 참석한 친척들이 차례로 모두 재배한다. 단 여자는 배례를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내려왔다.

⑫ 철찬 : 집사가 지방을 떼어 모사 그릇에서 불사르고 숭늉과 합쳐 지붕 위에 올리고 제상의 제물을 정리한다.

이 외로 가문에 따라 잡식한 것을 집의 출입로인 '올레' 어귀에 가 떠던지는 데도 있다. 또 곡물 수호신인 '안칠성'을 위하는 의미로 고방에 제물을 차려 올려 고사하는 데도 있는데, 흔치 않다.

이렇게 제가 끝나면 일동이 음복한다.

2. 명절 節祀

한국에서 치르는 명절로 설, 한식, 단오, 추석을 들고 이를 4대 명절이라 하였다. 하지만 한식과 더불어 단오를 명절로 지내는 집안이 없어지고 이제는 추석과 설만이 남아있다.

명절 역시 기일제사와 같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모시는데, 제방의식은 꼭 같다. 제주도에는 거의 사당이 없으므로 참신이 없이 지방을 떠붙여 강신을 하여 기제사 모시는 것과 같이 지낸다.

먼저 문전제를 지내고 이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8촌 이내의 친족들이 모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차례를 지내고 음복한다. 제주도에서는 제사와 제산을 균등분배하기에 고조부모명절, 증조부모명절, 조부모명절, 부모명절 하는 식으로 돌아가며 지내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는 데도 있다.

제주도의 특징은 추석이 다가오는 음력 8월 1일에는 조상의 묘소를 돌며 벌초를 한 후, 추석에는 집에서 차례만 지내는 점이다. 본토에서는 성묘를 하지만 제주에서는 미리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풍습이 오늘날까지 남아 음력 8월 1일은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벌초방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3. 지제

4대봉사로 기제와 절사를 지내는데 중심은 장손이다. 장손이 초헌관이 되어 다음 장손으로 그 지위를 넘기는데 고손 중 장손이 사망하게 되면 제주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제사를 그만 지내겠다'는 축문을 고하고 지제를 하게 된다. 지제를 하는 시기는 제주인 장손이 진설하

여 제사를 지내는데, 행제 때에 초헌이 배례하고 잔을 올리고 난 다음 지제 축문만 고하면 된다. 지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止祭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五代孫 某(名) 敢昭告于
顯五代祖妣孺人O氏
顯五代祖考學生府君 伏以 先王制禮 祀止
四代 心雖無窮 分則有限 祀事將撤 不勝感愴 謹以淸酌 庶羞祇薦 百拜告辭 尙
饗

이 지제축문을 행하면 제관은 일 세대 밑으로 내려지며 고조부모는 5대조부모로 된다. 오대조부모부터는 일년 일회 묘소에서 묘제를 지낸다.

4. 묘제

대부분 청명일을 전후하여 지낸다. 그것은 청명일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선조의 묘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에 묘제를 지내려 해도 한꺼번에 지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한 곳에서 다 지낼 수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묘제 때가 되면 묘소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제사를 지내러 간다.

묘제를 지내는 묘소는 4대봉사가 끝나 지제를 한 5대조 이상의 조상 묘소에서 지낸다. 주로 할아버지 중심으로 지내는데, 거리가 멀 경우 할머니 묘소에서 할아버지 제사까지 같이 지내기도 한다.

제물의 종류나 진설법은 기일제사 때와 같다. 하지만 묘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토신제를 먼저 지내야 한다. 묘소 안을 담당하는 토신에게 조상신의 제사를 지내려 하니 놀라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다. 토신제는

묘의 왼쪽, 헌관 입장으로 보면 오른쪽 뒤에 마련한 토신 상석에 묘제를 위한 제물과 같은 것을 진설하고 '土地之神位'라는 지방을 써 붙여 단헌 단작으로 지낸다. 제물을 놓을 상석이 작으므로 제물을 문전상에 올리듯이 조금씩 겸하여 올린다.



<사진 14> 묘제를 지내기 전 토신제

헌관 한 사람이 참신(參拜)하고 분향하여 술잔을 올리고, 숟가락을 메에 꽂아 축을 읽은 후 재배한다. 그리고는 제물을 조금씩 뜯어 술잔에 넣는 잡식을 하고 다시 재배하여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 후 철상한다. 잡식한 술잔은 토신 상석 앞에 붓는다. 이때 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墓祭時 山祭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幼學 某(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某(姓名) 恭修歲事于 五代祖考學生 府君 五代祖妣孺人O氏之墓 維時保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이제 해의 차례가 ○년 ○월 ○일이 되어 유생 ○○는 감히 토지신께 고하옵니다.
오늘 ○○가 ○대 할아버님과 ○대 할머님 묘소에 삼가 제사(세사)를 지내옵니다.
그동안 보호하고 돌보아 주심은 실로 신의 보살핌에 힘입은 곳이옵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손히 신께 바치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토신제가 끝나면 묘 앞에 삼헌관과 양집사가 서서 본제를 지내는데, 그 행제법은 기제사와 대동하다. 즉 초헌 다음에 독축이 있음이 다르고, 제가 끝난 후 지방과 축문을 상석 앞에서 소각하고 잡식한 것을 그 지면에 붓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 묘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墓祭祝文
維歲次 丙寅 三月 癸未朔 十五日 丁酉 五代孫 某(名) 敢昭告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 顯五代祖妣孺人○氏之墓 氣序流易 雨露旣濡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祇薦歲事尙
饗

<이제 해의 차례가 ○년 ○월 ○일이 되어 ○대손 ○○는 삼가 ○대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고하옵니다.
어느덧 절기가 바뀌어 때는 늦가을이 되니 찬이슬이 이미 내렸습니다. 이에 묘역을 쓸고 봉분을 바라보니 감동하여 사모하는 마음 금할 수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공경을 다하여 세사(절사)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사진 15> 묘제

우천으로 인하여 묘제를 묘소에서 지낼 수 없을 경우에는 집에서 제를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축문을 고하여 지낸다.

墓祭 代家祭祝文(雨天時)
維歲次 云云 五代孫 某(名) 敢昭告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
顯五代祖妣孺人○氏之墓 氣序流易 雨覆旣濡 禮當室堂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祇薦歲事尙
饗

<이제 해의 차례가 ○년 ○월 ○일이 되어 ○대손 ○○는 삼가 ○대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고하옵니다.
어느덧 절기가 바뀌어 때는 늦가을이 되니 찬이슬이 이미 내렸습니다. 이에 묘역을 쓸고 봉분을 바라보니 감동하여 사모하는 마음 금할 수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공경을 다하여 세사(절사) 드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제사는 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집안에 따라 외동딸만을 두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경우 처가에 자손이 없을 때는 사위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 부계 혈족이 아니므로 부계 친족들이 사위가 지내는 제사에 모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의 제사를 '가마귀 모른 싯게'라 한다. 차사본풀이[40]에 따르면, 까마귀는 저승으로 데려가야 할 사람의 명부를 가지고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동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차사까지도 모르는 제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4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또한 함박제가 있다. 조상 묘를 일일이 찾아가서 제사를 올리지 못할 경우, 나무함지박에 멧밥(제사밥)을 가득 담고 죽은 사람 숫자만큼 숟가락을 꽂아 국 없이 지내는 제사이다. 이와 같은 제사법은 해신제를 지낼 때의 방식과 같다.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를 지낼 때 큰 그릇에 밥을 가득 넣고 그릇 주위에 숟가락을 빙 둘러 꽂아 제사를 지냈다. 숟가락을 여러 개 꽂는 것은 공양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몇 분의 조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국 없이 지내는 제법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이라 할 만하다. 제주 사람 역시 국을 따로 만들지 않고 물에 된장을 풀어 마시는 것으로 국을 대신하였다고 하니 제주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조상에 대한 의례에 투영한 것이라 하겠다.

Ⅵ. 의례의 절차와 의미

Ⅵ. 의례의 절차와 의미

1. 의례의 절차와 성격

인간이 태어나서 출생의례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성인식을 거치고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기르다가 늙으면 죽는다. 죽으면 그 자손에 의해 상례를 치르고, 4대봉사를 통해 의례를 마무리한다.

이 중에서 상례와 제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거의 변함이 없이 옛 방식대로 전승해 오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신앙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상·제례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쓰인 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 책은 조선 후기(1844년, 헌종 10)의 학자 이재(李縡)가 편찬하여 간행한 사례(四禮)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의 허점을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엮어 놓은 것으로 그 후 각 가문의 사례를 행하는데 표본이 되어 왔다.

그 절차는 예기, 주자가례 등에 나타나 있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친 사례편람의 절차를 많이 따른다. 그러면서도 민간신앙적 요소를 수용하여 상·제례를 행하고 있다. 먼저 이들 절차를 사례편람에 나타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례 : 임종, 초혼, 염습·입관, 성복, 일포, 발인, 노전제, 토신제, 하관제, 성분(진토, 달구), 초우제, (귀양풀이) 재우제, 삼우제, 졸곡제, 삭망제, 소상, 대상, (시왕맞이) 담제

귀양풀이와 시왕맞이는 무속식 제의로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고이 모셔드리는 굿이다.

다음으로 조상에 대해 치르는 제의로는 忌祭가 있다.[41] 기제는 매년 기일에 치러지고, 4대봉사가 끝나면 지제를 한다. 그리고 5대조 이상은 매년 청명 후를 택하여 묘소에 가서 치르는데 이를 묘제라 하며, 제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례 : 참신, 강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삽시, 첨작, 헌다, 잡식, 사신, 음복

이상과 같이 제의의 절차는 주자가례를 받아들여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친 사례편람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들 절차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자.

상례는 死者儀禮요, 제례는 祖上崇拜를 위한 추모의례이다.

아놀드 반 게넵(1873-1959)은 이렇게 각 민족이 행하는 모든 의례를 조사하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며, 이를 의례화한다고 하여 통과의례를 규정하였다. 그는 여러 민족의 통과의례를 조사, 연구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의례로 출생의례, 관례, 혼례, 상례를 들고 인간이 거쳐야 할 의례라 하여 중시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의례는 分離, 過度(轉移), 加入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분리의례는 개인이 이전에 가졌던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과도(전이)의례는 새로운 지위 앞에 가로 막힌 장애를 점차로 제거하고, 가입(통합)의례는 그가 새로 얻은 지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아 흡수되는 행위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상례를 반 겐넵의 설을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41) 그 외로 四時祭, 禰祭, 祠堂祭 등이 있으나 이는 제주에서 치르지 않는다.

1) 상례

(1)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오늘날은 생사의 구분을 심장의 박동 유무에 두어 심장 박동이 있으면 의식이 없더라도 사망으로 진단하지 않는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 의사는 사자로 인정한다. 이 과정은 분리기, 과도기(전이기), 가입기라는 3단계로 구분된다.

분리기는 臨終을 말한다. 환자가 운명하게 될 때 자손들은 환자 곁에 모여 임종을 지켜본다. 물을 떠 놓고 유언을 듣는다. 이 때까지는 자손들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환자의 뜻을 전달받으려고 애를 쓴다. 생사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다.

과도기는 招魂에서 염습(殮襲)까지이다. 환자가 호흡을 멈추면 환자의 저고리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 이름을 부르고 복(復,) 복, 복 하고 불러 그 옷을 환자의 몸 위에 잠시 둔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는 의미이다. 이러고서도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을 재확인하고 차사상(差使床)을 차린다.

운명하면 향탕수로 사자의 온 몸을 깨끗이 닦아내는 염(殮)을 한다. 이 역시 生者와 死者를 구분짓는 의식이다. 수시가 끝나면 수의(壽衣)를 갈아입힌다. 생전의 옷을 벗기고 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스스로 생전에 수의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입고 춤을 추며 놀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의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식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의를 마련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마무리라 여기고 있다. 반함(飯含)이라 하여 쌀을 입안에 넣어 저승에 갈 때 양식으로 하게 하고, 저승문을 들어설 때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내어 주어 개를 쫓는데

사용하라고 자그만 떡을 양 손과 가슴에 각각 3개씩 넣는다. 조발낭(爪髮囊)이라 하여 망인의 머리털을 몇 개, 손톱, 발톱을 깎아 넣고 시신을 묶는다.

가입기는 입관(入棺)이다. 입관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면 관 밑에 지금(地衾)을 깔고 시신을 넣고 천금(天衾)을 덮은 다음 땀수건을 넣는다. 이는 저승길이 험하고 멀므로 긴 여행을 하다 땀이 나면 닦으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공(補空)으로 채운 후 뚜껑을 덮으면 된다. 시신을 관에 넣고 덮개를 함으로써 생자는 사자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깜깜한 관 속에 시신을 모심으로써 생자와 사자는 生의 영역에서 死의 영역으로의 분리가 마무리 된다.

(2) 과도의례(transition rites)

입관 후 지내는 성복제는 망자를 위한 첫 제의이다. 이 과도의례가 행해지는 동안은 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생자와 같이 고인을 대접한다. 그러면서도 고인은 생자가 아니므로 고인이 머물고 있는 집은 부정한 집이 된다. 집안에 혼인식이 있어도 연기되고, 마을제가 있어도 상례 뒤로 연기된다.[42] 과도의례 역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분리기는 성복(成服)에서 일포(日晡)까지이다.

고인의 가족들은 초혼을 하고도 깨어나지 않고 환자가 운명하면 상복으로 갈아입고 친족들은 두건을 쓰고 성복제를 치른다. 이어서 혼백상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한다. 조문객들은 먼저 시신이 놓여있는 제상을 향하여 재배를 하고 상주를 향해 단배를 하고 조의를 표한다. 이러한 과정

42) 제주시 ·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시의 향토민속》 경신인쇄사, 1992, 65-120쪽에 의하면 제주시 관내 마을제를 행할 때 일반적으로 上丁日에 치르지만 마을에 喪이 나거나 우환이 닥치면 中丁日, 또는 下丁日, 혹은 亥日을 택하여 마을제를 행한다고 한다.

은 생자인 조문객이 사자와의 교류를 행하는 것이다. 상주를 위해 조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조문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고인과의 이별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다. 고인은 생의 영역에서 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문객이 고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고인을 대신하여 상주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상주는 생자이지만 고인과 교류가 되는 존재이다. 조문객에게 고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그는 생자이지만 상복을 입음으로써 생자도 아니고 망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남는다. 상주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조문객이 상주에게 배례를 하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례가 끝나면 조문객은 음식 대접을 받는다. 이 때 음식을 대접하는 자들은 고인의 가족 여인들로 상복을 입고 있다. 이들도 역시 생자도 아니고 망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이다. 인사를 하러 온 조문객에게 고인을 대신하여 고인의 가족이 대접하는 것이다. 고인은 조문객과 같이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고인이 대접하는 것과 같으므로 神人共食의 의미가 있다. 말로써 고인과의 교류가 아닌,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고인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신과 인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로 보아 모든 의례 후 음복이 이와 같은 의미임을 알겠다. 고인을 위한 제물 진설은 생자에게 올리듯이 한다. 즉 메는 왼쪽, 갱은 오른쪽이다.

이러한 과도의례의 요소는 제물 진설, 복장, 음복에만 있지 않다. 매장 후 귀가하여 여자의 주관 하에 치러지는 귀양풀이에서 과도기의 의미가 강화된다. 이 의례에서는 무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화인 차사본풀이를 창한다.

과양생이 아들 3형제의 돌연한 죽음의 원정을 풀기 위해 강님은 김치

원님의 명을 받고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으로 향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다가 행기못 속으로 풍덩 빠지니 거기가 저승이었다. 돌아올 때에도 백강아지를 따라 행기못으로 와 풍덩 빠져 정신을 차리니 거기가 이승이었다. 강님은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김치원님은 육체를 차지하고 염라대왕은 영혼을 차지하여 그를 저승 차사로 삼는다. 그 후부터 강님은 사령을 데리고 저승을 오가게 된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체와 영혼의 합일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면 인간은 죽게 된다. 그 영혼은 차사가 데리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승에서 김치원의 명을 받아 저승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멀고 험난했다. 사자의 영혼이 차사와 더불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역시 멀고 험난한 것이다. 바로 이 과정이 성복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과도의례 시 치르는 제의인 일포제는 고인이 생자와 마지막 이별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분리의례가 생과 사의 분리를 상징함에 반하여 일포제는 고인이 거처하는 정들었던 가족들 그리고 친족·친구들과의 분리의례이다. 생사의 분리에서 이제는 생자와의 분리가 마무리 된다.

생자와 분리되어 이승에서 거처하는 곳을 떠난 고인은 장지로 향한다. 상여를 타고 가는 고인은 가족 친지와 헤어지기 싫어한다. 상두꾼들은 이러한 고인의 뜻을 상징적으로 연행한다. 상여를 메고 가면서 친지 집 앞에 머물러 제를 받거나 또는 가기 싫다는 시늉을 하면서 버틴다. 이때마다 설배를 잡은 아낙들은 잡아당겨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가 장지까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과정 상 과도기에 해당한다.

하관은 가족 친지와의 분리가 완성되고 지하세계 곧 저승에 가입하는 시기이다. 하관제(下棺祭), 三虞祭에서 大喪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의례이다. 즉 과도의례는 생사의 분리가 끝난 고인이 가족과의 분리가 재차 이

루어지고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의례임을 알겠다.

소상, 대상에는 조문객이 찾아와 초상 때와 같이 신인공식을 한다. 이승 1년은 저승 하루라는 본풀이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고인을 위해 세 번의 神人共食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겠다. 이는 3의 의미를 엿보게 한다.[43] 즉 고인에 대한 정성이 완성된 수만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이 끝나면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 옷 등을 태워준다. 이는 저승에 들어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승에 남김없이 모두 갖고 가라는 의미이다. 대상이 끝나면 영혼은 저승으로의 여행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 영혼이 편안히 저승문을 열고 들어섰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무속의례인 시왕맞이는 이를 확인해 준다. 귀양풀이처럼 여성에 의해 치러지는 시왕맞이는 사령을 관장하는 시왕에게 사령의 생시 죄를 사하여 극락으로 보내주십사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사령이 저승에 못 가면 중간에 헤매면서 잡귀가 되어 가족 또는 친지에게 재앙을 준다고 관념하고 있다. 때문에 무속의례로 심방은 굿을 하고 사령이 저승에 잘 도착하였는지를 가족 친지에게 알려주게 된다.

유교식 의례는 사자와 생자의 교류가 없이 편안한 저승행을 위한 기원의 의례라면 무속식 의례는 사제인 심방이 저승행의 여부를 생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

이상으로 과도의례 속에 다시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라는 절차를 거치며 의례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 민담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3번 반복하여 행한다. 이것은 완성의 수임을 나타낸다.

(3) 가입의례(rites of incorporation)

분리의례를 거쳐 과도의례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저승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동안은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생자와 같이 제물 진설이 행해진다. 하지만 대상이 끝나고 100일이 되어 행해지는 담제(禫祭)부터는 제물 진설이 달라진다. 기일제사와 같이 메는 오른쪽, 갱은 왼쪽에 놓인다. 이는 영혼이 저승에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무속의례에서 불려지는 차사본풀이에서 강님이 행기못 속으로 빠지며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 보니 이상한 곳에 와 있었는데 바로 그 곳이 저승 연추문이었다. 거기서 강님은 염라대왕과 조우한다. 사자의 영혼이 차사를 따라 저승에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염라대왕과 조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차사가 아니면 다시 이승에 돌아올 수 없다. 저승으로의 가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담제를 치름으로써 생자가 아닌 사자로 인정하며 생사 분리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영역에서 조상의 영역으로 가입하는 분리기에 해당한다.

이로써 사자와 생자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사자의 영혼은 매년 명절과 기일제사 때 후손을 찾아온다. 이 때 사자의 영혼은 조상이다. 자손은 찾아온 조상을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돌려보낸다. 이는 조상숭배 관념을 갖고 있는 곳은 동일하다. 사자가 다른 세계로 가입하고 난 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서양과 다른 세계관의 차이라 할 만하다. 우리의 조상은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자손의 정성에 따라 복을 주거나 재앙을 준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복 신앙은 풍수지리설과 어울려 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시는 근거가 된다.

기일제사는 4대까지 행해지며 조상으로 존경받는다. 4대봉사가 끝나면 축을 고하여 지제를 한다. 4대인 고조부모까지는 자손과 교통할 수 있어 기일에 따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제사를 지낸다.

이처럼 구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각 조상이 서열과 개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제를 하고 나면 묘소에 가서 제의를 행한다. 조상이 자손과 교류할 수 있는 시기는 연중 4대 명절과 제사뿐이다. 4대봉사를 하고 지제를 하기 전까지는 가입의례의 과도기라 할 만하다.

제주에서는 4월 청명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묘을 정비하고 묘제를 지낸다. 묘제를 지내는 조상들은 기일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사를 치른다. 몰개성적인 조상이라 할 만하다. 아마도 4대 봉사 이후의 조상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듯하다. 즉 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신의 세계로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제주의 상·제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 리 의 례			과 도 의 례			가 입 의 례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	분리기	과도기	가입기
임종	초혼-염습	입관	성복에서-일포	발인-하관전	하관-시왕맞이	담제	4대봉사	묘제

2) 제례

제례는 앞에서 보았듯이 반 겐넵의 통과의례에 속하지 않는 절차이다. 하지만 조상숭배 관념을 가진 유교문화권에서는 인간의 일생에 당연히 포함되는 절차이다. 상례는 사자를 위한 의례인 점에 반하여, 제례는 조상숭배를 위한 추모의례인 점에 차이가 있다.[44]

이러한 제례 역시 통과의례의 절차와 같은 과정을 밟지만 반 겐넵이

44) 장철수, 앞의 책, 40-42쪽.

구분하는 과정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사자의례 속에 포함되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논의 속에 포함한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태어나고 죽는다. 이 죽음에는 소위 '개죽음'이라 하여 동물의 죽음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엄숙하게 일정한 격식을 갖춰 상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후자인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은 그만큼 성대하게 의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A. W. Malefijt는 그의 저서 <종교와 문화, Religion and Culture>에서 시신을 다루는 의례를 각각 死者儀禮(cult of the dead)와 조상숭배(ancestor worship)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45] 전자는 죽음의 세계뿐 아니라 시신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여 다루며, 후자는 죽은 사람을 신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절차에 따라, 시신을 다루며 그에 따른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사람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 의해 생긴다. 망자를 두렵게 보는 경우는 사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관념의 반영이며, 조상으로 보는 경우는 그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았을 때의 역할을 고려하는가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상·장례의 내용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 내용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와, 둘째 일정한 격식과 절차를 거쳐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죽음'이라고 하여, 마치 동물의 죽음과 같이 취급하며, 둘째의 경우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관념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죽음의 세계를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시신도

45) 장철수, 위의 책, 40쪽 재인용.

역시 무서운 존재로 다루어 처리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죽은 사람을 神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절차에 따라, 시신을 다루는 방법도 그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자의례는 육체적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으로 인식하며, 그 시신과 분리된 영혼을 저승세계로 잘 보내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시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감의 소멸이며, 이는 사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까지 두려워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승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마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망인은 항상 저승에 머물게 되어 이승에 특별한 영혼의 거처가 필요 없지만 어쩌다 꿈에 나타나게 되면 이는 저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승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인식하여 의례를 행한다. 의례는 두려움의 대상인 망인과 의례를 행하는 개인과의 관계로 인식되는데, 주로 소규모 집단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연적인 기반 위에서 치러지는 의례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조상숭배는 육체적인 활동이 정지되어 있을지라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며, 육체를 떠난 영혼을 이승에서 정중하게 모시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사회에서는 망인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어 그를 추모하고 망인과 관련되는 물건들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다. 이는 영혼이 항상 이승에 머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 거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의례는 혈연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경향이 강하다.[46] 이렇게 볼 때 제주에서 행해지는 상·제례는 사자의례와 조상숭배가 혼합된 셈이다.

---

46) 장철수, 위의 책, 40-42쪽.

2. 신앙적 의미

1) 상례

유교식 의례에서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승에 고이 안착하도록 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이 저승에 고이 안착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상례를 치르는 상주는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유교식 의례는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喪家의 주부는 여성이 주관하는 무속의례를 행하여 영혼을 위무하고 저승 안착 여부를 알고자 한다. 남성은 다른 행사와 달리 이 무속 의례를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주도의 무속의례는 귀양풀이와 시왕맞이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본래는 사자가 저승으로 향해 가는 의례가 무속의례로 행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家禮 속의 절차만이 아니라 무속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교식 의례가 강화되면서 무속식 의례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귀양풀이와 시왕맞이이다. 이 두 의례가 사라지지 않고 끈끈히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자와 사자의 교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유교식 의례가 조상을 공경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반면 무속식 의례에서는 조상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무속의례에서 심방은 고인의 가족 친지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사령은 사제인 심방을 통해 자신의 恨을 푼다. 이처럼 무속식 의례는 생자와 사자의 恨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의례인 유교식 의례와 더불어 여성 중심의 무속식 의례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행해지는 상례는 각각의 절차가 한 인간이 생을 마감하고 저승에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절차에 담겨 있는 신앙적 의미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끈끈하게 유지해 온 필연적 요인이며, 앞으로도 쉽게 단절되지 않을 요소이다. 신앙적 의미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제의 절차는 본래 신앙적 차원의 것으로 이승에서 인간이 생활하듯이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나름대로 생활한다는 신앙의 상징적 표현이던 것이 윤리적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절차를 구분한 것이다.

둘째, 인간은 육체와 혼의 합일로 되어 있다는 인간관이 있으며, 영혼은 저승에 도달하기 전 곧 불안정기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잘 모시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저승에 도달한 후는 안정기로 이 때부터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 즉 조상이 되어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는다.

셋째, 의례의 절차는 고인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데 분리, 과도, 가입의례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의례 후에 상제와 망자, 상제와 생자가 식사를 같이 하는 신이공식(神人共食)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승과 이승이 상제를 통해 교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생사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는 부정한 장소, 상례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요, 생자와 망자를 중개하는 상제, 복친은 부정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망자의 영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는 빙의 현상에 근거한다. 이같은 인식은 사령이 저승에 안착하지 못하면 잡귀가 되어 떠돌다가 빙의하여 재앙을 준다는 관념에 있다.

넷째, 의례는 무속식과 유교식이 공존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의식절차가 아닌 사제자인 심방에 의해 신과 인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유교식 제의는 <망인(조상)-상제-생자(친지)>의 관계로 상제가

사제자의 역할을 하며, 무속식 제의는 <망인(조상신)-심방-생자(친지-단골)>의 관계로 심방이 사제자의 역할을 한다. 즉 유교식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조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숭배하는데, 무속식은 심방이 모셔야 할 신과 단골의 관계로 조상을 여타의 신과 같이 잘 모시면 복을 주고, 잘 안 모시면(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고 관념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저승에 안착해야 선신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고 여행 중인 경우는 불안정기에 있으므로 잘 모셔야 한다. 특히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죽어 헤매는 영혼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조상은 영혼이면서 혼백이기도 하지만 잡귀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념은 4대 봉사를 강화시키고 사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2) 제례

제사는 예기나 주례 등의 고전에 의하면, 천자는 7대의 조상(고조부모 이하 직계 4조와 시조 및 특별히 공과 덕이 높은 두 분), 제후는 5대의 조상(직계 4조와 시조), 대부는 3대의 조상(증조 이하의 직계 조상), 선비(士)는 부모만을 사당에서 제사하며(어떤 경우에는 조부모 이하 2대를 봉사하기도 함), 일반 서민들은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다만 부모만을 제사지내는 방(正寢)에서 제사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의 국조오례의에는 6품 이상의 관직자들은 3대를 사당에서 제사하고, 7품 이하의 관직자 및 서민들은 부모만을 제사토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송나라 시대 이후 사대부의 가문에서는 누구나 4대의 조상을 사당에 모시고 제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자의 「가례」에 명문화되어 중국과 한국사회에서 보편화하여 4대봉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47]

가례에서 출산의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제례를 포함시킴으로써 상례와 더불어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제주에서도 제사는 정성으로 행해진다. 이의 절차를 통해 제사에 대한 관념과 신앙적 의미를 살펴본다. 모든 제의의 제법은 삼헌삼작식과 단헌단작식의 둘로 나뉜다. 삼헌삼작식은 헌관 3인이 나란히 서서 신위를 향해 제주(祭酒)를 세 번 바치는 것을 말한다.

제의의 절차를 보면 살아있는 인간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신위를 불러들여 앉히고 술과 식사를 권한 후 무속에서 처럼 뒤따라 온 사령이나 잡신 등을 대접해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48] 이는 가례의 절차나 무속에서 신을 청해 돌려보내기까지의 청신, 오신, 송신의 절차와 너무나 유사하여 신에 대한 공통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신에 대해 갖는 관념의 표현이다. 이러한 신화는 의례와 더불어 전승되기도 하지만 신화 자체가 민간에 녹아들어 설화로 전승되기도 한다. 제주에서 전승되는 민간 설화들에는 이러한 신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 제주민의 제례에 대한 의식을 살필 수 있다. 여러 자료가 있지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출간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면서 필요에 의해 다른 자료를 참고하기로 한다.[49]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제주도 설화 중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여 그 속에 담긴 관념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47) 李迎春, 《차례와 제사》, 대원사, 1994, 115쪽.

48) 무속의례에서는 주잔넘김이라 하여 주신(主神)들에게 대접하여 기원한 후, 하위 잡신들을 대접하는 대목이 있다.

4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구연되는 설화를 직접 채록하여 기록한 것으로 가장 현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① 영혼은 제사먹으러 온다.
②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영혼이 제사먹으러 온다는 이야기는 제주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의 예를 통해 그 의미를 확대시켜 본다. 설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나그네가 무덤에서 잠을 자는데 제사먹으러 가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나그네가 누워있는 무덤에서 손님이 있어 못 간다고 하고 혼자 다녀오라 한다. 조금 있으니 그 노인이 다시 와서 젯밥에 뱀이 있어 괘씸하길래 손주를 국 속에 빠뜨려 손을 데게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 영혼이 그 치료법을 말하며 안타까워 한다. 이러한 두 영혼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아들 집을 찾아가 보니 제사를 준비하다가 손주가 화상을 입어 난리가 나 있었다. 나그네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해주니 다음부터 그 아들 내외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다.[50]

이 이야기에서는 첫째 조상신은 무덤에 머물고 있고, 둘째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 그 재앙은 아들이 아닌 손자 즉 자손에게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조상신은 무덤에 머물고 있기에 4대봉사가 끝나면 반드시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하고,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이 모자라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는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곧 후손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것은 그 고통이 배가 됨을 알 수 있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제사를 행할 때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야 함을 강조한 설화이다.

---

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2, 1981, 260-262쪽.

그러한 예로 '제사는 정성껏 해야'라는 현용필의 이야기가 있다.[51] 이는 살아있을 때와 같이 영혼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사에 참석했던 영혼이 제삿날 집에 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친구의 꿈에 나타나 "내 아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다. 제사를 먹으러 왔는데 문을 닫아 버려서 못 들어가니 내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문을 열고 다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영혼이 제사먹으러 가려는데 문을 닫고 제사를 지내니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사 음식은 영혼이 와서 반드시 먹고 간다는 사고가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물을 준비하면서 잘못하여 제물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그것이 영혼에게는 뱀으로 보임을 말하여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몸을 먼저 단정히 해야 함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 외로 지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있다.

> 딸만 둔 노부부가 데릴 사위를 두고 죽으니 그는 장인 제사를 정성껏 치렀다. 장인은 제삿날 집에 가 보니 사위의 부친이 와 있어서 제사를 받아 먹지 못했다. 돌아가면서 가까운 친구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사위는 장인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듣고 다음부터 누구의 제사임을 글로 쓴 지방을 붙이고 지내었다.[52]

이는 지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의 제사임을 밝혀야 되며 이를 지방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겠다. 이번에는 제사의 실제를 통해 신앙적 의미를 추출해 본다.

제사는 대상 후 매년 기일에 행하는 제의이다. 기일이라 해도 실은

---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257-260쪽.

52) 현용준, 《제주도 민담》, 제주문화, 1996, 166-167쪽.

그 전날 저녁에 제의는 시작된다. 전날 아침부터 근친 여자들이 서로 모여 떡이나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주인이 젯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린다. 젯상은 둘 있다. 하나는 조상의 사령을 위한 상이고, 다른 하나는 문신을 위한 젯상이다. 전자는 조상상, 후자는 문전상이라고 한다. 조상상은 방에 차리고 정성들여 만든 제물들을 올리고 부부 양위의 지방을 써 붙이고, 문전상은 작은 탁자에 조상상에 올린 것과 같은 제물을 올리고 조상상 옆에 둔다. 이 때는 아직 양쪽 공히 밥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제물을 올리는 것은 남성의 일이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초헌이 조상상에 향을 붙이고 술을 바쳐 재배하고 이어서 참가한 친족 남자들이 차례차례로 재배한다. 참가한 친족은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사자의 결혼한 딸, 사위, 외손(딸의 자녀, 손) 들이다.

초헌관은 사자의 종손이며, 반드시 제사를 마련하고 있는 집의 주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설사 어머니의 제사를 막내아들이 맡아 하고 있어도 막내는 제물, 요리를 준비하고 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뿐, 초헌관은 거의 장남, 아헌관은 차남, 종헌관은 막내이다.

12시(자정)가 지나면 이제는 익일로 기일이 되었으니까, 밥과 국을 올리고 행제에 들어간다. 삼헌관, 집사들이 얼굴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먼저 문신 제의부터 시작한다. 집 주인 또는 자식이 방 구석에 두어 두었던 문전상을 입구 문 앞에 옮기고 단헌단작 약식 제법으로 행하고, 잡식(제물을 각각 조금씩 뜯어놓는 일) 한 것은 지붕 위에 던져 버린다. 이 제의를 문제 또는 문전제라 한다.

문제를 마치고 문제상을 부엌으로 건네면 주부가 또 문제상의 제물을 잡식하여 이것을 솥덕에 3번 나누어 던져 올린다. 이것은 조왕고사라 하며 부엌신에 대한 제의이다.

무격에 의해 행해지는 무속의례에서도 반드시 문신과 조왕신이 모셔

지고 가택신으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심방이 창하는 신화인 문전본풀이에서 문신인 막내아들과 조왕신인 어머니가 중심인물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한 방증이 된다. 이는 유교형식화되기 이전부터 무격에 의해 모셔지고 있던 가택신의 제의 중 특히 중요시되고 있던 문신과 조왕신의 제의가 유교화된 조상제사로 들어와 격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가 끝나면 선조의 영혼에 대한 제의를 행한다. 제식은 삼헌삼작으로 집사는 근친의 젊은이가 담당한다. 집에 따라서는 고방에도 음식을 올리는 곳이 있고, 선조 제사가 끝난 후, 그 제물을 조금씩 끊어 이것을 집의 입구 앞에 던지는 일도 있다. 고방에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은 무속의 곡물수호신(칠성)을 모시는 것이고, 집의 입구 쪽에 음식을 던지는 것은 조상신에 따라온 잡신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같이 무속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 본래의 제사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제사와 명절은 각각 부계직계혈족에 분배되며 제의에서 제관(초헌관)이 되는 것은 종손이다. 이 종손이 죽으면 제관이 없어 모실 자손이 없어지게 된다.

소위 4대봉사에 따라 고조부모까지는 매년 제사 명절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 현손인 종손이 나이 들어 죽으면 그 봉사는 멈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조부모의 제관이 되는 종손이 죽으면 고조부모의 제사, 명절은 멈춰진다. 그것은 종손이 죽고 다음 해 치르는 고조부모의 제사 때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이유를 축문으로 알림으로써 이루어진다. 봉사를 그치는 것을 지제라 한다.

고조부모를 지제하면 종손은 1대 내려가 죽은 현손의 장남이 되고, 따라서 제관의 세대도 1대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조부모였던 선조는 5대조부모가 되고, 증조부모였던 조상은 고조부모가 되고, 제사, 명절의 최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사, 명절을 공동으로 행하고

있던 친족은 새로운 고조부모를 정점으로 하는 몇개의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고조부모(이전의 증조부모)가 3형제였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의 제사집단이었던 것이 3개로 나뉘는 것이다.

이같이 지제하고, 5대조 이상이 된 선조에게는 1년에 1번 묘에서 묘제를 행한다. 시기는 청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이다. 「가정백방비결」에는 〈寒食 淸明 此兩日은 諸神이 上天하니 動作修室 新舊墓에 無不利나 一日內 未畢役則淸明畢功可也〉라고 하여, 한식과 청명 양일에는 이 고장의 모든 신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평소에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꺼려하던 일들을 처리해도 화를 안 입는다고 해서 도민들은 선묘에 가 허물어진 묘를 손보거나 비석을 새로 세우는 풍속이 있다.[53] 묘제는 청명 날에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묘제를 하는 조상은 많고 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선조 세대에 따라 참가하는 친족 범위가 각기 다르게 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날짜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청명 전후 3, 4일은 부락민들이 성씨별로 묘제에 참가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나간다.

제의는 먼저 토지신에 대한 제부터 시작한다. 묘를 향해 우측 후방향에 제물을 올리고, 토지지신위라는 지방을 써 붙여 단헌단작의 약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제물은 조상에 올리는 것과 꼭 같으나 단지 갱을 올리지 않으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뺀다.

이어서 선조에 대한 묘제를 치르는데 선조부부의 묘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남편이나 아내나 가까운 묘에서 양위를 함께 모셔 지낸다. 양위의 묘가 가까운 경우는 남편 쪽 묘에서 제사를 하고 아내 쪽 묘에는 누구 한 사람이 제물을 들고 가 참배하고 올 뿐이다.

---

53) 진성기, 《남국의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151-152쪽.

Ⅶ. 맺음말

Ⅶ. 맺음말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혼인하여 후손을 남긴 후 늙으면 죽는 것은 어느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제주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왔다. 지정학적으로 섬이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는 쉽게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였다가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취하였기에 그 정신은 조냥정신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한국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문화요소가 한국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문화요소의 취사선택을 통해 끈질기게 조상들의 생활방식을 전승해 왔다. 두드러진 것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제주만의 특이한 의례 요소에서 전승해 왔다는 점이다.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한 후 어른이 되는 과정까지 거치는 의례로 불도맞이, 삼승할망본풀이, 넋들임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주도 무속에서 드러나는 세계관의 반영이었고,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유감주술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후기 현종 10년(1844) 이재(李縡)가 편찬하여 간행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라 관혼상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이지만 제주도에는 성인식으로서의 관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관례가 성인식임을 감안하면 혼인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례의 성격은 혼인 속에 포함된 셈이다.

제주도에서 혼례의 특징은 신부의 사주를 신랑에게 넘기면 신랑이 궁합을 보고, 택일을 하여 혼인 날짜를 신부에게 알려주면 혼인이 성립하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사주만 돌리고 평상과 같이 생활한다. 그만큼 궁

합을 중시하고, 혼인날짜를 적은 예문을 막편지라 하여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는 사례편람의 납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도 혼례 풍습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신랑이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혼인이며, 그 과정에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올 때 각각 신랑과 신부의 상객 속에 외삼촌이 한 사람 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또한 신부를 신랑집에 보낼 때나, 신랑집에 도착했을 때나 사당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없다.

제주도의 상례는 유교식 의례와 무속식 의례가 혼합되어 있다. 환자가 운명하면 초혼, 염습을 거쳐 입관할 때 땀을 닦으며 가라는 의미로 광목 조각의 '땀수건'을 넣거나 관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집안에 있는 친족 여자가 사기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와 던져 깨뜨린다. 이것은 망인의 영혼이 일단 집을 떠났으니 고이 저승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집에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위협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무속에서 저승에 가지 못한 귀신을 잡귀라 하여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에 기인한 결과라 하겠다.

망인을 매장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부가 주도하여 귀양풀이를 하고, 대상이 지나 택일하여 시왕맞이를 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것은 망인의 영혼이 곱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로 무속식 의례가 유교식 의례와 혼합된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매년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싯게'라 하며,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싯게 넹기다(제사 넘기다)', '싯게 먹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때는 조상상과 같이 차렸던 문전상을 들고 나와 먼저 문신에 대한 의례를 행하고 이어서 조왕의례를 행함도 제주도의 특징이다. 문전본풀이에 근거한 문신과 조왕신에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관한 문헌 기록은 아주 소략하다. 그래서 과거 제주사람들

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고 해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1세대 민속학자이신 김영돈, 현용준, 고부자님의 노력으로 제주인의 통과의례에 관한 자료가 집적되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없었던 제주인의 과거생활사를 한데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은 선학들의 성과이다. 그러나 조사 내용 역시 피상적 내용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제주인의 삶의 방식과 의례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20세기 들어 일제 강점기를 통해 제주도는 외래 문물을 빠르게 접촉하게 되었고, 1950년 6. 25가 발발하자 들어온 피란민들은 제주도의 생활방식의 급속한 변용에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제주도 문화의 파괴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급격한 생활의 현대화는 굳건하게 신앙하며 전승하던 제주도 신앙체계를 흔들어놓았다.

하지만 제주민에게 과거 선조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전통을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통이 파괴되는 대로 놓아둘 수도 없다. 훗날 정신을 차려 조상들의 삶을 되살리려고 해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되살릴 수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1차로는 제주도의 통과의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2차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상들이 행했던 의례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에 의해 조직하고 제의를 행한 것이므로 조상들의 의례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동영상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를 소재로 제주민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한 연구자들을 통해 제주민의 정체성, 제주문화의 특성 등이 밝혀질 때 비로소 제주도는 빛을 발할 것이다.

〈참고문헌〉

A.반 겐넵, 전경수 역,《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9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관혼상제〉,《한국민속대관》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재판, 1995.

고부자,《제주도민의 통과의례》, 제주도, 1967.

_____,《한국민속학》6, 민속학회, 1976.

_____,《제주도의 육아속》, 국민대학논문집 4·5합집, 1977.

_____,《민속학논집》Ⅱ, 석주선박사고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2.

_____,《제주도연구》1집, 제주도연구회, 1985.

_____,《제주도연구》2집, 제주도연구회, 1985.

_____,《제주도연구》3집, 제주도연구회, 1986.

_____,《한국민속학》20, 민속학회, 1987.

_____,《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_____,《비교민속학》25집, 비교민속학회, 2003.

납읍향토지편찬위원회,《납읍향토지》, 2006.

대포마을회,《큰갯마을》, 2001.

북제주군구좌읍한동리,《둔지오름 한동리지》, 1997.

李迎春,《차례와 제사》, 대원사, 1994.

장철수,《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1995.

제주도,《제주의 민속》Ⅰ, 1993.

제주시·탐라문화연구소,《제주시의 향토민속》, 1992.

진성기,《남국의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토평마을》,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구비문학대계》9-2, 1981.

현승환,《탐라문화》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_____,《제주도 민담》, 제주문화, 1996.
_____,《제주유맥육백년사》,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1997.
_____,《민속사진집 靈》, 도서출판 각, 2004.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민속조사보고서

제주의 민속문화 ⑥《제주인의 일생》

▌인쇄 2007년 7월 6일

▌발행 2007년 7월 16일

▌펴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 02)3704-3114

▌제작 (주)신광씨링 ☎ 062)232-2478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2128-25-4 93380

11-1370152-000127-01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